

**남민우 R/MAX**  
Trust the Professionals!  
Residential & Commercial!  
**860-8860**  
www.canada8000.com  
www.peternam.com

# CNDREAMS

**하태호 (Taeho Ha)**  
Mortgage Specialist (모기지 전문가)  
Tel : 403.471.4657  
Fax : 403. 770. 8759  
e-mail: taeho.ha@rbc.com  
RBC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RBC 시간과 장소로 찾아드립니다. Royal Bank

## 앨버타 인구 급증, 4백만 시대

전국과 해외 이주자로 큰 증가율 보여

앨버타의 인구가 4백만을 넘어섰다. 앨버타의 경제 성장이 캐나다의 다른 지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인구들을 불러들인 덕분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앨버타 인구는 지난 7월 1일부터 4,025,074명이며, 연간 증가율은 3.5%로 지난 1980년대 초반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7월을 기준으로 12개월간, 캐나다의 다른 주와 해외에서 앨버타로 이주한 이들은 각각

52,677명과 52,551명이다. 또한 같은 기간, 사망자의 수에 비해 태어난 아이들의 수가 31,107명 더 많았다. 앨버타 주정부의 책임 경제학자 케이트 화이트는 이러한 인구 급증을 앨버타의 에너지 산업 여파로만 볼 수는 없다면서, 캐나다 많은 다른 주들의 경제가 약세를 나타냄에 따라 상대적으로 앨버타의 경제가 우월성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5면에서 계속) 박연희 기자



## 에드몬튼 세종문화회관 개관 기념식 성대히 열려

에드몬튼 한인사회에서 통상 문화회관으로 불리우는 세종문화회관(영어 이름 South Edmonton Se Jong Multi-cultural Centre)이 지난 28일(토) 개관 기념식을 갖고 공

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개관 기념식에는 에드몬튼 한인, 맨델 시장, 주의원, 시의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

다. 이날 행사에 문화회관 임원들과 주요 외부인들이 함께 개관기념 테이프 커팅식을 갖고 있다. 맨 오른쪽에는 맨델 에드몬튼 시장. 송선준씨 사회로 열린 기념식을 배학순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의 인사말과 맨델 시장의 축사, 내외 귀빈들이 테이프

를 끊음으로 세종문화회관이 공식적으로 개관 되었음을 선포했다. (8면에서 계속) 오충근 기자

## 앨버타 대학교 교직원 감축 이어져

예산 부족으로 정리 해고 이어질 수도



지난 8월 모든 교수와 보조원들에게 자발적 바이아웃을 제안하고 나섰던 앨버타 대학교가 121명 교원들의 바이아웃 결정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이아웃 제안을 수락한 직원들은 최대 1년 치 연봉을 받고, 내년 6월부터 앨버타 대학교를 떠나게 된다. 이 같은 제안은 예산 부족에

의한 것으로, 3년 계획을 2년으로 축소시키고 향후 2년간 5600만 달러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앨버타 대학교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교무처장 Martin Ferguson-Pell은 4,500여명의 교원들 중 현재 121명이 제안을 받아들여, 일시적으로 1700만 달러를 지급하게 되었다. (6면에서 계속) 박연희 기자

## 그리즐리 곰의 등산로 이용실태 파악한다

8개의 동작 인식 카메라 설치돼

레이크 루이스 근처 모레인 레이크의 등산로에 최근 8개의 동작 인식 카메라가 설치됐다. 이는 그리즐리 곰과 사람의 등산로 이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카메라를 설치한 박사과정의 Sarah Elmeligh는 카메라 외에도 등산객들에게 설문 조사를 통해 곰의 서식 지역에 들어가 전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4면에서 계속)

## 넨시 시장 재임 기간, 세금 인상폭은?



31.3% 인상, 넨시 시장 “아니다. 18%에 불과하다.” 넨시 시장이 이번엔 재임기간 인상한 세금 폭을 놓고, 시민들이 익숙하지 않은 섹션을 들고 나와 솔직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시의회는 작년 13%, 2011

년 10.4%의 두 자릿수 재산세 인상을 포함해 넨시 시장 재임 3년간 총 31.3%의 세금 인상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넨시 시장은 “캘거리시와 주정부 세금 인상은 11%에 불과하다. 캘거리시만 놓고 계산해도 지난 3년간 18%밖에 인상되지 않았다. 인상된 세금으로 시민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센터, 보도블록 개선, 도서관 건축 등에 사용되었다.” 라고 말해 31.3% 인상폭은 잘못된 계산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3면에서 계속) 서덕수 기자

**마운트 로얄 대학교, 강의실에 자리 없다**  
2015-16학년도에는 입학생 10% 줄일 것

올 가을 새 학기를 시작한 마운트 로얄 대학교 학생들이 팍 찬 강의실에 끼어 앉아 수업 듣거나, 혹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원하는 수업을 수강하지 못한 채 전전공하고 있다. 일정 과목의 수강을 원하는 학생의 수가 제공되는 수업의

수용 가능 인원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마운트 로얄 대학교는 주정부 부가 약속했던 보조금을 10% 가까이 삭감하자, 가을 수강 신청을 6주간 연기시키며 대책 강구에 나선 바 있다. 그리고 몇몇 교수들은 수강 신청을 연기한 것이 수강을 원하

는 학생들의 수와 그에 상응하는 직원 수를 예측하는 시간을 줄여 결국 이러한 현상을 만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리고 지도 교수들은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의 졸업이 늦어지게 될 것으로 보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6면에서 계속)

## 캘거리 시의원 후보 12명, 현재 사는 곳과 출마 지역 달라

후보들, 불리한 여건에도 도전 가치 충분해 2013년 선거의 특이한 점은 총 시의원 후보 49명 중에 12명이 자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선거구에 임후 보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간의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이스트 빌리지에 살면

서 Ward 2지역에 출마한 손리폴리 후보는 “조만간 다운타운을 벗어나 출마한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대학생일때부터 이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출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3면에서 계속) 서덕수 기자

**북미 유일의 연방정부 승인**  
**녹용 수출 공장**  
★ 소비자 방문 구입 환영  
Parkland Processing Inc.  
Tel: 403.230.5837  
241-39th Ave. NE Calgary

**한국관**  
Korean Village  
대형 연회장 및 가라오케 원비  
케이터링 전문  
월-토 10-11  
일요일 12-11  
403-228-1120/269-7940

**정진수 치과**  
Canyon Creek Dental  
가족처럼 편안하게 모십니다.  
전화 : 403-238-9144  
1037 Canyon Meadows Drive SW, Calgary

**해피 여행사**  
E-mail : happyt@telusplanet.net  
Tollfree : 1-866-477-1700  
Tel : (780)436-1700  
각종 항공권 예매

**김재현 (Jae Kim)**  
Manager Residential Mortgage  
Tel. 403-399-2080  
Fax. 403-770-8820  
E-Mail. Jae.Hun.Kim@td.com  
TD 원하시는 시간,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푸르덴트 이민 . 공증**  
이민 / LMO / 비자 / 공증  
Certified Immigration Consultant & Notary Public  
403.402.2286  
im.prudent@yahoo.com  
www.prudentimmigration.ca icrc

**자동차/집/비즈니스/여행/생명**  
맥클라우드 보험  
고재필 403-479-0773  
michael.ko@mkmk.ca

**공인회계사 원종호**  
MBA, CGA, Tel : 403-283-7733  
E-mail : wonaccounting@gmail.com  
47 Edgeridge View NW Calgary AB T3A 5Y9

**코리아나 여행사**  
calgarykoreana@yahoo.ca  
IATA 캘거리 유일 IATA 승인 한인 발권대리점을 이용하세요!  
(403) 290-0007 / 877-909-0007

**조은아 CGA**  
공인회계사  
780-267-9914  
euna.cga@gmail.com

**한인 자동차 정비 SANG AUTO**  
• 정비/판금/도색 • 보험 인스펙션  
• 타이어 • 중고차 매매  
상담 환영 403-397-3973 911D 46Ave SE Calgary

**문수경 공인회계사, CMA**  
CERTIFIED MANAGEMENT ACCOUNTANT 우리 공인회계 법인  
• 법인 및 개인 세무보고 • 회계감사  
• 사업계획 상담 • 장부정리 서비스  
Tel:403-269-2203 Fax:403-269-2234  
263 - 19 Ave NE Calgary AB T2E 1P2

**가자 여행사**  
▶ 각종 항공권 세일 ▶ 패키지 판매  
(403) 454-8717 크리스틴

**TELUS**  
High Speed 인터넷  
Regular HS Extreme \$50  
HS Turbo 15 \$55  
HS Turbo 25 \$65  
▶ 모든 인터넷은 모뎀을 무료 렌탈해 드립니다.  
Customers required to provide valid student ID. Some restrictions may apply. Regular prices may change without notice.  
APEX WIRELESS  
한국어 상담 1-855-812-7877 월-금 10am-6pm TELUShome@apexwireless.ca



WE HAVE CERTIFIED PRE-OWNED HYUNDAI VEHICLES WITH FINANCE RATES STARTING AS LOW AS 1.90%

현재 영업중!

# HIT THE ROAD

WE HAVE OVER 300 NEW AND 900 USED VEHICLES AVAILABLE!



CHP6280A

## 2013 HYUNDAI ELANTRA GL AUTO

4 DOOR SEDAN, AUTOMATIC, FWD, A/C, TILT STEERING, TRACTION AND CRUISE CONTROL

SALE PRICE **\$15,990**

FROM 24,272KMS

OWN IT FOR **\$115 B/W** FINANCING FOR 84 MTHS

YOU SAVE \$4,000 ONLY AT CHH  
HURRY! ONLY 1 LEFT!

## 2012 HYUNDAI GENESIS SEDAN

49,144 KMs

SALE PRICE **\$28,900**

AUTO, 3.8L V6 ENGINE, A/C WITH DUAL-ZONE CLIMATE CONTROL, HEATED SEATS



P130604



CHP6981A

## 2013 BMW X128i

22,123KMs

SALE PRICE **\$38,990**

**JUST ARRIVED!**

AUTO, AWD, LEATHER, AFFORDABLE LUXURY

## 2013 MERCEDES BENZ C300 4MATIC

21,038KMs

AWD W/PREMIUM SPORT PACKAGE (LEATHER, HEATED SEATS, SUNROOF, 17" ALLOY WHEELS)

**\$38,890**

NEW ARRIVAL



CH099291A

JUST ARRIVED!



CHA6861A

44,878 KMs

## 2011 BMW 328xi

3.0L ENGINE XDRIVE

SALE PRICE **\$27,490**

## 2013 AUDI Q5

17,511KMs

AWD, LEATHER, HEATED SEATS, 18" ALLOY WHEELS, BLUETOOTH

**\$43,990**

NEW ARRIVAL



CH099291A

Let us sweep you off your feet.

Have a seat in our new **Luxury Lounge** today!



**GREG LEE**

프로덕트 스페셜리스트  
403.700.5099 (MOBILE)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이용 해 보세요!



**\$39.95**

타 브랜드 포함. 예약 필요 없습니다.

모든 서비스 후 무료 세차를 해 드립니다.

오일 교환시 얼라인먼트 인스펙션과 터치리스 세차를 해 드립니다.

BOOK TODAY, SERVICE TODAY • SAME-DAY AND NEXT-DAY APPOINTMENTS

무료 자동 세차 (모든 서비스 받으신 분께)



**DANIEL BYUN**

제너럴 세일즈 매니저



2307 Country Hills Blvd NE  
Calgary, AB T3J 0R4

**403-984-9696**  
**CHHYUNDAI.COM**



### 캘거리, 버스 투표소 선보여

“Vote Bus Pilot Project”, 투표 독려하는 참신한 아이디어

캘거리에 새로운 투표소가 등장한다. 캘거리 선관위는 LRT주변에 이동 버스 투표소를 설치해 시민들이 10월 21일 선거 당일에 앞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시범 운영으로 시행되는 버스 투표소는 10월 9일과 11일, 그리고 15일과 16일에 걸쳐 LRT주변에 주차해 누구나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권자는 반드시 캘거리에 거주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최소 6개월 앨버타에 거주했다는 선서를 한 후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2007년 개정된 규정 때문에 부재자 투표자는 투표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더 이상 투표 당일 타도시 등 외지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며 투표 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거나 차량이 없거나 운전할 수 없는 시민들이 투표소에 접근하기 쉽도록 버스 투표소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버스 투표소와는 별도로 시내 곳곳에 선거일에 앞서 투표할 수 있는 장소도 운영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calgary.ca/election](http://www.calgary.ca/elec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캘거리 선)

### 캘거리 시의원 후보 12명, 현재 사는 곳과 출마 지역 달라

후보들, 불리한 여건에도 도전 가치 충분해

(1면에 이어서 계속)

사실 지역구 출신이 아닌 경우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 개시부터 상당한 불리함을 안고 싸워야 한다. 이미 현역 지역구 후보들은 이를 상대방의 약점으로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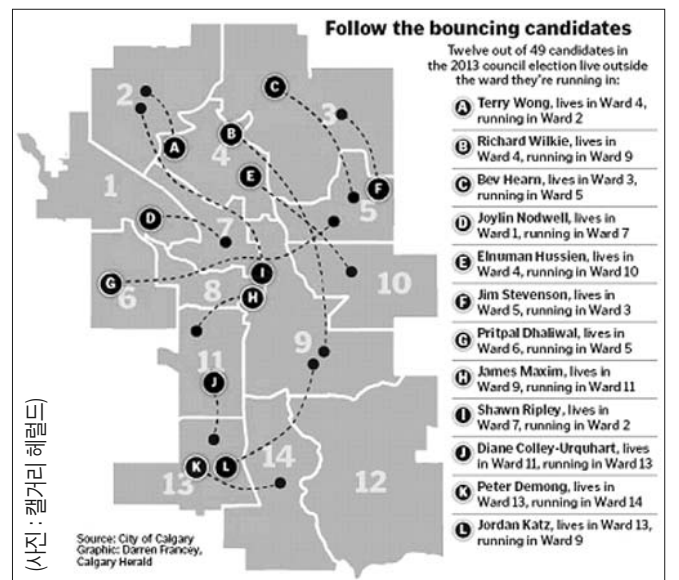
Ward 2 지역에 3번째 도전장을 내고 당선을 노리고 있는 Joe Magliocca씨는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는 사람을 원한다.”라며 외지 사람들의 출마에 대해 의아해 했다.

특히, 이 지역은 오랫동안 시의원직을 유지해 온 고드로 의원이 은퇴하면서 타 지역 출마자들이 당선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 이런 지역은 라이드 파크에 살면서

Ward 11에 출마한 제임스 맥심 후보, 에지몬트에 살면서 Ward 2 지역구에 출마한 테리 왕 후보도 마찬가지 경우이다.

반면 인접 지역구가 아닌 먼 거리에 떨어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도 있다. Ward 5의 현역 의원인 레이 존스 씨도 아스펜 우드 출신의 후보와 겨루고 있으며 Ward 9의 Gian-Carlo Carra 후보 또한 SW 안쪽의 밀라이즈 출신의 후보 Jordan Katz와 NW 샌드스톤 출신의 Richard Wilkie 후보의 도전을 받고 있다.

도전을 받는 입장인 현역 의원들의 대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미 지역구의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 특히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는 타 지역 출신 후보들의 공세



는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출신 지역이 아닌 곳에 출마한 후보들은 현재의 지역출신 의원들이 제대로 지역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민들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후보들에게 표를 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민들에게 지금까지 알려진 얼굴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어 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약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연 이들의 도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번 선거를 관전하는 하나의 재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덕수 기자)

### 넨시 시장 재임 기간, 세금 인상폭은?

31.3% 인상, 넨시 시장 “아니다. 18%에 불과하다.”

(1면에 이어서 계속)

그러나, 넨시 시장의 이 같은 계산은 시가 다음 년도 재산세 인상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mill rate (주택의 자산가치 1,000달러 당 내야 하는 세금 기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전문가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넨시 시장이 첫 재임기간 동안 너무 많은 세금을 거뒀다는 비판을 상쇄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세금 계산법을 들고 나와 자신을 정당화하는데 사용하고 있어 솔직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 헨리 씨와 안드레 샤프트 의원은 “넨시 시장의 세금이 참 구차하다면서 시의회에서 세금인상

을 결정할 때 mill rate를 기준으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민심 이반을 두려워해 영똥한 셈법을 들고 나왔다.”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다른 실수는 넨시 시장이 들고 나온 mill rate조차 2013년과 2011년 두 해만을 비교한 것으로 3년을 모두 고려했을 때 21%의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캘거리의 주택 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했을 때 이 mill rate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넨시 시장의 논리라면 캘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 세금을 반이나 줄였다고 말해야 한다.

이런 세금 인상폭 논란에 시의회 재무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고드 로위 시의원은



“넨시 시장이 들고 나온 기준을 시의회에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밝혀 넨시 시장을 궁지에 빠트렸다.

그는 또한 30%인상폭을 주장하는 것도 불공평하다고 반박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결국 정부와 캘거리에서 부과하는 재산세를 혼합한 것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캘거리시의 재산세는 16.7% 인상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덕수 기자)

### Ward 7, 또 다시 격전지로 부상

넨시 시장과 개발업체 지지 후보의 대리전 양상

캘거리 다운타운 중심지를 두고 후보들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남쪽으로는 차이나 타운과 이스트 빌리지, 북쪽으로는 써니사이드, 달하우지, 캠브리안 하이츠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Ward 7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10년 선거에서 현 Druh Farrell 시의원이 라이벌 케빈 테일러를 1,252표의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4선에 당선된 곳이다. 그러나, 이번 2013년 선거도 그녀에게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바로 케빈 테일러가 지난 3년간 선거를 위해 밀바닥부터 민심을 다져왔기 때문이다.

항상 접전이 벌어지는 이 지역은 현재 Druh Farrell 시의원이 터줏대감이다. 패럴 의원은 지난 2010년 선거에서 피스 브리지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Dump Druh”라는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당선된 바 있다.

또한, 당시 패럴 후보에게 자리를 내주었던 케빈 테일러 후보가 지난 3년간 와신상담을 일구어온 곳이어서 이번 대결 또한 박빙의 승부가 예측되고 있다.

케빈 테일러 후보는 “나는 지금까지 선거 운동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면서 시의회 회의마다 참석해 누구보다 캘거리와 이 지역의 관심사를 잘 알고 있어 이번에는 승리할 것”이라며 장담하고 있다.

패럴 후보에 대해서도 “그녀가 캘거리에 공헌한 점은 인정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 납세자들을 대표하는 일에 무관심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패럴 후보는 케빈 테일러 후보가 대형 건설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역공에 나섰다.

케빈 테일러 후보는 바로 Shane Homes의 회장 칼 웬질이 주장하는 “Business friendly” 후보 중의 한 명이기 때문이다. 패럴 후보는 이런 점을 공격하고 나섰다. 그녀는 “주민들은 어느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을 펴는 사람들에게는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패럴 후보는 넨시 시장과 같이 개발업체들과 거리를 두고 있고, 케빈 테일러 후보는 건설업체들의 지지를 받는 양상이어서 대리전의 분위기를 띠고 있는 것 또한 이 선거구의 관전거리이다.

이 뿐만 아니라 패럴 후보는 또 다른 2명의 후보들로부터도 도전을 받고 있다. 과연 이 격전지에서 살아 남을 후보는 누구인지 10월 21일 결정된다.

(서덕수 기자)

클리닉 파마/세팅 파마  
디지털 파마/코팅 파마  
뮤펌 (단백질 퍼머)  
헤어 메니큐어  
아모레 화장품 취급

정아 버리방 #24, 3116 Parsons Rd.(99St) Edmonton AB  
780-468-5301 월~토 10am~6pm, 일/공휴일 휴업

‘연치과’ 인사드립니다.

새 환자분들 및 긴급치료 원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환자분들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Dr. Michael Yun, DDS  
General Dentistry  
Complete Family Dental Care  
Direct Billing Available

403-278-1400 #9, 3451 Douglasdale Blvd SE www.yundental.com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집전화 고민 끝! 6개월간 반(半)값에 쓰세요!

전국 무제한 월\$4.50\*  
국제전화 무제한 월\$17.50!

6개월간 50% 할인

2013년 10월 15일 까지

1,800.872.2902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a 에서 확인해주세요

캐나다 무제한 플랜 \$8.99/월 → \$4.50/월

글로벌 플랜 \$24.99/월 → \$12.50/월  
글로벌 플러스 플랜 \$34.99/월 → \$17.50/월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크로비비, 카카오톡, 네이버 메신저, 라인 메신저, 밴트 메신저, 스카이프,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리브스트림,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리브스트림

□ 의회 예산안 처리 시한 넘겨

1995년에 이어 미 연방정부가 다시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해 세계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것은 의회의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인 9월30일까지 상원 하원에서 합의안 도출이 되지 않아 예산안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벌써 3년째 마지막 순간에 예산안이 통과되어 연방정부 폐쇄 직전까지 갔지만 이번에는 마지막 순간을 넘기지 못하고 상원, 하원이 예산안 타결에 실패했다. 또 다시 연방정부 폐쇄까지 간 이번 사태는 지난 3년간 보아 왔듯 민주당, 공화 양당의 심화되는 대립, 정부 지출에 대한 타협의 지 약화, 양당이 벌이는 벼랑 끝 전술이 빚어낸 사태다.

이번에 예산안 타결에 실패한 원인은 오바마 케어(Obama Health Care)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안 때문이다.

□ 상원과 하원의 갈등

오하이오주 출신의 존 보너(John Boehner) 하원의장은 9월29일 상원에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상원은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상원은 오바마 케어의 시행을 일년 유예하는 내용의 수정예산안과 의료장비 부과세를 무효로 하는 안에 대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예산안 통과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정부 폐쇄를 피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시나리오는 하원에서 상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켜 백악관으로 넘기는 것이다. 오바마 케어를 놓고 벌이는 충돌을 피하고 대처국면을 피하고자 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합세한다면 그 시나리오는 유효하다.

그러나 그 시나리오는 존 보너 의장의 정치적 입지를 약



미국, 연방정부 폐쇄

미국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에 돌입한 1일, 업무가 중단된 한 연방정부 직원이 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회는 앞서 2014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에 실패했다.(사진: 로이터)

화시킬 것이라는 게 정계 관측통들의 견해다. 존 보너 의장은 공화당 지지가 정치적 자산인데 공화당 지지가 공화당 내 보수파들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파들은 보너 회장에게 오바마와 정책 대결에서 좀더 호전적 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른 공화당원들도 공화당내 가장 보수적 집단이 현 정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도 공화당 요구를 자꾸 들어주면 앞으로 매번 재정안과 관련해 마감 시한에 쫓겨 공화당 요구가 점점 거세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의 인식도 벼랑 끝 대처국면을 유발하고 있다.

이번 협상과정에서도 공화당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고 양측은 견해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도 공화당의 제의를 거부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나 이마에 총이 겨누어진 채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의회의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연방 정부 폐쇄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연방정부는 의회가 다시 자금을 지원할 때까지 잠정 폐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폐쇄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백악관 예산관리처는 연방정부기관에 대해 9월30일 자정을 기해 정부 폐쇄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200만명이 넘는 연방 공무원 중 80만명-120만명이 무급 휴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국가 안보, 우편물 배달, 항공 교통 통제, 법 집행 등 필수 공공 서비스는 계속되어 이번 정부 폐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 정부 폐쇄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국립공원, 박물관,

파산법원, 국제청 등이다. 중소기업에 대출업무도 중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폐쇄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은 경제가 될 것이다. 우선 세계 증권시장이 일제히 하락세를 면치 못해 유럽 아시아 증권시장이 하향세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 증권시장은 일시적 하락 현상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곡선을 그렸다. 이것은 시장이 정부 폐쇄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경제분석업체인 HIS 글로벌 인사이트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연방정부 폐쇄로 일일 생산손실액이 3억불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폐쇄기간이 일주일 지속되면 4분기 국내총생산이 0.2% 감소하고 1995년처럼 21일 폐쇄하면 0.5%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4분기 경제 성장 전망치 2.2%에서 1.7%로 내려 앉는다는 의미다.

CNN과 여론조사기관 ORC 인터내셔널이 전국 성인 800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정부 폐쇄가 공화당 책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6%를 기록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 책임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6%, 양비론을 주장한 사람은 13%에 달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 공동조사에서도 오바마 지지율이 41%, 공화당 지지율은 26%를 나타냈다.

17년 전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도 1995년 12월15일부터 1996년 1월6일까지 22일간 연방정부가 폐쇄된 적이 있다.

□ 미 연방정부 폐쇄가 캐나다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미 연방정부 폐쇄로 캐나다에 받게 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동일 경제권에 있는 캐나다도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국경 입, 출국 관련 업무, 통관통상 업무, 여권 비자 발급 등인데 여권과 비자발급 등 영사업무는 정상적으로 이

어진다. 무역과 통관업무도 필수업무로 지정되어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경 출입은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 필수업무에 해당되어 정부 폐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여행객들은 영향을 받는다. 요세미티, 엘로우스톤 등 전국 401개 국립공원이 전면 폐쇄되기 때문에 국립공원 방문 계획이 있는 여행객들은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박물관 출입이나 자유 여신상 관람도 폐쇄기간 중에는 관람이 불가능하다.

또한 미국 정부나 관공서에 납품, 입찰도 중지되므로 이 분야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다. 국제청 업무가 중단되므로 납세 서비스가 중단되고 국제청 감사도 중단된다.

미국으로 취업을 원하는 캐나다 국적이거나 한국 국적 소지자들도 영향을 받는다. 신원증명 프로그램(E-verify program)운영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즉 미국 기업의 외국인 취업이 정부 폐쇄와 함께 중단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영향은 경제가 될 것이다. 정부 폐쇄가 장기화 되어 10월15일로 예정된 국가부채한도 상향 조정에 영향을 줄 경우 미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캐나다 경제는 큰 영향을 받는다.

만약 국가부채 한도가 상향 조정 되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미국 국제금리가 상승할 것이다. 미국 국제금리가 상승한다면 캐나다 경제는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정부 폐쇄보다 10월15일의 국가 채무한도 상향 조정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폐쇄에도 달려화하는 일시 상승했으나 경제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10월15일까지 달러화는 하락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즐리 곰의 등산로 이용실태 파악한다

8개의 동작 인식 카메라 설치돼

(1면에 이어서 계속)

또한 등산로를 닫거나, 일정 숫자 이상 모여서 등산을 하

도록 하고, 곰이 서식하는 지역에는 경고 사인을 붙이는 등 등산객들과 곰의 안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

다. Elmeligis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그리즐리 곰과 사람들에

게 모두 좋은 관리 옵션을 만들어 내는 일”이라면서, “사람들에게는 멋진 등산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그리즐리 곰에게 필요한 장소에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3년간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캐나다 공원청과는 별도로 진행되지만, 조사가 끝난 뒤에는 야생생물 관리자들에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년 전 그 수가 뚜렷이 감소하여, 앨버타 주의 멸종 위기종으로 등록된 그리즐리 곰은 앨버타 전역에 걸쳐 1980년대에는 약 1,200마리였으나, 현재는 약 700마리만이 남아 있다. 그리고 현재 밴프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그리즐리 곰은 대략 60~65마리 정



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연희 기자)

**Brentwood Carwash & Auto Detail**

손 세차 및 광코팅 세차 & 차체 부분 수리 전문

이제부터 저희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차 외관을 잘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업무 내역**

- ✓ 코인 셀프세차
- ✓ 손 세차 및 광코팅 세차
- ✓ 우박 및 작은 흠집, 스크래치 짝업 및 부분 도색
- ✓ 기타 차체 부분 수리 전문
- ✓ 한국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리막 (3M PHPS) 코팅
- ✓ 블랙박스, 어라운드 뷰 카메라 설치 (유명 한국제품 완비)

Ph) 403-338-1953  
Cell) 403-971-7798  
3740 Brentwood Rd. NW Calgary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교회

**레드디어 한인교회**

**교회 이션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와 수고로 센트럴 알버타 레드디어에 위치한 레드디어 한인교회는 올해 드디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한 여러분의 사랑과 동역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와 지역 사회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더 많이 나누기 위해 새로운 예배 처소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레드디어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지역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기도와 격려로 성원부탁드립니다.”

레드디어 한인교회 임진혁 목사 및 성도 일동

새 교회 주소 (Sunny Brook United Church):  
12 Stanton St. Red Deer, AB

- 이전감사예배 : 10월 13일 (추수감사주일) 1:00 pm
- 주일예배 1:00 pm
- 청소년부예배 1:00 pm
- 아동부 예배 1:00 pm
- 화요중보기도모임 11:30 pm
- 셀그룹 모임: 지역별 셀

연락처 : 403-392-8538, 403-392-7102 www.rdkchurch.org

# 에드몬톤 시장 후보, 세금 문제 놓고 격돌

라이보비치 후보, 시민들 주머니 건드리지 마라  
아이비슨 후보, 시 재정안정성 위해 필요한 일 해야

카렌 라이보비치 후보(사진 왼쪽)가 돈 아이비슨 후보(사진 오른쪽)를 상대로 포문을 열었다. 라이보비치 후보는 "아이비슨 후보가 시민들의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고 한다."며 세금 인상에 반대했다.



(사진: 에드몬톤 저널)

한편 돈 아이비슨 후보는 에드몬톤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시장이 되면 켈거리넨시 시장과 함께 시 재정에 필요한 재원을 끌어 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구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비슨 후보는 보유세 인상의 의미는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다.

라이보비치 후보는 아이비슨 후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난 몇 년 동안 넨시 시장은 시 재원 마련을 위해 GST 1% 인상을 주장해 왔다."며 "이것은 모든 시민들의 주머니를 뒤흔치는 것과 같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 해 11월 주정부는 각 지자체가 인프라 시설의 구축을 위해 자체적으로 세금을 인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막았다. 지난 해 10월 켈거리넨시 시장은 GST 인상을 요구한 바 있으나 주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라이보비치 후보는 아이비슨 후보의 GST 인상 계획을 아주 세련되지 못한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고령의 노인층과 저소득층에게 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는 GST같은 세금

에 손을 대는 것은 차라리 재산세를 올리는 것보다 못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비슨 후보는 라이보비치 후보의 주장에 대해 "나는 GST 인상을 주장하지 않았다. 라이보비치 후보가 지지율에서 뒤진다고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다."며 자신 주장은 적자폭이 커지는 에드몬톤 시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서덕수 기자)

# 앨버타 인구 급증, 4백만 시대

전국과 해외 이주자로 큰 증가율 보여

(1면에 이어서 계속)

실제로 앨버타가 2002-2009년에 호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다른 지역과 세계 다른 나라들 역시 대개 건강한 재정 상태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은 인구 증가율은 앨버타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인들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비영주권자로, 학생, 난민 신청자, 임시 외국인 근로자 등이 주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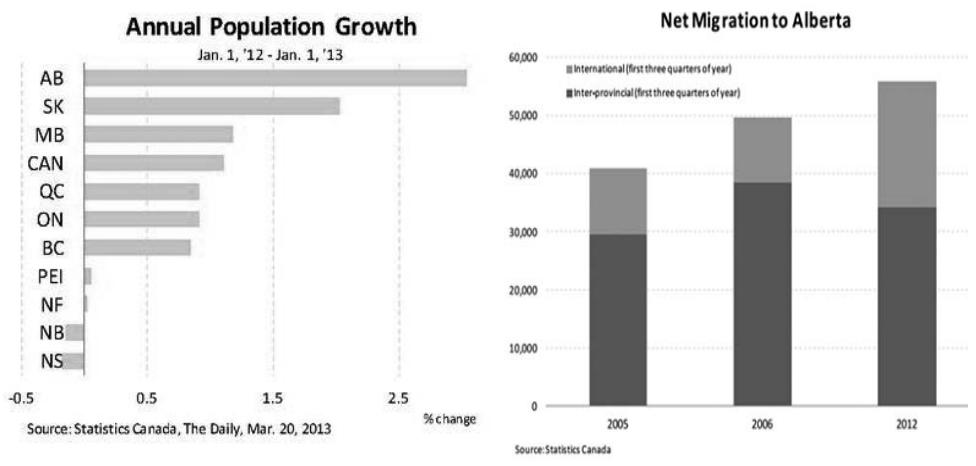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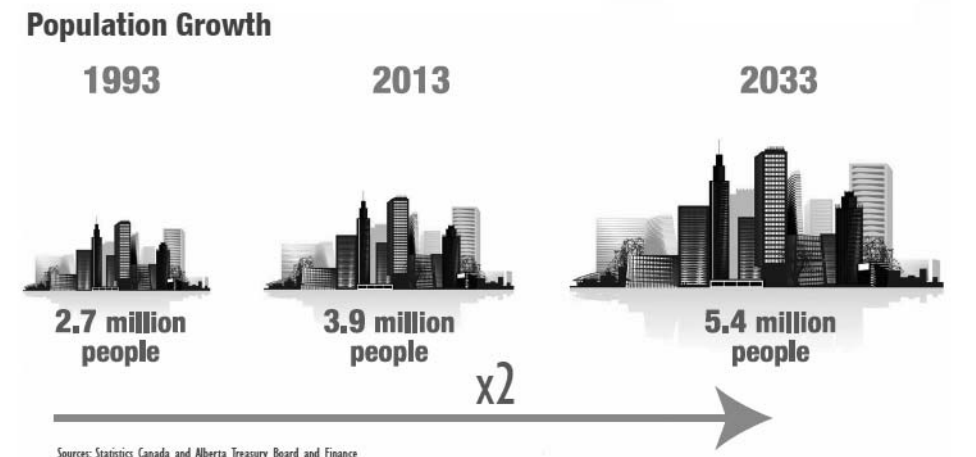
올 상반기에 앨버타로 이주한 비영주권자 외국인들은 17,246명으로 지난 한 해 동안 10,160명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박연희 기자)

올해 앨버타로 이주한 외국

## ◆ 앨버타 인구 변화

1906 - 185,200
1926 - 607,600
1946 - 803,330
1966 - 1,463,200
1986 - 2,365,830
2006 - 3,290,350
2011 - 3,645,255
2013 - 4,025,074 (7월 기준)



# 에드몬톤 시장선거, 기금 행사 논란



(사진: 켈거리 헤럴드)

## 새 시장 길들이기 의혹

에드몬톤 리버뷰(Riverview)지역 보수당 연합회에서 이번 에드몬톤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3인의 후보를 위해 기금 조성 파티를 계획했다 취소하는 일이 생겼다. 티켓 한 장에 150불을 파는 디너 파티로 이날 모인 기금은 3인의 입후보자에게 전달될 계획이었다.

기금 조성 파티가 무산된 이유는 사회자로 내정되었던 시정 담당 장관(Municipal Affair minister)이 사회자를 맡지 않겠다고 물러서고 시장 입후보자 두 명이 불참을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10월9일 열릴 디너 파티의

주제는 "신인 시장이 앨버타 보수당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로 정해졌고 사회는 시정 담당장관 더그 그리피스와 리버뷰 지역 주 의원 스티브 영이 맡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디너 파티가 단 순한 기금 조성 파티가 아니라 3명의 시장 입후보자에게 질문이 주어지고 질문에 따라 즉석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실을 안 Don Iveson과 Karen Leibovici가 지난 목요일 참석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시장 선거에 출마한 Don Iveson은 "기금 조성 파티인지 성격이 불분명해 참석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Karen Leibovici는 "상대가 참석한다고 해서 나도 참석하려 했는데 참석 안 하겠다."고 참석 의사를 철회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반대 여론이 빗발치듯 쏟아졌

다. 와일드 로즈당은 "새로 시장이 될 사람에게 어떻게 보수당에 충성할 것인가를 묻는 것과 같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와일드 로즈 당수 다니엘 스미스(사진)는 "내가 내 선거구에서 모금 디너파티 하면서 그 지역 시장 입후보자들 불러다 돈 모아 주면서 우리 당하고 어떻게 지낼 것이냐고 물어볼 수 있는가? 보수당이 제 정신이 아니다. 이긴 미친 것이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편 모금 디너파티를 구상했던 리버뷰 지역의 보수당 연합회 회장은 "좋은 뜻으로 열려고 했던 모금파티였다. 모금파티를 하면 저명인들이 와 주기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라며 모금 파티 성격이 원래 의도와 달리 전해진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오충근 기자)

# 주수상 인기순위, 레드포드 주수상은 중간

지난 9월 초 성인 캐나다인 6,559명을 대상으로 각 주의 수상들에게 대한 인기도를 조사한 결과 앨버타의 앨리슨 레드포드 주수상은 34%의 지지도를 얻어 중간 성적을 기록했다.

20%의 지지를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매니토바의 그렉 셀링어, 뉴브런즈윅의 데이비드 엘워드, 그리고 노바 스코샤의 대릴 텍스터 수상들도 각각 25%, 27%, 28% 지지율을 획득해 별반 차이없이 주민들에게 별 인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B.C.주의 크리스티 클락 주수상이 44%의 지지로 두 번째로 인기가 높았다.

최근 열차사고와 논란을 일으켰던 Charter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졌던 퀘벡주의 폴린 마리오 수상은 39%로 반등했으며 온타리오의 케이틀린 와인 주수상 또한 39%를 기록했다. (서덕수 기자)



# WE Academy와 함께 하는 체계적인 학습

특별한 아이를 위한 특별한 선택!

**NEW CLASSES!!**

현 Public High School 선생님을 모시고  
**MATH, SCIENCE, SOCIAL CLASS**를 오픈합니다.

**ENGLISH (G3-G12까지 체계적인 프로그램 : 1시간 30분 수업)**

- Reading**
  - Alberta Curriculum의 Novel 선정으로 선행학습 가능
  - 소설의 상징성 파악 및 토론을 통한 작문능력 향상
  - 캐나다 교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표현력 강화 학습
- Vocabulary**
  - 매 시간 Vocabulary Test로 모든 소설의 핵심 키워드를 쉽고 재미있게 기억
  - Advanced Vocabulary를 이용한 Writing Skill 지도
- Writing**
  - 아이디어 전개 및 Essay의 주제 파악
  - Essay 세부 구성요소 파악
  - 소설의 주제, 상징성, 반어법 등을 통한 Writing Skill 습득
  - 과제 채점 및 Rewriting 연습

WEacademy

상담 전화: 403-246-6748    팩스: 403-452-3565  
이메일: acclanguage@gmail.com    주소: #102, 3515-17th Ave SW Calgary AB T3E 0B7

# 주정부, 홍수 관련 고위 공무원 시간외 수당 지급

캘거리 시, 2007년부터 주정부와 협약 맺어



(사진: 캘거리 헤럴드)

시 고위직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 수령 문제로 시골벽 적했던 캘거리가 마침내 주정부가 각 지자체 공무원들의 홍수복구관련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캘거리 시는 홍수복구 관련 비노조원들의 시간외 수당이 6백5십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30만 7천 달러가 최고 위직 디렉터들에게 지급된 것

으로 알려져 홍역을 치렀다. 지난 주 수요일 덕 그리피스 장관이 “관리자급들의 시간외 수당은 주정부의 재난구호 예산에서 보상해 줄 수가 없다.” 라고 밝히는 바람에 캘거리 시는 당혹감을 쌓였으며 넬시 시장은 선거과정에서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Municipal Affairs의 대변인이 목요일 상황을 정리했다. 이미 주정부와 보상 계약이 존재하고 서류가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캘거리 시는 지난 2007년부터 비상사태 발생시 고위직 관리직급 공무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주정부와 협약한바 있다고 주정부가 밝혀 이번 홍수관련 시간외 수당 사태는 적절하게 지급되게 되었다. 하이리버 또한 2012년 비상사태시 디렉터와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 지급을 주정부와 협약을 맺어 시간외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레스브릿지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2주간 휴가로 대체 보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거리 넬시 시장은 이번 고위직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 문제가 불거지자 차기 시장에 당선되면 정책을 변경할 의사를 표현한 바 있다.

# 넬시 시장, 그리피스 장관 발언에 발끈

두 사람 악연 계속 이어지나?

넬시 시장이 선거 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주정부 그리피스 장관(사진)이 지난 주 한 발언 때문에 발끈하고 나섰다. 그리피스 장관이 “주정부는 각 지자체 고위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을 대신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고 하면서 넬시 시장의 캘거리 고위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 지급에 대한 정당성 발언이 거짓말이 될 뻔 했다.

그러나, 주정부는 바로 다음날 2007년부터 캘거리 시와 협약에 의해 비상사태와 관련된 고위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 보상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며 애써 무시했다.

그러나, 넬시 시장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런 주정부 관리들의 발언은 자칫 영향력을 발휘해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날카롭게 반응



하고 있다. 넬시 시장이 발끈하자 그리피스 장관의 언론 담당관은 “그리피스 장관의 발언은 그야말로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이며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의도는 전혀 없다.” 라고 밝혔다. 그리피스 장관과 넬시 시장의 격돌은 이번 만이 아니다. 두 사람의 악연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넬시 시장이 주정부가 캘거리 시를 “Farm Team” 으로 여기고 있다고 포문을 열자 그리피스 장관이 “넬시 시장이 가을 선거를 위해 벌써 공작새처럼 꼬리를 부풀리고 있다.” 라고 응대한 바 있다. (서덕수 기자)

# 앨버타 대학교, 교직원 감축 이어져

예산 부족으로 정리 하고 이어질 수도

(1면에 이어서 계속)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매년 최대 1400만 달러의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액수로는 현재 대학교가 직면해 있는 예산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앨버타 대학교의 재정 상태는 지난 봄 주정부가 보조금을 8% 삭감한 이후 더 악화됐다. Ferguson-Pell은 학교 측이 몇 주안에 부족한 4200만~4400만 달러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 밝혔지만, 그 방법은 교직원들에 대한 비자발적인

고용해고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erguson-Pell은 정확히 몇 명이 더 학교를 떠나야 할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같은 교원 감축에 대해 앨버타 대학교 학생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학생회 부회장 Dustin Chelen은 교원 감축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 확실하다면서, 대학교측이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Chelen은 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대학교의 이 같은 결정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박연희 기자)



앨버타 대학교 교무처장, Martin Ferguson-Pell. (사진: 에드몬톤 저널)

# 마운트 로얄 대학교, 강의실에 자리 없다

2015-16학년도에는 입학생 10% 줄일 것

(1면에 이어서 계속)

마운트 로얄 대학교에서 27년간 강의를 해온 Lori Williams 정치학 교수는 한 번도 이렇게 빈자리가 없이 수업이 붐비는 광경은 본 적이 없었다면서, 정치학부에서는 추가 학생을 강의에 끼

어 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올해 마운트 로얄에 입학한 Logan English 역시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nglish는 “수강을 원하는 모든 강의 마다 빈자리가 없어 수강 신청이 불가능했다”면서 홍보를 공부하고

싶었지만, 언어학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교 입학 관리부의 Phil Wasarba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수업은 지난 학기와 비교하여 단 3% 감소하였을 뿐이며, 이는 예산 삭감과 상관없이 일어난

수 있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지난 30일, 마운트 로얄측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5-16학년도 입학생은 가장 많은 입학생을 받았던 2012-13학년도에 비해 10% 감소된 7,678명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동차 보험, 집 보험, Commercial 보험**

**DfI Del fisher Insurance**

**노효원 (Liz Ro)**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고객에 딱 맞는 최저금액 보험료를 신속히 산출해 드립니다.

Cell : (403) 606-9310  
Tel : (403) 230-3811  
Fax : (403) 276-1058

Email : liz@delfisher.ca      www.delfisher.ca  
2202 Edmonton Tr. N.E. Calgary, AB T2E 3M5

**마리아 & 다니엘 부부미용사**

볼륨매직 스트레이트, 셋팅펌, 특수펌, 남자펌 전문!

스타일컷, 사기컷, 존컷, 최신 연예인 스타일컷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 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01 26Ave. SW 403-827-1943 / 403-702-0228

# 최순일 부동산

**COMMERCIAL**

**GROCERY**

- Asking : \$229,000 + stock
- Revenue : \$670,000 (2011), \$400,000 (2012)
- Area : 948 sqft
- Rent : \$2,900 (OP Cost, Util included)
- Net Income : \$165,000 (2011), \$87,000 (2012)
- 7 days available, next to New TELUS bldg. const. site, new lease from Oct. 1, 2013

**COIN LAUNDRY**

- Asking : \$265,000
- Gross Sale : \$126,000/year
- Rent : \$1,600/month
- Size : 1,260 sqft
- Potential to growth

**CAFE & BISTRO**

- Asking : \$385,000
- Area : 1,550 sqft
- Net Income : \$190,000
- Cigarette available, 7 days open available

**RESIDENTIAL**

**2 STORY HOUSE IN NW C/S**

- Asking : \$880,000
- Size : 1,700 sqft

**2 STORY HOUSE IN SW**

- Asking : \$690,000
- Size : 1,899 sqft

**2 STORY HOUSE IN SW SOLD**

- Asking : \$900,000
- Size : 2,350 sqft

**BUNGALOW IN NW SOLD**

- Asking : \$570,000
- Size : 1,560 sqft

**2 STORY HOUSE IN SW SOLD**

- Asking : \$540,000
- Size : 1,200 sqft

**BI-LEVEL IN NE SOLD**

- Asking : \$439,900
- Size : 1,120 sqft



**최순일**  
Simon Choi  
(403) 479-1472  
simonchoi2013@gmail.com  
Discover Real Estate Ltd. 소속

# AMAX

AUTO BODY & REPAIR

LIFETIME WARRANTY  
FREE ESTIMATES  
GOOD QUALITY SERVICES

---

## "All Mechanics"

"즉시 오일교환"  
"브레이크 교환"

GENERAL BODY WORK  
PAINTING  
ALL INSURANCE CLAIMS  
ALL MAKES AND MODELS  
ALL LICENSED  
SALVAGE/OUT OF PROVINCE INSPECTIONS



자동차 앞유리 교환  
\$200.00

모든 면허를 보유한  
**자동차 전문 정비업체**

빠르고 완벽한 서비스와 합리적인 수리비를 보장합니다.

- 20년 이상 정비경력
- 보험수리 환영
- 경정비 환영



▶ 한국어 서비스:  
Jasmine 403-235-0031

---

# AMAX

AUTO BODY & REPAIR  
#149, 1807 60 st SE  
403-235-0031 / Fax: 403-235-3106  
email: amax.juliet@gmail.com

캘거리, 에드몬튼에서 가장 맛있는 족발

# 왕족발 배달 서비스

배달 메뉴

**꿀꿀이 (족발) \$35**

**불타는 꿀꿀이 (불족발) \$38**

아시는 분은 다 아시고, 모르시는 분만 모르시는 저희 족발.

저희 족발은 얼리지 않고 그 신선함과 맛을 더해 최고의 족발 맛을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조리하여 언제나 고객님의 후레쉬한 족발 특유의 쫄득, 쫄깃한 껍질과 부드러운 육질, 은은한 오양의 향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많은 장소에서 족발을 맛 보실 수 있게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족발과 함께...

가장 맛있는 족발

403-797-2477

Facebook.com/chahyeong.lee

현재 저희 족발은 캘거리의 이마트, 코리아나 마켓, 에드몬튼의 중부마트에 납품중입니다.



## 캘거리 한인회

주소 : 7008 Farrell Road SE, Calgary, AB T2H 0T2 ☎ 403-216-4600  
팩스 : 403-216-4600

---

### ▣ 하반기 순회영사 안내

- 일시: 2013.10.25(금), 13:30pm~19:00pm : 순회영사활동
- 장소: 캘거리한인회관
- 처리업무:
  - 각종 공증업무(인감위임장, 일반위임장, 운전면허 번역문, 호적 번역문 등)
  - \* 공증 업무시 여권, 영주권 카드 (또는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반드시 지참 요망
  - 전자여권 신청, 가족관계등록(출생, 혼인, 이혼신고서류), 국적상실신고, 병역 업무
  - 재외국민등록부 교부 신청 시 반송우표 부착된 봉투 준비요망
  - 수수료는 현금으로 준비 요망
  - 당일 접수만 가능하며 여권발급은 처리(약 4~6주) 후 회송
  - 준비서류
- 전자여권 신청 시 필요 서류
  - 여권(사진부착면) 원본 및 사본
  - 체류사증(PR카드 앞, 뒷면 또는 비자) 원본 및 사본
  - 6개월 이내 찍은 전자 여권용 사진 1매 (자세한 규격 안내는 홈페이지 참조)
  - 수수료 (현금 지참 요망) : 18세이상 C\$53, 18세미만 C\$45, 8세미만 C\$33
  - 우편수령희망 시, 반송봉투 비용 약 C\$25 현금으로 준비 요망

※문의: 필요한 서류 등은 총영사관(전화번호: 604-681-9581)에 전화하시거나, 총영사관 홈페이지 (can-vancouver.mofa.go.kr → 영사)에서 미리 확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람.

### ◆ 캘거리 홍수 수재의연금

- \$ 515 : 한우리 교회
- \$ 500 : 캘거리영락교회
- \$ 200 : 송석원, 이진종
- \$ 50: 김용미, 손광옥

---

### ▣ 캘거리 한인회 홈페이지

• 캘거리 한인회 홈페이지가 만들어 졌습니다. 주소는 [www.calgarykorea.com](http://www.calgarykorea.com)입니다.

### ◆ 2013 후원금 납부자 명단

- \$5,000: 재외동포재단
- \$3,500: TD Bank
- \$3,000: Harvest Operations (한국석유공사)
- \$2,500: KAJATA (김태우)
- \$2,000: 고려플라자, 외환은행, GS 건설, KOGAS (한국가스공사)
- \$1,500: Country Hills Hyundai
- \$1,000: 김덕선, 엄기준, 정성영, 홍성호, 최국병 한인종합보험, 한인노인회, 크랜드 부동산, 한인 장학회, 한인 라이온스 클럽
- \$500: 밴쿠버 총영사관, 김호식, 김희성, 서병희, 심일섭, 조현주, 사물놀이 뿌리패
- \$300: 김민식(청야), 시늉검도클럽, 캘거리한인여성회, 캘거리한인천주교회
- \$200: ATB Financial, 김창영, 아트클럽, 최현식, 캘거리한인기술자모임
- \$100: 김덕수, 김문자, 이문규, 이순우, 이태영, 최창선, 한국코리아
- \$90: 이근홍

---

### ▣ 2013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

강경현, 강대욱, 강대준, 강박영, 강상철, 강옥자, 경규철, 구분영, 구정모, 구윤모, 고상희, 고재필, 공문규, 구월남, 권인형, 권순옥, 김강민, 김경숙, 김금재, 김도원, 김대경, 김덕선, 김덕수, 김동승, 김동제, 김민식(청야), 김민식(CN드림), 김병석, 김복미, 김복남, 김복례, 김승혜, 김수근, 김수남, 김수엽, 김순옥, 김순우, 김성삼, 김성민, 김성태, 김영옥, 김옥분, 김용미, 김용섭, 김양자, 김재경, 김재린, 김종근, 김주승, 김준호, 김재현, 김지식, 김찬영, 김창열, 김창원, 김호경, 김호준, 김화선, 김환태, 김현수, 김형기, 김충기, 김희성, 노연대, 류재진, 마용관, 문정린, 문숙경, 문용일, 문정희, 문루시아, 민병기, 박건규, 박길재, 박두호, 박상남, 박용호, 박은현, 박은희, 박이규, 박익준, 박인숙, 박준돈, 박중혁, 박판기, 박현, 박형규, 박형우, 박찬중, 변철환, 백광식, 서병희, 서덕일, 서순복, 서정범, 서정욱, 서희영, 신정훈, 설옥희, 손광남, 손광옥, 송석원, 안길웅, 안영두, 안인숙, 안창석, 엄선주, 엄승곤, 엄정원, 양승우, 양정렬, 양창진, 오경호, 오세춘, 오영식, 오윤경, 유민주, 유정순, 유재근, 원수연, 유옥자, 유인숙, 유형준, 윤정옥, 이근홍, 이경자, 이경철, 이기호, 이만수, 이민수, 이덕홍, 이병근, 이복영, 이봉우, 이상국, 이상순, 이상철, 이석원, 이석희, 이선자, 이숙희, 이순옥, 이시명, 이시영, 이영옥, 이영자, 이요셉, 이의숙, 이인재, 이장순, 이정주, 이재완, 이준엽, 이준용, 이태주, 이태영, 이하진, 이호순, 이효석, 이학철, 이희규, 임병문, 임석순, 임채현, 장순자, 전기보, 전아나, 전이순, 장봉숙, 장인숙, 정연옥, 정인화, 정도주, 정무일, 정명철, 정승사, 정영희, 정희용, 정중기, 조병준, 조원각, 조원도, 조원태, 조원희, 조윤희, 조정훈, 조현주, 진애자, 차광준, 차태연, 차중숙, 천화자, 최광덕, 최광엽, 최병기, 최병화, 최순옥, 최영철, 최양숙, 최장주, 최정규, 최정식, 최정평, 최정혁, 최정희, 최준달, 최계봉, 최재원, 최창선, 최현식, 하중목, 한상진, 한승숙, 한기화, 홍성효, 홍주영, 홍한숙, 함명숙, 황영만, 황의준, 함상훈, 함윤옥, 황남순, 황등일, 황혜송, 황희현, 허영숙, 허환

# 에드몬톤 세종문화회관 개관 기념식 성대히 열려



개관식에 이어 열린 기념축하공연에서 멋진 노래를 선보이고 있는 에드몬톤 여성합창단원 모습

(1면에 이어서 계속)

이날 기념식에는 이명구, 이기철 씨 등 전임 이사장들도 참석해 같이 테이프를 끊었다.

기념식에 이어 2부 순서로 사물놀이, 태권도 시범, 음악회가 열려 한인들이 주도해서 세운 세종문화회관 개관을 기념하는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날도 전날에 이어 피아니스트 샌드라 김, 성악가 안재

숙, 클로드 최의 기타 독주가 있었다.

기념식 하루 전인 금요일 오후 7시에 세종문화회관 기금 마련 디너 파티(fundraising party)가 열렸다. 기금 마련 행사에는 한 장에 100불씩 팔린 티켓이 비싼 것 아니냐는 한인사회 증론이 있었으나 좌석을 거의 채운 약 220명이 참여하는 성황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기금 모금 디너 파티에 참석한 인원의 약 절반은 한

국인 나머지 절반은 비 한국인으로 multicultural centre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인종들이 참석했다.

기금 모금 디너 파티의 사회는 에드몬톤 출신 코메디언 Danny Hooper가 맡아 진행했다. Danny Hooper는 경매 사회도 재치있게 진행해 많은 사람들의 경매 참여를 유도했다.

경매 후에는 에드몬톤 출신 피아니스트 샌드라 김의 피아노 독주, 밴쿠버에 거주하는

성악가 안재숙씨의 독창, 세계적 음악인 클로드 최의 기타 독주 순서가 있었다.

이날 열린 기금 모금 디너 파티에 예산을 뛰어넘는 기금이 모여 고무되는 분위기로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는 “찾아 주신 한인들과 관심 갖고 참가한 비 한인들에게 고마움 다름이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다양한 문화를 전하는 첨병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오충근 기자)

# 앨버타 양대 도시, “캐나다 경제는 우리가 이끈다.”

사스카툰, 리자이나는 향후 5년간 급성장 예상

Conference Board of Canada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13개 대도시들 중 켈거리, 에드몬톤이 자원을 바탕으로 캐나다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앨버타의 양대 도시 뒤를 이어 사스카툰, 리자이나, 밴쿠버가 캐나다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향후 경제 전망에서도 2014년부터 17년까지 앨버타의 양대 도시 경제 성장률은 3.1%로 예상되며 이 기간에는 사스카툰과 리자이나가 각각 5.2%, 5%로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올해 켈거리와 에드몬톤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3.3%, 4.2%로 나타나 에드몬톤은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앨버타는 키스톤과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 성장에 발목이 잡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켈거리는 지난 2011년 5.4%의 급성장 이후 2012년 4.2%로 추축해지고 있으며 올해는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이유로 지난 6월 100년만의 대홍수로 인한 경제적 타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홍수 복구과정에서 나타나는 건설과 소매 분야의 성장으로 2014년에는 다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자원을 바탕으로 한 서부 캐나다의 성장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고용, 투자를 유발해 선순환되는 형국이어서 향후에도 자원을 가진 주들, 앨버타, 사스카치완, 뉴펀들랜드 등이 캐나다 경제를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앨버타 양대 도시들의 급격한 팽창에 따라 사회 인프라 수요 및 서비스의 수요 증가가 붓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향후 성장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덕수 기자)

## 켈거리 주택시장, 끈임 없는 상승세

평균 매매가, 454,352달러 기록

9월에도 켈거리 주택 가격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CREB에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19%가 상승한 1,923건의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평균 매매가는 454,352달러를 기록해 8.3% 상승했으며 중간 가격 또한 40만 달러를 넘어 402,500달러를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민자를 포함해 급증하는 신규 인구 유입이 현재 주택시장을 떠받치고 있으며 낮은 실업률과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켈거리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제 이민자들의 유입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온타리오, B.C.주 등 타 주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어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9월 한 달간 켈거리 주택 시장에 등재된 건 수만 3,922건으로 나타나 주택 상승세에

집을 팔기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재고 제로 상태”의 렌트 시장으로 말미암아 더욱 더 주택 매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렌트 시장의 급속한 공급 부족으로 인해 잠재적인 주택 수요자들인 사람들이 주택 구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켈거리 주택 시장을 정확하게 하는 표현으로 “경제적 호황, 렌트 시장의 절대적 공급부족, 인구 급증”의 3가지 요인으로 함축될 수 있겠다.

론도 매매 또한 17%가 증가해 평균 매매 가격이 299,000달러를 기록했으며 타운하우스는 18% 증가해 평균 매매가 340,000달러를 기록했다. (서덕수 기자)

## 무허가 지하실 개조,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렌트 수요 급증이 원인, 안전문제 비상

켈거리 시의 세컨더리 스위트 허가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렌트 수요 급증으로 인해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를 개조해 렌트를 주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해 안전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렌트 시장이 공급 부족에 빠지자 집 주인들은 규정대로 집을 수리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개조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규정대로 개조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불법적인 개조를 부추기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한다.

현행 규정상 적법한 개조를 신청할 경우 시청의 허가를 얻는 경우는 전체의 50%에

불과하며 허가를 득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자는 4,485달러의 거금을 들여야 한다.

켈거리 시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빌딩 퍼밋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현재 전체 등록된 건수는 264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켈거리 시는 현재 켈거리 전체에 불법적인 개조를 통해 세컨더리 스위트를 만들어 임대하고 있는 곳은 5만 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켈거리 시도 전체 무허가 세컨더리 스위트 렌트의 현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에 어긋나는 세컨더리 스위트 개조가 늘어나



(사진: 켈거리 선)

면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바로 안전이다.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대피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창문크기가 사람이 빠져 나갈 수 없거나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임차인들은 이런 불만 사항들을 시의회에 신고할 수도

있다. 연간 약 1,000건의 불만 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공급부족 상태에서 다른 렌트를 찾기 힘든 임차인들이 무조건 신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10월 선거 후 세컨더리 스위트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덕수 기자)

### 공인회계사 윤 영,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책임있는 회계·세무 서비스 / 복잡한 세무문제 완전 해결**

## 앨버타주개업 5주년 기념 프로모우션

“한인사업은 한인 회계사에게”  
또한  
“앨버타주 사업은 앨버타주 회계사에게”

라는 취지로 외국인 회계사에게 또는 타주 회계사에게 업무를 맡기시는 사업주에게 현재 지불하시는 비용을 기준, 무조건 **25% 할인**하여 드립니다.

**업무시간**

- \* Mon - Fri 9:30am ~ 5:00pm
- \* 토요일: 예약 경우만 근무 (12 ~ 5pm)
- \* 새주소 #4 (2nd floor), 9825-44Ave NW, Edmonton, AB T6E 5E3
- (780) 462 - 8355 (영)
- (780) 628 - 7226 (한)

본 회계사무소에서는 캐나다 국세청(CRA)에서 정부 세무 변호사로 근무하였던 변호사와 함께 하기 업무를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 감사 대행
• 항소 업무
• 자진 신고

---

**학력·자격증**

- 경기고 졸 (68회)
- University of Toronto : Linguistics 3년 수료 후 Accounting으로 전과
- CGA Program (Professional Level)
- CSC Gold Certificate (Honours) 소지 : 증권 · 어음 · 채권
- Certificat de Langue Française
- CGA National Exam에서 Letter of Honours 2회 수상 (Advanced Personal & Corporate Taxation and Advanced Finance)
- CGA Program 채점관 역임 : Advanced Taxation & Advanced Auditing

## 깨끗한 Furnace와 Duct는 Power Brush와 Ultra Whip Cleaning System을 갖춘 Dust Buster를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에드몬톤에서 가장 큰 HVAC/Furnace & Duct Cleaning 회사에서 4년 동안 근무하다 새로 회사를 오픈한 Dust Buster의 대표 이기원입니다. 더 이상 Blow and Go에 돈을 낭비 하지 마시고 가장 깨끗한 Power Brush와 Ultra Whip Cleaning System의 Furnace & Duct Cleaning을 선택하십시오.

새 집으로 이사하시고 보일러와 덕트를 청소하셨나요?  
최근 집을 레노베이션 하셨습니까?  
집안의 공기가 답답하십니까?  
집에 계속 먼지가 쌓이나요?

**Dust Buster와 상의하세요!**

Power Brush

Before

After

See the difference

Call for Free Quote  
**780.729.DUCT(3828)**  
steve.lee@shaw.ca

### Dust Buster

Furnace & Duct Cleaning



# 이춘호 닷컴 부동산

www.leechoonho.com

*Francis Lee is highly trained Commercial Professional providing outstanding services with clients looking for commercial properties and business*



**이춘호 (Francis Lee) Cell : (403)680-6130 Bus : (403)253-5678**

E-mail : francisleemaxwell@gmail.com

#20-8180 Macleod Tr, South Calgary AB, T2H 2B8

Maxwell South Star Realty

Associate Broker ★ IC&I Full Commercial Member

2006-2012

7 YEAR STRAIGHT PINNACLE AWRD

2012 GRAND HALL OF FAME & TOP

#1 COMMERCIAL PRODUCING REALTOR.

**FRANCHISE MOTEL NEW**

- ASKING : \$14.7M
- 112 ROOM WITH SWIMMING POOL AND WATERSLIDE LOCATED BOOMING TOWN

**MONEY MAKING FRANCHISE MOTEL**

- ASKING : \$11.9M
- REVENUE : \$3,158,106 - 3 YEARS OLD
- LIMITED SERVICE - 85 ROOM
- LOCATED VERY BUSY CITY

**WELL KNOWN FRANCHISE MOTEL LOCATED BIG CITY NEW**

- ASKING : \$8.79M
- REVENUE : \$2,052,457 - NOI: \$991,943
- YEAR BUILT : 2008 - 77 ROOM

**FRANCHISE MOTEL IN CALGARY NEW**

- ASKING : \$7,990,000
- VERY GOOD LOCATION WITH 68 ROOM WHICH HAS BEEN TOTALLY RENOVATED IN 2012.

**SOLD GREAT FRANCHISE MOTEL FOR SALE**

- ASKING : \$7,565,000 - 89 ROOMS
- OPENED NOVEMBER 2008
- REVENUE : \$1,638,376(10MONTH IN 2011)

**SOLD FRANCHISE MOTEL**

- ASKING : \$7.49M
- 4 YEARS OLD WELL KNOWN FLAG LIMITED SERVICE
- 66 ROOM HOTEL WITH \$1.6M REVENUE.
- DETAIL INFO CAN BE PROVIDED UPON REQUEST OF ONLY QUALIFIED AND SERIOUS CLIENT

**SOLD GREAT FRANCHISE MOTEL FOR SALE**

- ASKING : \$6,460,000
- 76 ROOMS - OPENED APRIL 2007
- REVENUE \$1,465,000 (10MONTH IN 2011)

**MOTEL LEASED RESTAURANT & PUB NEW**

- ASKING : \$6.1M
- REVENUE(ROOM : \$2,324,025, RENT FEE : \$125,281)
- 92 ROOM, 2.22ACRES LAND PLUS LEASED RESTAURANT & PUB LOCATED VERY ACTIVE TOWN IN AB

**SOLD MOTEL, RESTAURANT & LOUNGE**

- ASKING : 5.9M
- 62 ROOM, 100 SEAT RESTAURANT & LOUNGE
- GREAT BUSINESS LOCATED BOOMING TOWN WITH OVER \$3M REVENUE BUSINESS

**SOLD FRANCHISE MOTEL WITH LEASED RESTAURANT FOR SALE**

- ASKING : \$5.9M - 48 ROOMS
- 3 YEAR AVERAGE REVENUE IS OVER \$1.5M
- LAND : 2.43 ACRES AND SOME ADDITION LOT FOR EXPANSION

**FRANCHISE MOTEL IN BIG CITY NEW**

- ASKING : \$5.79M
- REVENUE : \$1,502,000(2012), \$1,277,981(2011)
- 70 ROOM WITH SWIMMING POOL LOCATED WELL BALANCED CITY IN AB.

**MOTEL WITH LEASED RESTAURANT NEW**

- ASKING : \$5.4M
- REVENUE ROOM : \$1,543,739(\$1,474,703, OTHERS : \$69,036)
- 60 ROOM
- LEASED RESTAURANT WHICH THE OWNER OWNED EQUIPMENT PLUS LOUNGE
- THE RESTAURANT CAN BE OPERATED BY OWNER FROM 2015 AND THE EXPECTING REVENUE SHALL BE ABOUT \$1,000,000
- MAJOR INDUSTRIES ARE OIL, GAS AND FORESTRY SURROUNDING THE BIGGEST NATIVE RESERVE AND THE FORTH LARGEST DEPOSIT OF SAND OIL IN AB

**FRANCHISE MOTEL FOR SALE**

- ASKING : \$5.29M
- 52 ROOMS
- 2 YEARS OLD

**SOLD FRANCHISE MOTEL**

- ASKING : \$4.7M
- REVENUE : \$1,325,396
- 48 ROOM PLUS SWIMMING POOL

**SOLD RESORT LODGE, CABIN, DINING / LOUNGE & CONFERENCE**

- ASKING : \$3.99M
- REVENUE : \$1,645,221 ( ROOM : \$809,722, OTHER : \$100,697, CONDO RENT : \$317,195, FOOD \$417,607),
- 3 YEAR AVERAGE NOI \$420,000 OPERATED BY MANGER AND OWNER OPERATION SHALL BE MORE.
- 33 SUITES, 6 CABINE, 6 STAFF SUITES, SWIMMING POOL, RESTAURANT & LOUNGE, CONFERENCE ROOM.
- 19 LODGE SUITES HAVE ROCK FIREPLACE, 6 ARE LOFT SUITES WITH 2 BATH ROOM, 6 SPACIOUS JACUZZI SUITES LOCATED INTERPROVINCIAL PARK

**MOTEL, LOUNGE AND CABINE IN SK RESORT NEW**

- ASKING : \$3.5M
- REVENUE : \$1,509,323
- 30 ROOM - 23 CABINE
- DINING, LOUNGE AND BANQUITE FACILITY LOCATED IN PROVINCIAL PARK RESORT AREA
- CLIENT TREND IS MAINLY TRAVELLERS IN THE RESORT PLUS OIL INDUSTRY CREW
- THE OIL FIELD ACTIVITY IN THIS AREA PRIMARY DRIVEN BY BAKKEN FORMATION

**MOTEL WITH LEASED RESTAURANT IN NORTHERN AB**

- ASKING : \$3.19M
- 43 ROOM, LEASED RESTAURANT, LIQUOR STORE, PUB AND 1.19ACRES LAND
- REVENUE : \$1,632,477(ROOMS : \$620,444, LIQUOR : \$770,364 PUB: \$198,669 RESTAURANT : \$43,000)
- 9 YEAR AVERAGE REVENUE : \$2.214M

**MOTEL WITH RESTAURANT IN SK**

- ASKING : \$2.99M
- 50 ROOM
- REVENUE (ROOM : \$790,020, RESTAURANT : \$656,490)
- 98 SEAT RESTAURANT AND 1.21 ACRES OF LAND
- LOCATED GREAT CORE OF OIL INDUSTRY WITH 2,500 POPULATION

**SOLD FULL SERVICE HOTEL NEAR CALGARY**

- ASKING : \$2.69M
- REVENUE : \$1.19M - 35 ROOM, 4 VLT
- 40 SEAT RESTAURANT AND 150 SEAT OF BAR.
- 3 YEAR WINDMILL PLANT PROJECT WILL START SOON.

**SOLD WELL MAINTAINED MOTEL NEAR EDMONTON**

- ASKING : \$2.19M - REVENUE: \$662,165
- 32 ROOM(27 KITCHENETTE, 1 EXECUTIVE SUITE WITH FIREPLACE & JACUZZI)
- 3 BED MANAGER SUITE AND FITNESS ROOM WITH 1.99ACRES LAND LOCATED VERY STEADY AND BUSY TOWN.

**SOLD MOTEL IN SOUTHERN AB**

- ASKING : \$1.97M
- REVENUE : \$536,294
- 28 ROOM WITH 4 BED MANAGER SUITE AND SWIMMING POOL.
- WELL MAINTAINED GREAT MOTEL WITH STEADY REVENUE BUSINESS

**WELL MATAIEND MOTEL IN BIG CITY AB**

- ASKING : \$1,790,000
- REVENUE : \$468,067
- NOI : \$225,659
- 48 ROOM WITH 2 BED MANAGER SUITE LOCATED BIG CITY IN AB AND WELL BALANCED CLIENT BETWEEN TRAVELLER AND CREW

**SOLD MOTEL WITH LEASED RESTAURANT**

- ASKING : \$1.69M
- REVENUE : \$454,107
- 2.18 ACRES LAND, 49 ROOMS WITH MANAGER SUITE PLUS LEASED RESTAURANT (\$2,500/M)
- VERY PROLIFIC HEAVY OIL AND GAS RESERVE FIELD

**MOTEL WITH RESTAURANT**

- ASKING : \$1,390,000
- 44 ROOMS
- REVENUE : \$558,725(ROOM \$330,123, RESTAURANT : \$68,590, VLT : \$34,825)
- 3 VLT, 37,500 SQFT LAND. BUSINESS IS PICKING UP AND WILL BE GOOD BY OWNER OPERATION.

**RENTAL PROPERTY WITH LIQUOR STORE NEW**

- ASKING : \$3.39M
- RENTAL INCOME : \$209,996
- LEASED GAS STATION & C TORE AND 2 BAY PLUS OWNER OPERARTING LIQUOR STORE WHICH WAS BUILT IN 2013

**SOLD GAS BAR, LIQUOR STORE AND FAST FOOD**

- ASKING : \$4.99M
- NOI : \$958,454
- REVENUE ( GAS : \$2.56M, CONFECTIONARY: \$1.94M, CIGA: \$0.82M, LIQUOR : \$1.63M, FAST FOOD : \$0.34M)
- DO NOT MISS THIS GREAT MONEY MAKING BUSINESS

**C/S GAS BAR, C STORE PLUS AUTO WASH**

- ASKING : \$2.99M
- REVENUE : \$5,928,277 - NOI : \$420,000
- EASY OPERATING BUSINESS LOCATED VERY BOOMING CITY WITH BRAND NEW PUMP, CANOPY AND PLUS 0.5ACRE EXTRA LAND WHICH WILL BE GREAT POTENTIAL TO ADD FRNACHISE RESTAURANT

**SOLD GAS BAR & C -STORE IN BUSY TOWN**

- ASKING : \$2.89M
- REVENUE : \$5,394,767 - NOI : \$480,762
- GROSS MARGIN : \$807,110
- 250KM EAST OF EDMOTON TOWN WITH 6,470 POPULATION
- SUPPORTED BY OIL AND GAS INDUSTRIES

**GAS BAR, LEASED RESTAURANT IN SK**

- ASKING : \$2,400,000 (SHARE \$2,100,000)
- REVENUE : \$,4787,632
- WELL MATAINED TRAVELR AND TRUCKLERS TRAVEL CENTER WITH LEASED RESTAURANT(\$144,030/Y)

**GAS STATION, C-STORE, LIQUOR STORE INCLUDE LIVING QUARTER**

- ASKING : \$1.17M
- REVENUE : \$1,639,760(GAS : \$508,526, STORE : \$569,459 LIQUOR : \$561,737)
- ONLY STORE IN TOWN
- LOCATED 142 KM NE FROM EDMONTON



## 에드몬튼 신축 콘도 화재

잠정 피해금액만 2천만 달러 상회  
에드몬튼 역사상 가장 큰 화재 피해

지난 주 일요일 새벽 에드몬튼의 SE Rutherford에서 신축중인 콘도미니엄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예상되는 피해금액만 2천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어 에드몬튼 역사상 가장 큰 화재 피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콘도 신축에서만 1천 8백만 달러의 피해액이 발생하고 주변 주택과 차량 손실이 2백만 달러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새벽 2시경 발생한 화재는 3시 경에 산업용 프로판 가스가 폭발하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번졌으며 21대의 소방차와 85명의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진압 작전을 펼쳤다.

프로판 가스의 폭발력으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소방관들은 오전 9시 15분에서야 불길을 잡았다. SW 119 St와 21 Ave에 위치한 이 콘도 신축현장은 한쪽은 운동장, 다른 한쪽은 주택가에 인접해 있어 자칫 초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 했다고 한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변 주택과 차량들이 폭발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포함해 위험물질 관리 소홀 등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콘도를 짓고 있는 Carlisle Group에 따르면 8개월 전부터 짓기 시작했으며 건물은 3개 동의 4층 빌딩으로 265유닛 중에 235유닛이 이미 분양되었으며 평균 매매 가격은 175,000달러로 알려졌다.

한편 긴급 대피한 주민들은 인근의 Johnny Bright School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거처하고 있다. 적십자사가 긴급 구호반을 파견해 대피한 주민들에게 비상용 음식과 물 등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arlisle Group은 캘거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11년 회사명을 변경했다. 이 회사는 이전의 Point of View사로 낮은 층의 콘도를 짓는 전문 회사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 9월 B.C주의 뉴 웨스트민스터에서의 콘도 화재와 2003년 4월 캘거리 SE의 2개 동, 약 1천 만달러의 Point of View 콘도 화재가 발생한 경력이 있어 시공 능력과 안전관리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서덕수 기자)

## 에드몬튼 Karen Leibovici 시장후보, LRT 예정대로 착공 공약

### 재원 조달은 어디서?

에드몬튼 카렌 라이보비치 시장 후보가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에드몬튼의 SE LRT 공사를 예정대로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보비치 시장 후보는 에드몬튼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말만 하는 사람들에게 시정을 맡길 수 없다며 LRT는 예정대로 착공 가능하며 재원은 주정부에서 끌어 올 수 있다.” 라고 밝혔다.

지난 달 시 의회는 18억 달러에 이르는 LRT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 대출 신청을 부결시키고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SE LRT는 2015년에 착공해 2019년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지만 스테판 만델 시장은 2020년이나 2021년까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현재 에드몬튼 시는 주정부의 GreenTrip Transit Program으로부터 6억 달러를 보 조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4억 달러는 연방 정부가 이미 공언한 대로 민간과 파트너십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카렌 라이보비치 후보는 자

신이 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해 밀고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해 주정부든 연방정부든 필요한 곳을 찾아 다니겠다.” 라고 밝혔다.

현재 에드몬튼의 재정적자는 약 3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이 연방 정부에서 차입한 자금이다. 라이보비치 후보는 현재의 시 재정적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에드몬튼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비슨 후보는 지역 기업가들과 소상공인들을



(사진: 에드몬튼 저널)

위한 윈스톱 서비스 부서를 개설하고 온라인으로 각종 허가나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서덕수 기자)

## 캐나다 여성 절반 유방 조영술 중요성 몰라

50~69세 여성은 2년에 한 번 검사해야



(사진: 캘거리 헤럴드)

유방암은 캐나다 여성들 중 5,000여명은 이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여성들은 유방 조영술(유방 X선 촬영)이 가장 유방암을 가장 확실하게 조기에 발

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암협회가 온타리오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807명의 여성들 중 88%는 주변에 유방암 진단을 받은 이가 있다고 답변하면서도, 62%의 여성들은 언제부터, 그리고 얼마나 자주 유방 조영술을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47%는 유방 조영술이 유방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정기검진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캐나다 암협회에서는 50세에서 69세 사이의 여성들은 2년에 한 번씩 유방

조영술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다.

오타와 종합병원의 유방영상 책임자 Dr. Jean Seely는 유방 조영술이 소개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35% 감소했다며, 유방 조영술로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Seely는 일부 여성들이 유방 조영술로 인한 방사선 노출을 우려하고 있으나, 유방 조영술로 인한 방사선의 양은 오타와에서 밴쿠버까지 비행기를 탔을 때 노출되는 방사선의 양과 같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박연희 기자)

**캘거리 교육청**

Calgary Board of Education INTERNATIONAL Bureau

- 캘거리 교육청은 유학생을 환영합니다.
- 캘거리 교육청 산하 공립 학교에는 정규 과정, ESL 과정 그리고 시늉의 성인 ESL 과정 등이 있습니다.
- 유학생 입학 신청은 교육청 국제부 (CBE International Bureau)로 직접할 수 있습니다.

전화 : 294-8514(Ada)      Fax : 294-8299  
515 MacLeod Trail S.E. Calgary, Alberta T2G 2L9  
www.cbeinternational.ca    이메일: internationalstudents@cbe.ab.ca

## Edge Art

미술학원

EDGE GALLERY

문유진, My mom, 언필드로잉, Gr8

- ✓ 대입 포트폴리오
- ✓ 특기개발
- ✓ 두뇌개발

가을학기 접수중

강사진: 서울대 미대/동대학원 졸업, 예고 및 대학 강의경력, 작가경력

**상담전화: (403)500-3797, (587)893-0062**

#214,3515 17Ave. SW Calgary (Westbrook역 건너편, 보우볼고기 2층)

# 원건축

403.689.7776

info@wondesign.ca

# Won Design & Interior

Commercial construction

Gas station, Hotel, Motel,  
Restaurant, Business set-up,  
Metal roofing construction

주유소, 호텔, 모텔 등

신축&증축 및 실내 인테리어  
비즈니스 셋업, 상가 건물 지붕 공사(메탈)

Residential construction

Basement development, Flooring,  
Painting, Tiling, Siding, Cabinet

하우스 신축 및 증축

하우스 지하 공사, 하드 우드,  
페인팅, 타일, 실내 인테리어

Address: #270F 605 - 5<sup>th</sup> Ave. SW Calgary AB T2P 3H5

# 하퍼 총리, “키스톤은 무조건 한다”

지금까지와 달리 강하게 오바마 대통령 압박



(사진: 캘거리 헤럴드)

하퍼 캐나다 총리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강한 어조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키스톤 프로젝트”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대한 불만으로 미국 행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퍼 총리는 “캐나다는 미국으로부터 키스톤 프로젝트에 대해 NO라는 답변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며 “키스톤 프로젝트는 경제적, 환경적, 에너지 비축문제 등 모든 상황에서 인정받은 계획으로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 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승인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와는 달리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 좋지 않은 정치적 협상은 좋지 않은 정책을 만들어 낼 뿐”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키스톤 프로젝트를 정치적 협상의 일환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직접적인 어조로 비난했다.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키스톤 프로젝트의 일자리 창출이 좋지 않고 오일샌드 산업의 확장으로 인해 온실가스효과를 가중시킬 것이

라며 거절한 바 있다.

그러나 하퍼 총리는 키스톤 프로젝트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로부터 들어 오는 오일은 환경 오염의 위험성이 오일샌드보다 훨씬 크며 실제 총 온실효과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퍼 총리는 오일샌드의 판매 경로를 미국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키스톤 프로젝트가 미국 정부에 승인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번 달로 6년째이다. 키스톤 프로젝트는 하루 수송량 83만 배럴의 오일샌드와 중유를 수송한다.

트랜스 캐나다 리스 걸링 사장은 지난 7월 “올해 안으로 미국의 승인이 완료되어 2015년부터는 수송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지만 승인이 계속 연기되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덕수 기자)

# 앨버타 의사연봉, 온타리오에 이어 두 번째 높아

Gross 349,470달러, 운영비 등 비용 포함 실제 수입은 줄 듯



(사진: 내셔널 포스트)

2012년 앨버타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349,470달러를 기록해 온타리오에 이어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 2011년 연봉보다 7천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전국 평균 보다 7%가 높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사스카치완 (342,819달러), 매니토바 (325,010달러) 의사들이 앨버타 의사들의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사 단체에서는 자칫 의사들의 고액 연봉만 부각시켜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면서 반박했다. 이들은 개별 의사들의 수입은 전공분야, 비즈니스 모델, 위치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 운영비가 총 수입의 20~60%까지 차지하고

있어 실제 수입은 이보다 훨씬 낮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앨버타 주정부가 앨버타의 7,360명의 의사들에게 지급한 총 급여는 20억 5천 7백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2011년 대비 6%가 증가했다. 단 이 증가는 지난 2006~2007년 이후 가장 적은 인상폭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앨버타 의사의 36%는 여성이며 32%가 캐나다가 아닌 다른 나라의 의대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 중에서 가장 수입이 낮은 분야는 폐, 밀리 타덕, 정신과, 소아과 등으로 나타났으며 안과, 피부과, 심장수술 전문의 등이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덕수 기자)

# 외무공무원 파업 종료, 업무 복귀

약 6개월간에 걸친 외무공무원 파업이 종료되었다. 9월 23일 연방정부와 외무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발표, 양측이 중재위 의견을 받아들여 단체협약에 서명을 했음을 천명했다. 노사 양측은 노사협정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해 협정이 순조롭게 진행 되었음을 시사했다.

노사 양측의 잠정 합의에 따라 26일부터 파업이 종료

되어 업무복귀가 시작되었다. 아직 노조의 인준투표가 남아 있기는 하나 인준투표는 별 반대 없이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외무공무원 파업은 캐나다 공공 서비스 파업 중 가장 장기간 파업으로 기록되었다. 파업 종료로 그동안 지연되었던 비자업무 영주권 발급 업무가 정상궤도에 오르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방 이민부는 방문비자, 학생비자 갱신은 비자 만료 30일전에 신청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을 기준으로 방문비자 갱신에는 55일, 학생비자 갱신은 27일, 신규고용, 재고용 노동 허가서는 36일 걸리나 적체현상이 없어지고 정상적으로 비자가 발급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오충근 기자)

# 석유공사, 캐나다서 590만배럴 확보

낮은 개발비용과 높은 경제성, 4.7억불 자산가치 전망

한국석유공사는 지분 참여 중인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로이스 광구 시추 결과 590만배럴 규모의 가체매장량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체매장량이란 기술적·경제적으로 시추가 가능한 매장량을 말하며, 로이스 광구는 캐나다 앨버타주 북서

부 육상광구로 하베스트에서 원유를 생산 중인 세실 유전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탐사정(9-4) 시추는 이달 초 작업을 개시해 지난 20일 탐사정 생산시험을 진행해왔다.

석유공사는 로이스 지역의 신규 유층 발견으로 최소

590만배럴 규모의 가체매장량 확보가 예상되며, 이를 자산가치로 환산하면 4억7000만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로이스 지역은 심도가 1200m에 불과, 개발비가 많이 들지 않아 경제성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 기대된다.

# 비행기 값말고 또 추가요금을 내라구?

항공사들이 부가적으로 서비스 제공 예정



항공사들이 새로운 요금을 부과할 것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번엔 소개될 요금은 승객들이 기꺼이 내고 싶은 서비스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부과되었던 짐을 부치는 비용등의 승객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지않는 비용들과는 달리, 이번엔 소개될 비용들은 승객의 편의와 더욱 즐거운 비행을 위한 비용들이기에 관심을 끌고 있다

이라고 전했다. 또한, 착륙후 수하물을 찾기않고 바로 집이나 오피스로 보내주는 서비스등도 추가비용과 함께 제공될 서비스의 일환이다. L.E.K. Consulting의 John F. Thomas는 항공사들의 이러한 변화는 승객들의 커스터마이징된 경험을 위한 변화이며, 추후 더욱 다양한 서비스들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항공사들은 승객들이 지불하는 요금으로 비행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승객들이 지불하는 요금 및 비용들은 1년에 약 150억불 정도이다. 하지만, 종전의 수하물 운송부터 최고급의 식사, 옆자리를 비워놓는 것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착륙후 수하물을 찾기않고 바로 집이나 오피스로 보내주는 서비스등도 추가비용과 함께 제공될 서비스의 일환이다. Target의 전 대표이자 Delta의 현 마케팅 부대표인 Bob Kupbens는 “승객들이 여행을 긴 시간을 참아내는 것이 아닌,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이러한 비용들은 소비자들의 추가적인 편의를 위해 승객들이 기꺼이 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비용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않아, 전체 비행기 값의 약 15%정도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항공사들도 이를 통해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할 방향으로의 변화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남경 기자)

## 새학년 새학기, 리딩타운과 함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Reading Students Are Leading Students.*

### 축하합니다

저희 학원에서 꾸준히 공부했던 앤드류민 학생이 알버타 학생 자문위원회 (Alberta Students' Council)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알버타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리더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라고 축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지난 3년간 로스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캘거리 리딩타운 원장인 정선화 원장이 이번에 정식 변호사 업무(연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혹시 자녀들의 로스쿨 진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최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하니 전화주세요.

---

### 《영어》

흔들리지않는 영어 실력!!! 캘거리 리딩타운이 만들어 드립니다. 리딩타운만의 체계적인 레벨별 학습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영어실력을 꼭 잡아드립니다.

**프로그램**

- 읽기 (Reading) : 독서를 통한 영어 실력 향상!!!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읽기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줄거리파악, 인물분석, Critical Reading 능력을 길르는 '복리포트', 문법, 단어, 이해에 기반을 둔 수업
- 쓰기 (Writing) : 결국 영어실력은 쓰지에서 판가를 남깁니다. 영어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쓰기 스타일을 '써보고, 지적받고, 고치는 과정'을 통해 '실력은 쑥쑥', 자신감은 '철철' 넘칩니다.
- 유치반(Kindergarten) : 놀이를 통한 학습. 놀이를 통해 파닉스, 책읽기, 듣고 말하기를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수업시간 안내 : 화~금 저녁시간, 토요일 오전**

현재 학생들 Waiting이 많아 원하시는 시간에 배정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무료 레벨 테스트를 해드리고 있으니 전화해 주세요.

### 《수학》

수학!!! 어렵지 않아요!!! 혹시 자녀분의 수학 점수가 90점이라고 만족하시나요? 단순 문제 풀이가 아닌 원리 및 논리로 이해하는 수학. 데이빗 차 선생이 명쾌하게 업그레이드 시켜 줍니다. 최고 강의 만족도로 학생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이라면 수학 98점은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차선생님, 상담 내용 중

**프로그램**

- 고등학교 수학 : 10학년 정규 및 IB, 11학년 정규 및 IB, 12학년 정규 및 IB
- 중학교 수학 : 7학년, 8학년, 9학년 □ 초등학교 수학 : 4학년, 5학년, 6학년
- 시험대비반 : SAT, SSAT 준비반

데이빗 차 선생님 소개 : 캐나다 수학 10년과 한국 수학 10년의 수학 강의 경험. 미국 및 캐나다 유수의 대학에 많은 제자를 배출한 스타강사. 드디어 캘거리 리딩타운에서 모시기 되었습니다.

---

### 《과학》

중학교 과학 : 7학년, 8학년, 9학년  
고등학교 과학 : 공통과학, 물리, 생물, 화학등 각 학년

많은 학생들의 요청으로 새학기부터 과학 과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문의 주세요.

**Read, think and write!**

# Reading Town

캘거리 리딩타운 3504 26th Ave. SW calgary / (403) 374 - 1529  
◆ 에드몬튼 리딩타운 354 Saddleback Rd. NW, Edmonton / (780) 431- 7323

\* USA : Altanta GA 404-610-7533, Chicago IL 201-724-5907, Edison NJ 908-392-1997, Flushing NY 718-445-6500, Little Neck NY 718-229-6400, Bayside NY 718-631-8801, Old Tappan NJ 201-767-4100, Fort Lee NJ 201-302-9696, Paramus NJ 201-806-1246, Ridgefield Park NJ 201-376-0134, Secoy NY 516-998-8577, Philadelphia PA 215-675-7690  
 \* Canada : Calgary AB 403-374-1529, Coquitlam BC 604-468-2734, Langley BC 604-514-9539, Maple Ridge BC 604-476-0500, North Road BC 604-808-7025, North Vancouver BC 604-988-6545, Richmond BC 604-303-1133, Surrey BC 604-585-8975, Toronto ON 905-771-9026, Vancouver 604-225-7060

# 연아 마틴 의원, 상원 여당 원내부대표 선출

연방 정부 상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아 마틴 상원의원이 상원 여당의 원내 부대표로 선출되었다.

지난 18일 클라우드 카리그난(Claude Carignan) 상원 여당 대표는 연아 마틴 의원을 새 부대표로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연아 마틴 상원의원은 카리그난 원내대표와 함께 집권 여당을 대표해 상원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마틴 상원의원은 지명소식을 전해듣고 “큰 영광이다. 카리그난 대표를 잘 보좌해



원활한 상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원의 동료 의

원들과 협의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캐나다 하원의원, 씬쌔이 커졌다

캐나다 연방하원의원들의 씬쌔이가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3월 31일자로 마감된 2012•13회계연도 동안 하원의원들은 활동비로 1억2360만달러를 써, 전년 보다 230만 달러를 더 쓴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하원이 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활동비 중 가장 지출이 큰 부분은 직원봉급 및 용역비로 6700만달러에 달한다. 이어 출장비가 2500만달러, 통신비를 포함한 사무실 운영비용 1500만달러이다.

캐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활동비를 쓴 의원은 61만달러를 쓴 스티븐 플레처(Fletcher)의원이다. 그러나 플레처 의원이 낭비를 했다는 비난은 없다. 캐나다 역사상 최초의 사자마비 의원으로 활동도우미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장애로 인한 경비를 빼면 실제 사용액은 35만달러선으로 다른 의원들보다 오히려 적다.

활동비 사용액 2위는 55만달러를 쓴 토마스 멀케어 신민당 대표이며, 이어 블레이크 리처드의원(보수당, 55만달러), 니키 애쉬튼(신민당, 53만달러), 헤디 프라이 의원(자유당) 순이다.

활동비를 가장 적게 쓴 의원은 27만달러를 청구한 클로드 파트리(퀘벡당) 의원이며, 이어 스티븐 하퍼 총리(28만달러), 로젠스 제임스(보수당 30만달러), 존 베어드(30만 달러) 의원과 마시모 파세티(자유당 31만달러) 순이다.

연방하원은 직원봉급으로 기본 28만4700달러, 출장비로 기본 2만6238달러의 예산을 책정 받는다. 여기에 숙박 및 이벤트 비용, 광고비용, 인쇄비용, 사무실 운영 비용 등을 따로 지원받아, 이를 하원 사무처에 보고하게 돼 있다.

# 토마스 웨드먼군 장기 기증으로 송고한 삶을 살다

### 스쿨버스 안전사고 다시 도마 위에



(사진: 켈거리 선)

지난 주 금요일 오전 학교로 가던 에드몬톤의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스쿨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윈스턴 처칠 에비뉴와 우드랜드 로드 교차로에서 프렌치 이머전 가톨릭 학

교인” Ecole Marie Poburan” 에 재학 중인 2학년 남자 아이가 길을 건너던 중 우회전을 하던 스쿨버스에 치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스쿨버스에는 모 두 37명의 학생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모두 현장을 목격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다음주에 아이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에 대비해 카운셀링 팀을 학교로 파견하기로 했다.

스쿨버스 운전사는 가톨릭 교육청에 의해 고용된 계약직 운전사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운전사의 음주여부 등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가족들은 토마스 군의 심장 판막을 두 명의 아이들에게 기증기로 해 짧은 토마스 군의 짧은 생을 다른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뜻 깊은 희생으로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했다.

토마스 군의 장례식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North Pointe Church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서덕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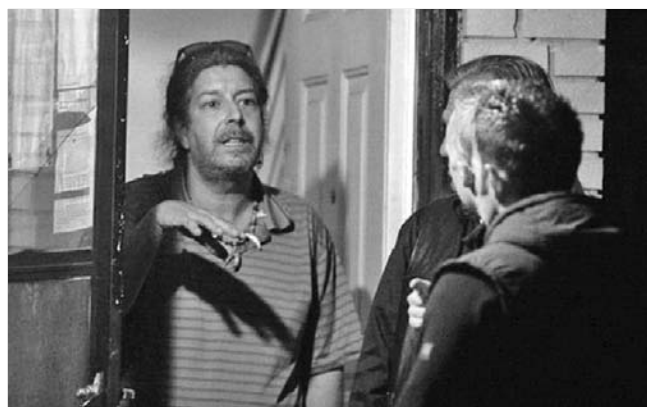
# Freeman on the Land, 켈거리 실제 피해 사례

### 캐나다에 3만 명 활동, 기존 사회 질서 파괴 위험

이른바 “Sovereign” 주의를 주창하며 사회보장번호, 세금납부 등을 거부하며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려는 움직임인 “Freemen - on the Land” 운동의 첫 실제 사례가 켈거리에서도 발생해 관계 당국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실례 레이크에 거주하면서 켈거리에 있는 주택을 2011년 한 남성에게 임대한 후 2년 동안 분쟁을 겪고 있는 레베카 케이브힐 씨의 사건으로 이 남성은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임대주택을 “Sovereign Embassy” 부르며 계속 거주하면서 시작되었다.

서비스 앨버타Bhullar 장관은 이 보고를 받고 “자신도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 실제 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면 정부 시스템, 즉 출생보고서 등의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타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도 위험한 일”이라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브힐 씨에 따르면 2011년 11월 자신의 직업을 렌디메이라고 소개한 An-



(사진: 켈거리 헤럴드, 프리맨을 주장하는 Andreas Pirelli)

dreas Pirelli라는 남성에게 자신의 듀플렉스를 임대했다. 이 남성과 집 내부 수리와 3달치 렌트비를 상계하기로 계약한 후 몇 달이 지나 집을 확인하려는 차에 이 남성은 이 주택을 점거하고 월 700달러의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있다. 그녀가 집을 비워주기를 요청하자 이 남성은 더 이상 그녀의 소유가 아니이라며 비워주기를 거부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10년 퀘벡에서 폭행 소송과 관련해 체포 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켈거리 경찰은 지난 주 법원으로부터 케이브힐씨가 받

은 퇴거 명령에 의거 이 남성을 체포해 퀘벡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집주인의 동의없이 무단 점거할 경우 Residential Tenancies Act의 거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미국에서도 이런 형태의 운동이 급속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런 형태의 운동을 “Domestic Terror” 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캐나다에는 약 3만 명의 “프리맨” 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실제 유사 피해사례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캐나다 ‘마리화나’ 제한적 합법화 첫걸음



캐나다 보수정권이 1일부터 제한적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한다.

이로써 캐나다인 45만명이 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약 13억

원 규모의 상업용 마리화나가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보건부는 이날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점진적으로 구(舊)시스템을 없애 나갈 예정이다.

중전에는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저품질의 마리화나가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잦았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입하는 대신 정부 허가를 받고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다양한 종류로 약을 제조할 수 있게 되며 일 반적 시장가격도 형성될 예정이다. 첫 판매는 다음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판매된 마리화나는 안전심사를 통과한 후 배달된다.

현재 마리화나 재배량에 대해 캐나다 보건부는 안전시스템 조항을 제외하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

## 한인 젊은이들을 위한

# 짝 찾아주기 캠페인

지난 2012년 2월에 시작된 CN드림 주최 <한인 젊은이들을 위한 짝 찾아주기 캠페인>이 동포사회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어 꾸준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신청자는 66명이고 그 동안 수회의 만남이 주선되었으며 이중에는 지속적으로 좋은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멀지 않은 시기에 짝 캠페인을 통한 제 1호 부부도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캠페인은 앨버타주의 많은 젊은이들은 물론, 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50대 전후의 이민 1세대들에게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정도로 동포사회의 열기가 뜨거워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본 행사에 후보자로 지원해 주시고 캠페인에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신 앨버타주 동포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 드리며 좋은 커플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 안내>** 본 캠페인은 한인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추진되는 비영리 행사인 만큼 모든 절차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보내 주시는 모든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특히 양측이 서로 동의하여 만남이 주선되기 직전까지는 서로에게 대략적인 이력만 전달해 줄뿐, 실명이나 사진 등은 보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행사는 이민자 가정뿐 아니라 한인 배우자 감을 찾는 유학생 등 앨버타주에 거주하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이 무관, 단 초혼만 가능)

배우자 감 소개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을 통해 ‘짝 찾기 프로그램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상세한 신청양식을 보내드립니다.

본 행사는 친구를 찾는게 아니라 배우자감을 염두에 두고 짝을 찾아드리는 행사입니다. 친구를 찾는 것처럼 이 행사를 너무 가볍게 혹은 쉽게 생각하는 분들은 지원을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신청을 부모님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자녀와의 충분한 상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은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님의 신청은 접수 불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N드림 연락처**

**Tel. 403-875-7911**

**E-mail : cndreams@gmail.com**



# SK SOLUTIONS

Notary Public Services



Notary Public

## 허인령 법률 공증 사무소

- 공증(Notary Public), 위임장
- 차용증, 유언, 상속, 상속포기
- 번역 공증 및 사실 공증
- 번역 서비스(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 한글로 된 서류를 번역 없이 공증가능
- 각종 법무 서비스
- Commissioner for Oaths

# SUNKYUNG 선경 이주공사

Immigration & Recruiting services

## \*희소식\* 알버타 주정부 이민 대폭 완화 개정

(11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알버타 주정부 경험이민 요구 경력기간 단축
- Food Industry Semi-skilled 스폰서인원 상향조정
- Retail 슈퍼바이저, 매니저 학력제한 폐지

캐나다 이민국(CIC)에서는 동반자녀의 나이 제한을 22세에서 만19세로 조정, 풀타임 학생 신분 유지 시, 나이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기존 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제안은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접수된 이민신청서는 현재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SK솔루션즈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 **403-450-2228~9** Fax : 1-866-661-88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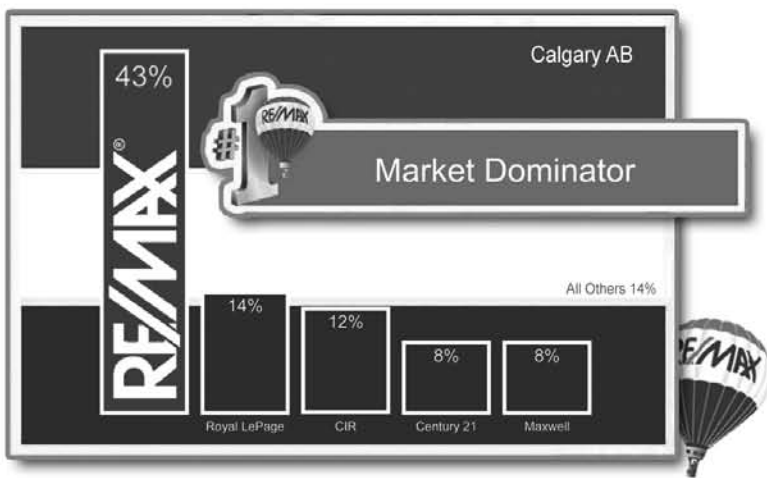
SK SOLUTIONS

·캘거리 Office: Suite303, 6707 Elbow Dr. SW Calgary, AB T2V 0E5  
·이메일: info@skimmigration.com ·웹사이트: www.skimmigrati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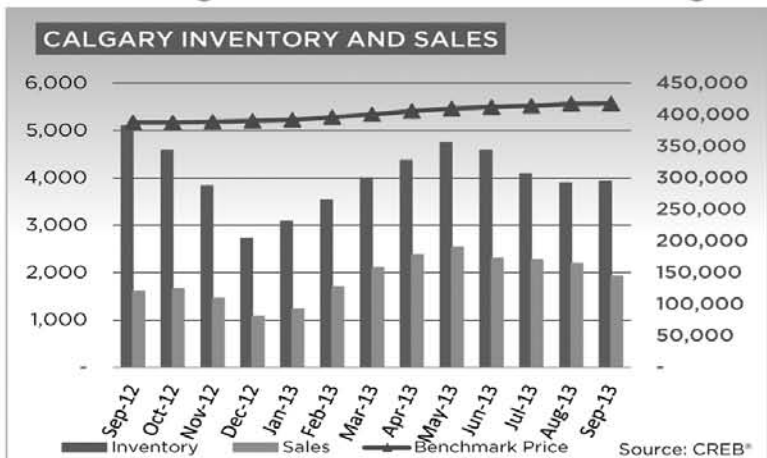
〈오시는 길〉 ▶ 자가용 이용시 : Glenmore Trail과 Elbow Dr. 남서쪽 코너 17층 흰색건물 (Mayfair Place 빌딩), 주차는 건물1층과 지하의 고객 주차장을 **2시간 무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시 : 버스 3번, C Train + 72번 버스 이용 (고려플라자에서 Mayfair Place로 확장이전)

# 리차드 김 부동산

리스팅 매물은 적고 거래는 안정적입니다.  
지금 집 팔 절호의 기회입니다.



“Inventory is low and sales are steady.  
Now is a good time to consider selling.”



### TUSCANY



LP : \$ 569,900

- 182 TUSCANY VISTA ROAD NW  
- 2012 sf 2 storey home  
- 3 bedrooms plus bonus room  
- professionally finished basement  
- 2 storey great room

### MARDA LOOP AREA



LP : \$ 459,500

- #502, 3410 20 ST SW  
- Concrete building  
- 2 bedroom 2 baths  
- 1097 sf plus indoor parking  
- Mountain views!!

### BRIDLEWOOD



LP : \$ 349,900  
SP : \$ 340,000

- 1098 BRIDLEMEADOWS MANOR SW  
- Fully finished basement  
- Total 4 bedrooms and 2 full baths  
- Corner lot

### KILLARNEY



LP : \$ 829,000  
SP : \$ 828,000

- 2412 34 ST SW  
- Brand new 1887 sf 2 storey  
- Finished basement 723sf  
- Double garage  
- Walk to westbrook lrt

### MOUNT ROYAL



LP : \$ 1,050,000

- 3231 ALFEGE ST SW  
- 1879 sf 2 storey character home  
- 3 bedrooms, 3 full baths  
- Double detached garage  
- Beautiful tree-lined street - Move-in condition

### ROYAL OAK



LP : \$ 499,900

- 307 ROYAL OAK CIRCLE NW  
- 2 storey 1952 sf - Former Jayman showhome!  
- Beautiful hardwood, 9' main  
- Showhome decorating  
- Upper floor bonus room



**RICHARD KIM**  
RE/MAX HOUSE OF REAL ESTATE

C 403.616.0734  
E richard.kim@remax.net  
F 403.476.5200

#20, 2439-54th Avenue S.W.  
Calgary, AB T3E 1M4

RE/MAX HOUSE OF REAL ESTATE



# 밴쿠버서 한국여성 입국심사 엄격

총영사관, 관광객과 교민들 불미스러운 일 연루 없도록 적극 협조 당부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한국 여성들에 대한 입국심사가 까다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총영사 최연호)은 29일 “한국여성들이 캐나다 입국 때 종종 과도한 입국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고 “이

여성들이 성매매 행위를 저지르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은 이날 한국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밴쿠버로 데려와 성매매를 시켜오다 최근 구속된 홍모 씨(35) 사건과 관련, “아직도 밴쿠버에서 한국 여성들의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씨는 서울 강남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고리 사채놀이를 하다 빚을 갚지 못한 여성들을 밴쿠버 아파트로 데려와 고용, 현지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지난 19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 붙잡혔다.

총영사관 김남현 영사는 “홍 씨가 밴쿠버로 데려왔던 여성 5,6명이 아직도 현지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현지 경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들을 찾기 위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뿐 아니라 국내 및 주재국의 법령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총영사관은 이어 “캐나다를 여행하거나 체류 중인 한국 관광객과 교민들은 성매매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 9월 28일 '북한인권의 날'로 제정

한국 이정훈 외무부인권대사, 캐나다 제이슨 케니 장관 참석

북한 인권 유린의 참상이 가감 없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정치범 수용소 철폐 및 북한 주민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캐나다도 9월 28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공식 제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캐나다 정부는 '모든 인간은 가치와 존엄을 가지며, 모든 국가는 자국민들의 불가침 인권을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이념에 따라 '북한인권의 날'을 제정하고 북한 인권을 주장하는 국가 대열에 공식적으로 합류했다.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이정훈 회장은 오는 28일(토) 오후 6시 토론토한인회관(1133 Leslie St.)에서 '북한인권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캐나다 정부를 대표해 제이슨 케니(Jason Kenney) 장관과 한국 정부를 대표해 이정훈 외무부인권대사가 참석 할 예정이다.



이정훈 회장은 “캐나다 정부가 '북한인권의 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행사를 제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세계 인권을 주도하는 캐나다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훈 회장은 “'북한인권의 날'은 지난 60여 년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어간 40만 명과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국가정책에 의해 아사한 3백만 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특별히 현재 이 시간에도 무고하게 수용되어 노예노동을 당하고 있는 20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수용소 수인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는 민간단체들과 함께 제 3국에서 탈북 난민을 직접 수용하는 방안 등에 논의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큰 관심을 보여 왔으며, 2008년 이후 올해 1분기까지 탈북자 464 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한편 '북한인권의 날' 기념 행사에는 제 22호(함북 회령)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출신의 안명철씨가 공개증언으로 북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밝힐 예정이다. 안씨는 19살 때 정치범수용소 경비병으로 입대해 8년 동안 함경북도 종성에 있는 13호 수용소, 회령에 있는 22호 수용소, 그리고 평양시 승호구역에 있는 26호 수용소에서 근무하면서 정치범들의 중노동과 굶주림 그리고 짐승 같은 생활을 목격했고, 1994년 탈북해 수기 '완전통제구역'을 펴낸바 있다.

# 켄트렉스 이주공사

Kentrex는 1983년에 켈거리에 설립되어 알버타 주 최초로 한인 이민을 시작한 회사로서 캐나다 이민 및 취업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Kentrex는 창립 이후 수많은 세대를 성공적으로 캐나다에 이주시켰으며 현지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신뢰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발전과 성장의 시대를 지나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조명을 필요로 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가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또한 이러한 변화와의 발맞춤을 위해 Kentrex는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십 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신뢰로 쌓아온 Kentrex의 이름을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켜 나가겠습니다.

## ◆ 주요업무

- 경험이민/ 전문인력이민 / 기술-숙련직 이민
- 배우자 초청 및 가족 초청 이민
- 노동청 허가 (LMO) 신청 및 워킹 퍼밋 신청
- 연방 순수투자이민 /
- 학생 비자 및 각종 비자 연장 신청
- 영주권 카드 연장 / 시민권 신청

## ◆ Branch

- Edmonton  
Suite 219, 6203-28 Ave.  
Edmonton, Alberta  
T6K 6K3  
Tel. 780-414-7420  
Fax. 780-665-7078  
E-Mail. info@kentrex.com
- Vancouver  
Suite 459, 409 Granville St.  
Vancouver, BC  
V6C 172  
Tel. 604-688-0211  
Fax. 604-688-0067  
E-Mail. info@kentrex.com
- Calgary  
Suite 500, 933-17 Ave. S.W  
Calgary, Alberta  
T2T 5R6  
Tel. 403-450-3698  
Fax. 403-450-3699  
E-Mail. hchoi@kentrex.com

## ◆ Our Experts

- Hwa-Yul (Demas) Kim :  
C.E.O / Member of ICCRC (R413447)
- Ron G. Schuldhuis :  
President / Immigration Lawyer
- 한국어 :  
최형란 (23년 이상 경력의 이민 코디네이터)  
임선미
- 중국어 :  
Coral Chi, Angela Luo, Chen Futao
- 영어/불어 : Jaide Shin



켄트렉스 이민 전문팀

## 캐나다 한국계 중간소득 최하위

국내에 거주하는 한인은 총 13만 3,250명이며 이들 중 90%에 육박하는 11만 8,770 명이 '돈벌이' 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무직자를 포함한 전체 한인의 중간소득(median income)은 1만 6,408달러로 소수민족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풀타임 일자리가 있는 한인들의 중간소득도 약 3만 9천 달러로 인종과 민족을 통틀어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같은 사실은 연방통계청이 2011년 센서스(15세 이상 국내인 총 2,725만 9,525명 대상)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발표한 전국가구조사(NHS)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센서스에 따르면 국내 유색소수(visible minority) 인구는 419만 7,190명이며 이들의 중간소득은 2만 2,951달러였다.

유색소수 중 중간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은 일본계(2만 9,112달러)였으며 필리핀계(2만 7,954달러), 기타(2만 5,234달러), 흑인(2만 4,281달러), 혼혈(2만 4,235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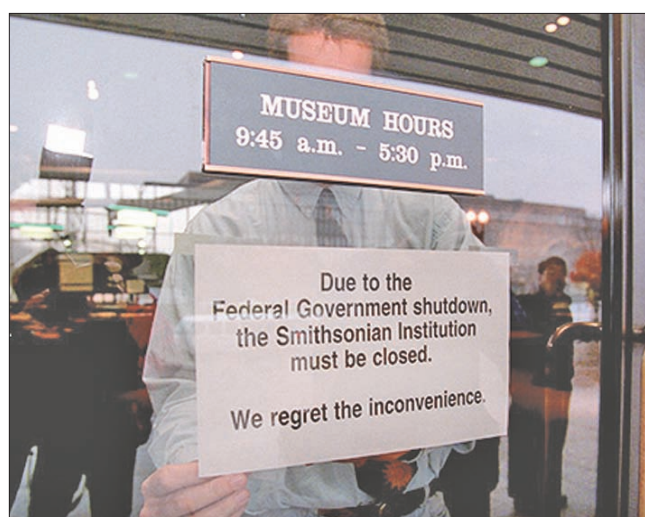
한편 소득이 전혀 없는 한인은 1만 4,480명(10.86%)으로 소수민족 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국내인 평균(4.9%)의 배가 넘는 수치다. 유색인종의 평균 무소득자 비율은 약 8%(40만 2,225명)였다.

소수민족 중 무소득자의 비율이 낮은 그룹은 일본계(6.27%), 중국계(7.25%), 동남아계(7.41%), 기타(7.87%), 필리핀계(8.10%) 순이었다. 평균소득과 중간소득 차이는 일본계(1만 3,483달러), 중국계(1만 3,100달러), 서아시아계(1만 2,709달러), 아랍계(1만 2,313달러), 한인(1만 1,536달러) 순으로 조사됐다. 평균소득과 중간소득의 차이가 클수록 빈부격차가 크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인이 중간소득이 낮고 무소득자 비율이 높은 것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1세대들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미국정부, 결국 섣다운

## 캐나다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연방정부가 여야간 평  
 풍게임 같은 예산안 공방으로  
 결국 17년만에 섣다운, 폐쇄  
 됐다. 상원을 주도하는 민주  
 당과 하원을 주도하는 공화당  
 이 각자의 새해 예산안을 고  
 집하며 새해 예산안 통과 시  
 한을 넘겨 정부 섣다운을 초

래한 것이다.  
 미 백악관 예산관리처는 연  
 방정부기관에 대해 새해예산  
 안 마감시한인 30일 자정을  
 기해 정부 폐쇄에 대비한 프  
 로그램을 시작할 것을 지시했  
 다.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간 경제적인 측면과 상호 왕

래에 관한 영향에 대해 교민  
 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미국  
 의 경제상황이 캐나다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어서  
 많은 캐나다인들과 한국교민  
 들은 이 사태가 생활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  
 다.  
 하지만 캐나다 연방정부는  
 미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영  
 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에 미칠  
 영향은 여권, 비자발급 등 영  
 사업무와 통관통상 업무 및  
 국경의 입출국 관련 업무, 등  
 이다. 이 가운데 여권, 비자 발  
 급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전망  
 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정부폐쇄  
 기간에도 여권과 비자발급 업  
 무는 정상적으로 이어질 것이  
 라고 밝혔다.  
 하지만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11월 13일

~19일, 1995년 12월 15일  
 ~1996년 1월 6일 각각 6일과  
 21일 동안 발생한 섣다운 기  
 간에 해당업무가 혼선이 빚어  
 진 바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무역과 관련 통관통상 업무  
 도 섣다운 기간동안 필수업무  
 로 지정돼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보더의  
 입출국 업무도 미 국가방위에  
 관련된 필수업무에 포함되어  
 정상 운영된다.  
 하지만 기간중 미국을 찾는  
 관광객들은 요세미티, 옐로우  
 스톤 등 세계적인 관광지에서  
 발길을 돌려야 한다. 이들 국  
 립공무원들이 모두 폐쇄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캐  
 나다에서 출발하는 미국 국립  
 공원 여행패키지를 예약했다  
 면 여행사에 문의해야 한다.  
 또한 연방공무원들의 급여  
 와 정부 용역이 중단되면서  
 미국내 정부기관과 관공서에  
 납품, 입찰등에 참여하는 교  
 민사업자들은 해당 기간을 전  
 후해서 업무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 캐나다 인구 3천500만 넘겨

캐나다 인구가 3천500  
 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  
 났다.  
 캐나다 통계청은 26일  
 인구 추계 보고서를 통해  
 지난 1년 사이 인구증가율  
 이 1.2%를 기록했으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  
 월 현재 캐나다 인구는 지  
 난해보다 40만4천명이 늘  
 어난 3천515만8천300명  
 으로 추계됐다. 1년 사이  
 인구 증가율은 전년도 같  
 은 기간과 동일한 수준이  
 며 지난 30년 간 증가율 추  
 이 0.8~1.2%와도 유사하  
 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3년 이래 인구  
 증가는 대부분 이민자 유  
 입에서 비롯됐으며 이번  
 조사 기간에도 인구 증가  
 치의 3분의 2를 이민자가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 A&W, 성장 호르몬 없는 햄버거 팔 것 캐나다 최초, 호르몬 없이 키운 쇠고기 이용



밴쿠버에 기반을 둔 햄버  
 거 체인 전문점 A&W  
 Canada가 성장 호르몬이나  
 스테로이드에 노출되지 않은  
 쇠고기만 사용하겠다고 발표  
 했다. 이로써 A&W는 호르  
 몬제가 함유되지 않은 쇠고  
 기를 사용하는 캐나다 최초  
 의 햄버거 체인 전문점이 되  
 었다.  
 지난 27일, A&W의 책임  
 마케팅 담당자 수잔 세네칼  
 은 인터뷰를 통해 “소비자  
 들에게는 식재료가 어디에서  
 오는지가 큰 관심거리” 라면  
 “호르몬과 스테로이드가  
 없는 지가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했다” 고 전했다.  
 A&W는 8억 5천만 달러의  
 연매출의 규모로 791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140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맥도널  
 드에 이어 캐나다에서 두 번  
 째로 큰 햄버거 체인점이다.  
 세네칼은 비록 이 같은 결  
 정으로 인해 쇠고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현재 햄버거  
 가격을 인상시킬 계획은 없  
 다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A&W를 찾아 매출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  
 했다.  
 한편 68,500여명의 쇠고  
 기 생산자들이 포함된 캐나  
 다 목축업자 연합 측에서는  
 지난 40년 이상 캐나다 보건  
 국의 기준에 따라 안전한 ‘  
 성장 촉진’ 을 사용해 왔다  
 면서 모든 캐나다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  
 합은 대변인에 따르면, 성장  
 촉진제를 사용한 쇠고기에서  
 검출된 호르몬과 성장 촉진  
 제를 사용하지 않은 쇠고기  
 에서 검출된 호르몬의 양은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에 대  
 해 A&W측은 성장 호르몬이  
 나 스테로이드 없이 키워진  
 쇠고기가 더 건강에 좋거나  
 영양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  
 나, A&W의 결정은 소비자  
 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  
 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연희 기자)

## 캐나다여성 실수로 마라톤 우승

텔레리뉴스는 27일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열린 ‘  
 런포히어로즈’ 마라톤대회  
 에서 하프마라톤에 출전한 메  
 레디스 피츠모리스(34)가 실  
 수로 피니시라인을 그냥 통과  
 하고 풀 마라톤을 달려 1위로  
 골인했다” 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정식 마라톤 코스  
 를 한번도 달려본 일이 없는  
 메레디스는 이날 하프마라톤  
 코스를 1시간28분에 끝냈으  
 나 골인 지점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기록은 3시간11분48초. 놀  
 랍게도 전체 10위, 여자선수  
 로는 당당 1위였다. 메레디스  
 는 “골인 직후엔 1위를 한걸  
 몰랐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환호하는 것을 보고 우승했  
 다는 것을 알고 울음이 터져  
 나왔다” 고 감격의 순간을  
 돌이켰다.

## 노스 글렌모어 공원, “동성애자들 애정행각으로 시민들 불편”

### 동성애자들, 경찰 과잉단속으로 인권침해 주장



노스 글렌모어 공원이 동  
 성애자들의 애정행각 장소  
 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민들  
 의 신고로 경찰이 집중 단속  
 에 나섰다.  
 경찰은 주민들이 공공장소  
 에서 성행위가 빈번히 발생  
 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기 하  
 고 있어 경찰 헬기는 물론 사  
 복 경찰과 자전거 패트롤 팀  
 을 투입해 노스 글렌모어 공  
 원의 순찰을 강화하고 나섰  
 다.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집  
 중 단속에 동성애자들은 “  
 우리 같은 사람을 잠재적인  
 피의자로 보고 무조건적으  
 로 탐문하고 감압적으로 대

하고 있어 동성애자들의 인  
 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  
 다.  
 이에 대해 경찰은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목표  
 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용하는 공원의 질  
 서 유지를 위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 이  
 라고 동성애자들을 타겟으  
 로 한다는 비판을 반박했다.  
 한편, 이 지역구의 브라이  
 언 핀콧 의원은 여러 가지 불  
 만과 이의제기 사항을 접수  
 하고 있지만 공원내에서 동  
 성애자들의 성행위와 관련  
 된 문제는 아직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

## 이동원 부동산

MLS LISTING for \$2,299 + GST \*

- MLS Listing
- FOR SALE Sign on Property
- Professional Quality Photographs
- REALTOR's Lockbox
- Showing Coordination

수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Dongwon Brian Lee First Place Realty  
 Cell : 403-397-9911  
 3916 - 1 ST. NE, Calgary, AB T2E 3E3

## 아직도 안경하러 한국으로 가십니까?

최신유행 한국테  
 최고급 렌즈  
 정확한 시력 검사  
 보험 청구 대행

AR 코팅렌즈 \$49.00  
 최신 안경테 \$37.00

캘거리 렌즈팩토리 안경원  
 #15 4604 37st. SW (SUSHI HANAMI 옆)

## LENS FACTORY

www.lens-factory.com / lens@lens-factory.com / T.587-353-4808

## 캐나다 외환은행 32nd

### 멋진 선물과 함께하는 적금 & 예금 특판 이벤트!

행사기간: 2013.9.30(월) ~ 2013.11.29(금)

**1 정기적금 특별 판매!**  
 ▶ 멋진 사은품을 드립니다!  
 (월 최소 \$300 ~ 최고 \$10,000)

**2 정기예금 특별 판매!** 한정 판매

금 액	☆VIP 스페셜 금리!☆
C\$10,000~C\$99,999	1년 1.80%
C\$100,000 이상	2년 2.40%

SMART BANK  
 KEB 캐나다 외환은행

영업부 블루어지점 미시사가지점 쏘힐지점 버니비지점 코쿼틀람지점 밴쿠버다운타운 캘거리지점  
 (416)222-6500 (416)533-8593 (905)272-3130 (905)707-7001 (604)432-1984 (604)420-0019 (604)609-2700 (403)398-707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부 내용은 은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회 Alberta Beverage Award”  
Judge Selection 수상 (은메달에 해당)  
(2013년 7월 캘거리)**



매실이보이는  
매실주는  
설총매 뿐입니다.

주문번호  
설총매: 590737  
청하: 256255

**LOTTE**

배상면주가 고향LB

제 18대  
대통령 취임식  
공식 만찬주  
선정

배상면주가 복분자음은 100% 고향의 해풍을 맞고 자란  
복분자 열매를 사용하여  
단 한모금에도 더 진하고 깊은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자연연(自自然然)  
배상면주가  
제대로 빛은  
여자를 위한  
복분자음~

자연의 숨결이 깃들 열매와 술 빛은 사람의 정성,  
그리고 자연의 은혜가 어우러져 태어난 자연주 브랜드  
'자자연연(自自然然)' 입니다.

가까운 리테일 스테어에서  
주문, 구매 가능합니다.  
12% alc/vol, 375ml

주문번호 783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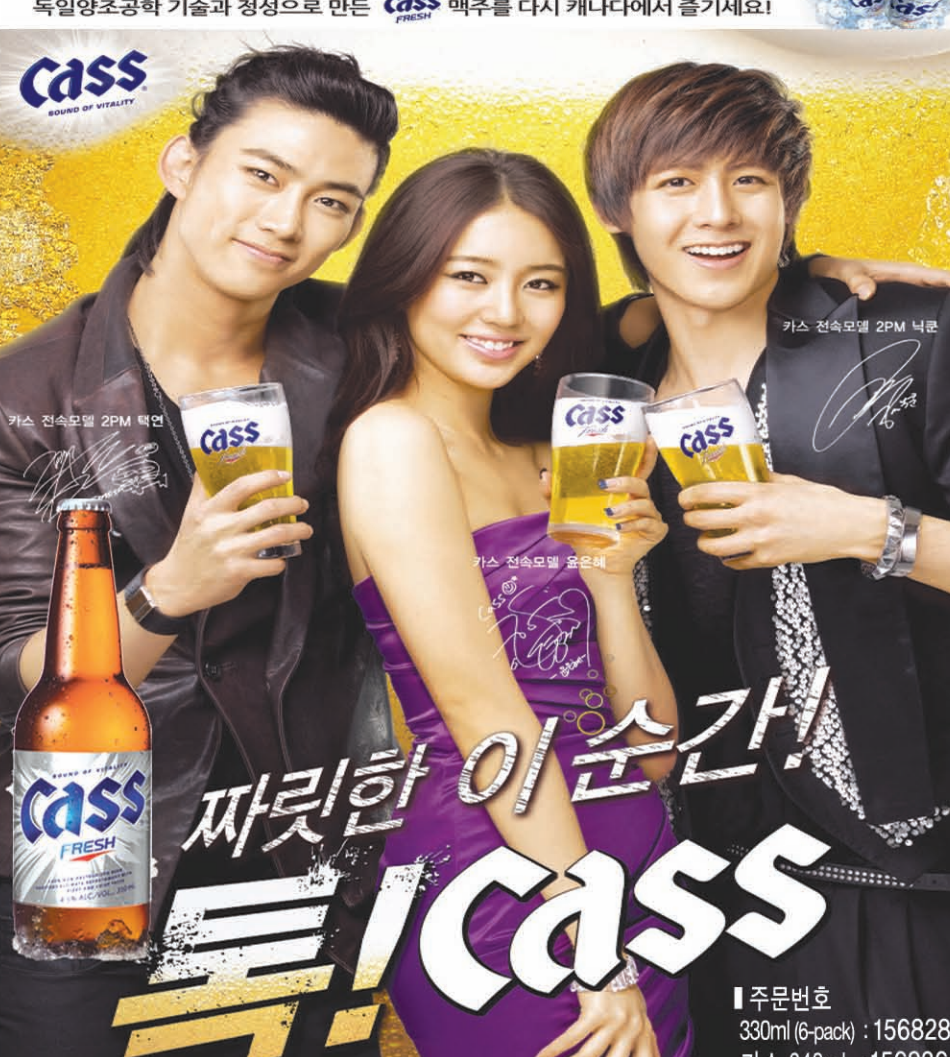
일번스비지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12병 단위 박스 포장

자자연연(自自然然)  
우리 자연을 그대로 담은 배상면 주가 천연 복분자음~

배상면주가

전세계 33개국으로 수출되는 No. 1 오비·카스맥주

캐나다 사스캐추완 대평원에서 청정 재배된 보리로 세계 최고 오비맥주의  
독일양조공학 기술과 정성으로 만든 **Cass** 맥주를 다시 캐나다에서 즐기세요!



카스 전속모델 2PM 박연  
카스 전속모델 윤은혜  
카스 전속모델 윤은혜

짜릿한 이 순간!  
**특! Cass**

주문번호  
330ml (6-pack) : 156828  
카스 640ml : 156836

**OB맥주** www.cass.co.kr 에서 그들의 짜릿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세계수출, 국가고객만족도  
**5년 연속 1위 기념**

새롭게 태어난  
**New** 처음처럼  
Rich 20%

**New** 처음처럼  
Original 19%



신제품 신제품

375 mL 360 mL

주문번호  
처음처럼 Rich : 724388  
처음처럼 Original : 760616

홍콩에서 더 부드러운다  
처음처럼

그녀들의 텐스가  
공감하는  
가장 아름다운  
소녀시대

좋은 술의 고집 **국순당**  
CoBees Enterprise Ltd.  
Tel. 604-440-5858



San Francisco International Wine Competition 2011  
New York World Wine & Spirits Competition 2012  
Dallas Morning News & TexSom Wine Competition 2013

**Award for three consecutive years  
(3년 연속 국제 와인대회 동메달 수상)**

Gluten free!

Brewed with Korean Rice

**Ssal** KOO SOO DANG Makkoli

주문번호  
백세주 : 556852    맥걸리 : 758285

**국순당 쌀막걸리 출시 New**

- 1) 옛향수가 그리워 일반 막걸리 마신후에 머리 아픔, 냄새, 트림으로 고민!  
➔ 국순당의 세계 최고 전통주 기술혁신으로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한 국순당 쌀 막걸리!!!
- 2)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막걸리: 저온살균처리(파스퇴르)하여 장기 보존가능
- 3) 전세계 수출1위 막걸리 : 아시아나 항공 국제선 기내식 및 공항 라운지에서도 제공
- 4) 국순당에서 전통제법을 복원하여 생쌀발효법으로 빛어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며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우리쌀 100%로 빛은 우리 막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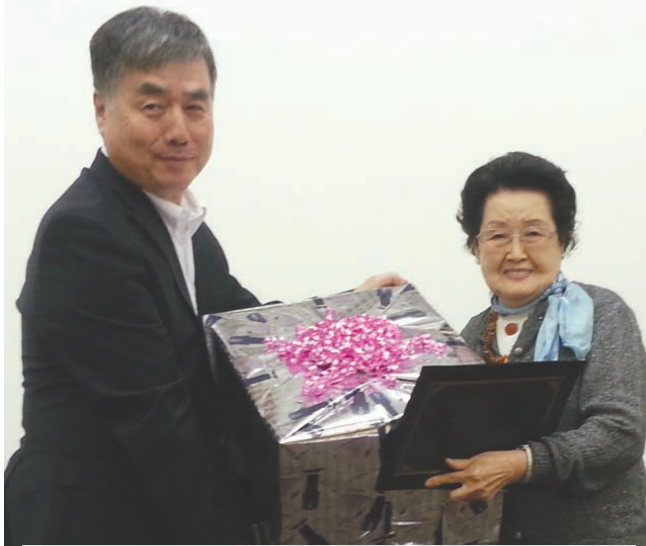
**자동차 바디샵 'Brentwood Auto Detail'**  
 손 세차 및 광코팅 세차, 차체 부분수리 전문점

켈거리에 자동차 외관 관리 전문 업체 'Brentwood Auto Detail' 이 Crowchild Trail의 Brentwood Shopping Center 안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기존의 Self Coin Carwash에 추가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업한 이승찬 대표를 만나 이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브랜트우드 오토 디테일'에서는 손세차 및 광코팅 세차 서비스가 제공되며 우박이나 기타 외부 충격으로 인한 작은 흠집들을 제거해 주며 도색작업 및 부분차체 수리를 전문으로 한다. 이외에도 한국에서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리막 (3M PHPS) 코팅도 차체 전체에 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차를 아끼고 오랫동안 광택과 색을 잘 보존하고 싶은 오너들에게 희소식이 될 듯 하다. 이외에도 블랙박스, 어라운드뷰 카메라 등 한국의 유명 제품들을 설치해 주는 서비스도 함께 하고 있다. (B2면에서 계속)

## 켈거리 아트클럽 작품 공모전 시상식 열려

대상에는 84세의 조원태 할머니가 수상



아트클럽 작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조원태 할머니, 노연대 지도교사가 시상해 주고 있다.

지난 9월 29일(일) 오후 6시 켈거리 한인회관에서 열린 한인아트클럽(회장 김경숙) 작품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과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약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모전 시상식에서 대상에는 84세인 조원태 할머니가 차지했는데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능을 크게 발휘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노연대 지도교사는 시상식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약 2년전 아트클럽과 인연을 맺게 되어 그림을 지도하고 있지만 본인 자신도 오랫동안 손을 놓았던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되는 계기가 되어 아트클럽에 감사 드린다"고 말하며 "저 자신도 오랫동안 손을 놓았던 그림을 늦게나마 다시 시작했는데 대상을 받으신 조원태님을 통해서도 더욱 크게 자극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아트클럽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 분들에게 항상 문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아트클럽 회원들은 현재 매주 수요일 낮 12시에 한인회관에서 모여 그림 공부를 하고 있으며 지도교사로는 강미남도 함께 수고해 주고 있다. (B2면에서 계속)

## 만나봅시다 켈거리 새 한인 변호사 김민정 양



지난 9월 25일 켈거리에서 변호사 선서식을 가진 김민정 변호사, 부모님 김성우, 김서영씨가 함께했다.

지난 9월말 켈거리 법원에서는 김민정(27세)양의 변호사 선서식이 있었다. 1991년 4살때 가족들과 켈거리로 이민 온 김 변호사는 윈스턴 처칠 고등학교를 졸업후 홀로 동부로 건너가 몬트리올 맥길대학에서 Anatomy & Cell Biology를 수료하고 이후

온타리오주에 있는 윈저 대학교 법대를 수료했다. 윈저 법대는 이웃 도시에 있는 디트로이트 법대와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 김양은 재학시절 두 개 학교를 오가며 공부해 현재 두 개 대학의 학위를 모두 지니고 있다. (B3면에서 계속)

## '십자가의 지하철역' 10월 2일 ~ 6일 상연

화제의 연극 '김씨네 편의점'에서 극본, 연출 제작, 출연까지 1인 4역을 담당했던 최인섭씨가 '십자가의 지하철역(Subway Station of the Cross)'으로 다시 켈거리인들 앞에 선다. (B2면에서 계속)

## 켈거리 시민들, "켈거리 삶, 행복하다."

켈거리 시의 시정 및 위기대응 능력, "B+"

The Calgary Foundation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Vital Signs"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켈거리에서의 삶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846명의 응답자들 중 91%가 자신들의 켈거리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행복하다"라고 대답해 최악의 홍수사태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더불어

켈거리의 경제적 호황이 시민들의 얼굴을 밝게 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긍정적인 요소로 낮은 실업률과 유입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 팽창, 켈거리 시의 친환경적 정책으로 인한...

(B3면에서 계속)

## SK주 문학회 문학의 밤 행사 안내

여왕의 도시 리자이나에 동지를 튼 SK 한인문학회에서 당신을 문학의 왕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빛바랜 일기장에서 수없이 가슴앓이 하던 젊은 날의 추억을 들추어내고, 가슴속 보물창고에 숨겨둔 시와 에

는 날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제 『밀밭』이라는 씨앗을 캐나다 사스캐츠완의 광활한 대지에 낳았습니다. 이 씨앗이 잘 틈 수 있도록 부디 오셔서 사랑의 물을 부어 주십시오. <사스캐츠완 한인문학회

- 연 제 : 10월 27일(일) 오후 4시 30분
- 어디서 : East View Community Centre
- Address : 615 6th AVE Regina SK S4N 0A9
- Phone : 306-525-4754

창립 2주년 기념, 동인지 『밀밭』출판기념 및 시낭송, 시화전>에 사랑하는 님들을 초대합니다. 그 날만큼은 모든 시를 접

어 두시고, 문학을 꿈꾸던 소녀 소년 시절로 돌아가 보지 않으실래요? 저희가 그곳으로 기꺼이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INTELLIGENCE CODE**  
 PART I: ARENA OF GREAT HEROES  
 BJ AVILLA

영문소설을 발표한 켈거리 교민 정진형씨  
 ▶ 관련기사 B4면

**ora dental** **전 치과** 원장 Dr. Johnny Chun

소아치과  
 일반치료  
 잇몸치료  
 보철치료  
 틀니치료  
 신경치료  
 치아미백  
 사랑니 발치  
 응급치료

진료시간  
 월~목 오전 8:30 ~ 오후 4:30  
 금 오전 8:30 ~ 오후 1:30

E. info@oradentalcalgary.com  
 www.oradentalcalgary.com

#170 1402 8th Ave. NW Calgary AB T2N 1B9  
 P. 403-262-3447 F. 403-233-0944

“환하게 웃으세요, 당신을 웃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Free Parking

**'십자가의 지하철역' 10월 2일 ~ 6일 상연**

**'김씨네 편의점' 최인섭씨의 작품**



(사진: 켈거리 헤럴드)

(B1면에 이어서 계속) '김씨네 편의점'의 흥행과 인기로 힘입어 최인섭씨의 '십자가의 지하철역' 역시 현지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켈거리 헤럴드지와 켈거리 선지에 모두 이번 연극을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다.

최씨가 선지에 밝힌 바에 의하면, 켈거리 무대에 오르는 연극은 새로운 버전의 초연이며, 예전 버전은 지난해 부활절에 토론토의 교회에서 두 차례 상연된 바 있다.

'십자가의 지하철역'의 켈거리 상연 결정은 뜻밖에 이루어졌다. 최씨에 의하면 3년 전 그가 '200 Candles'라는 작품을 하고 있을 때, 켈거리 Fire Exit Theatre의 예술 감독 Val Lieske에게 계획하고 있는 작품이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완성이 되면 알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김씨네 편의점'을 위해 켈거리를 찾은 최씨

가 Lieske에게 연락해 '십자가의 지하철역'을 스폰서해줄 수 있느냐고 묻자 그녀는 대본을 들춰보지도 않고 그를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해주었다.

최씨는 켈거리 선지를 통해, 자신을 총잡이 스타일의 극작가라고 칭하며, "나는 아무 계획 없이 글을 쓰기 시작하며, 극본을 쓸 때 구조나 줄거리가 치중하기 보다는 충동적으로 쓰는 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김씨네 편의점'을 집필하기 전에는 대부분 시와 노래를 써왔다.

'십자가의 지하철역'은 최인섭씨가 만든 시와 노래를 바탕으로 한 1인극이며, 홈리스 남자로 분한 최씨가 시와 노래를 통해 그를 스쳐가는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으려는 내용이다. 최씨는 켈거리 헤럴드지를 통해 이극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콘서트 같은 쇼라고 설명했다.

- 장소 : Engineered Air Theatre in Epcor Centre (185석)
- 공연일 : 10월 2일(수) ~ 6일(일)
- 공연 시간 : 오후 7시 30분, 오후 2시 30분(토, 일)
- 티켓 구입 : www.fireexit.ca, 403-640-4617
- 티켓 가격 : \$20, \$25

**저축을 하기전에, 적게 쓰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쿠폰이다. 매주 우편을 통해, 전화를 통해, 그리고 끊임없는 인터넷 정보의 바다를 통해서 우리는 실로 무궁무진한 쿠폰 이용의 기회가 넘쳐나고 있다.

Extreme Couponing Mom이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Aimee Geroux는 원래 쿠폰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해밀턴에서 토론토를 이사를 하며 예산을 웃도는 렌트비와 양육비에 떠밀려 쿠폰의 세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하지만, 쿠폰을 200% 활용하기 시작하자 어떤 때에는 거의 300불어치의 물건을 20여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Geroux는 말한다.

평균적인 캐나다 국민에게 쿠폰복이나 여러가지 프로모션을 오려모은 바인더를 들고 상점에 들어서는 장면은 그리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쿠폰의 적극 활용은 가게의 부담을 덜고, 또 소비자로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는 일이기도 하다.

'가격 맞춤'은 그로서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중의 하나이다. 이 방법을 애용하고 있는 Kristine Oberg는 주말마다 광고지를



훑어보며 다른 상점들에서 세일을 하고 있는 같은 품목들을 찾아서 비교하여, 다른 상점에서 더 싸게 파는 품목이 있으면 인근 상점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Scanning Code of Practice'는 리테일 분야에서 공공연하게 지켜지고 있는 자발적인 시스템인데, 캐나다 대부분의 주요 리테일 스토어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 이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자로서 하여금 정당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만약 소비자가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면 10불이하의 제품들은 무료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넷 쿠폰들은 이제 캐나다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다. 올해 Metro와 Food Basics는 모든 쿠폰을 인터넷

를 통해 인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Geroux는 큰 세일이 있을 때 생필품을 미리 사놓는 것과 상품이 2차, 3차 할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더욱 큰 절약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쿠폰을 오려모으는 것이 불편하다면 'Checkout51'과 같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Checkout51은 소비자들이 영수증을 접수하고 나중에 크레딧을 돌려받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할인 쿠폰들이 가계에 크고작은 도움이 되지만, 그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지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방법을 함께 적절히 조화시킨다면 조금씩 쌓여가는 잔고를 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남경 기자)

**켈거리 아트클럽 작품 공모전 시상식 열려**

(B1면에 이어서 계속)

올 여름 스탬피드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인아트클럽은 지난 9월 마지막 주 3일간 열린 엘버타 문화의 날(Cultural Day) 행사에도 한인으로서의 처음으로 참여해 한국의 전통 문화를 현지 사회에 알렸다.

첫날 행사에서는 사물놀이와 고전무용을 선보이고 참가자들에게 지도해 주었고 둘째날에는 부채와 팬이 나무 목걸이와 탈 등에 한국화를 그렸는데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가지고 갈수 있었다. 마지막 셋째날에는 공모전 시상식과 한국음식 맛보기로 행사를 마쳤다.



대상을 수상한 조원태님의 작품. 캔오어의 명물 3 Sisters와 주변 풍경을 아름답게 그려냈다.

한편 시상식에서는 문화의 날 행사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에게도 상품이 전달되었으며 이번 공모전 수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상 노연숙, 동상 박민정, 은상 김하나, 금상 김은선 (김민식 기자)

**브랜트우드 오토**

(B1면에 이어서 계속)  
한편 이 대표는 켈거리 한인라이온스 클럽 회장을 역임한바 있는 이근홍씨의 자제이기도 하다.  
(김민식 기자)

**브랜트우드 오토 디테일의 특성과 장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현재 순세차를 시중값의 절반수준인 최저 25불 부터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샵에서는 각종 장비로 여러분의 차체를 수리해 드리며 도색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와 제휴된 큰 바디샵으로 차를 옮겨 정식 도색 작업도 해드리고 있으므로 일반 바디샵과 동일한 품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유리막 코팅에 대해 좀더 설명해 주신다면?**

자동차 전체에 유리막으로 코팅을 해서 차체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일반 코팅제보다 경도가 높아 차체는 잘 보호해 줍니다. 차량연식이 오래되어도 새차처럼 광택을 유지할 수 있으며, 웬만한 흠집에도 잘 견디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이런 차체 관리 서비스를 해주시는 전문가가 따로 있나요?**

네, 한국에서 16년간 판금과 도색 경력을 지닌 이길현씨가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4년의 바디샵 경력이 있는 베테랑이죠. 감사합니다.

■ 브랜트우드 오토  
주소) 3740 Brentwood Rd NW Calgary(Crowchild Trail 선상)  
전화) 403-338-1953, 714-2634 (이길현)

**WE CREATED THE LUXURY SAV SEGMENT. AND WE'RE STILL LEADING THE WAY.**

**LEASE THE INCREDIBLY VERSATILE BMW X5 FROM JUST 1.9%.**

Step inside the BMW X5 with xDrive® All-Wheel Drive and discover its many elegant details. Then experience the power of its highly efficient 300-horsepower engine with an impressive 300 lb-ft of torque. The original luxury SAV continues to set the benchmark in style and innovation, now with the added luxury of great lease and finance rates. Visit your nearest Calgary Area BMW Retailer and book your test drive today.

**OFFER ENDS SEPTEMBER 3.**

The 2013 BMW X5 xDrive35i All-Wheel Drive		
LEASE RATE*	FINANCE RATE**	<b>\$10,000</b>
<b>1.9% APR</b>	<b>1.9% APR</b>	
48 MONTHS	48 MONTHS	IN CASH PURCHASE INCENTIVES*

NO-CHARGE SCHEDULED MAINTENANCE 4 Year / 80,000 km\*\*

BMW X5 xDrive35i All-Wheel Drive

bmw-calgary.ca

The Ultimate Driving Experience.®

2013 BMW X5 xDrive35i sh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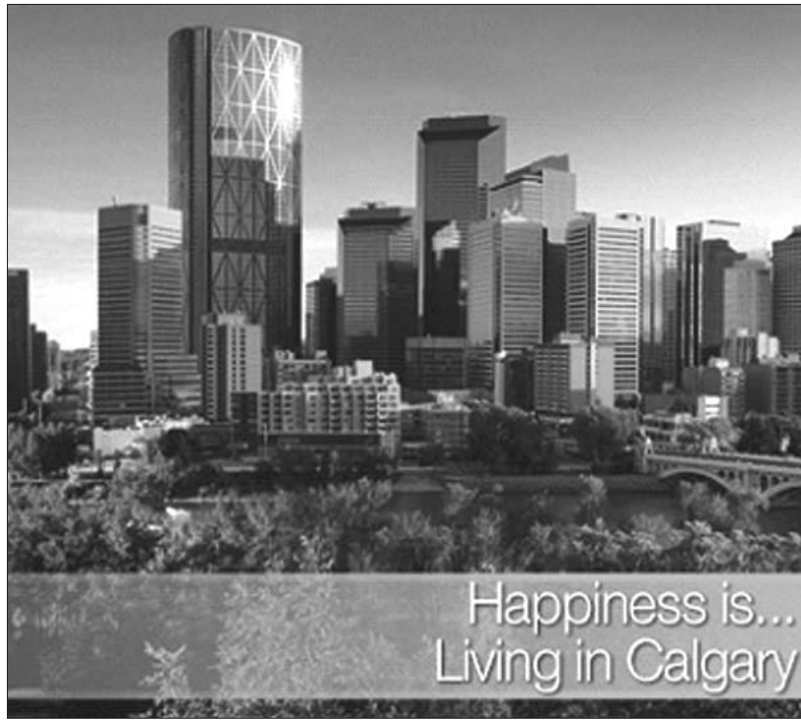
**Heather Byun(변혜경)**  
Brand Specialist  
Cell : (403) 466-7833  
E-mail : heather.byun@bmwgallery.ca

**Kevin Lee(이세현)**  
Service  
Phone : (403) 208-6261  
E-mail : kevin.lee@bmwgallery.ca

**BMW Gallery**  
650 Crowfoot Crescent NW  
Calgary, AB (403) 275-6492

European model shown. Features and equipment may vary in Canada. Cash price of a new 2013 BMW X1 xDrive28i starts at \$38,512.25, which includes MSRP (\$36,900), freight and PDI (\$2,095), A/C surcharge (\$100), AMVIC fee (\$6.25), tire levy (\$16), and administration fees (up to \$395). LEASING: Upgrade Credit of \$1,000. Retailers are free to set individual prices and charge administration fees, which may change the APR of the price of the vehicle. \* Lease offer based on a new 2013 BMW X1 xDrive28i available only through BMW Financial Services Canada on approved credit (CAC). Lease example based on selling price of a new 2013 BMW X1 xDrive28i: \$38,535 for 48 months at 1.9% APR. Monthly payment is \$298/\$365/\$485 with \$5,643/\$5,588/\$0 down payment or equivalent trade-in. \*\* A/C surcharge (\$100), PPSA registration fee (\$22.76), AMVIC fee (\$6.25), tire levy (\$16), GST, and licence fee are extra and due on signing. First month's lease payment and security deposit of approximately one month's payment due at lease inception. The residual value of the vehicle at end of term is \$17,343. Annual kilometers limited to 16,000; \$0.15 per excess kilometers. Excess wear-and-tear charges may apply. \$1,000 Upgrade Credit on the 2013 X1 xDrive28i applies to lease, and cash purchase transactions. Offer expires June 2, 2013. Delivery must be taken by June 2, 2013. Offer is subject to availability and may be cancelled or changed without notice. Certain conditions apply. See your local BMW Retailer or bmw.ca for full details. † New 2013 BMW vehicles purchased from an authorized BMW Retailer in Canada are covered by a No-Charge Scheduled Maintenance plan for four years or 80,000 km, whichever comes first. Certain limitations apply. Contact your BMW Retailer for details. ©2013 BMW Canada Inc. "BMW", the BMW logo, BMW model designations and all other BMW related marks, images and symbols are the exclusive properties and/or trademarks of BMW AG, used under licence.

캘거리 시민들, "캘거리 삶, 행복하다."



(B1면에 이어서 계속)  
 ... 많은 공원과 문화적 볼거리 등이 손꼽혔으며 부정적인 부분으로는 신규 이민자들의 직업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과 렌트비, 주택가격 상승, 생활비 증가로 인한 가계 압박 등을 들었다.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79%의 응답자들이 미래 세대는 더욱 나은 환경의 캘거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캘거리 시의 홍수사태에 대응능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로 B+를 매겼다. 이번 선거에 참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94%가 투표는 민주 시민의 권리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투표율은 53.9%에 그쳐 이번 선거에도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장으로 향할지는 미지수이다.  
 캘거리 시민들은 최근 급증하는 유입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인정하지만 심각해지고 있는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공실률이 1%대인 렌트 시장과 치솟고 있는 주택 가격에 대해서

는 걱정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CMHC에 따르면 현재 캘거리의 방 두 개 아파트의 평균 렌트비가 1,202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솟는 렌트비로 인해 음식, 의류, 문화생활 등의 다른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 밖에 캘거리의 편부모 가정의 25%가 빈곤층의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과 건강이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한다.  
 2012년 캘거리는 신규 이민자들이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다음으로 많이 정착하는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호황으로 인해 더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 올 것으로 보이지만 신규 이민자들의 실업률이 8.5%를 기록해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도심 치안 부문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평가했으며 캐나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해서도 캘거리는 캐나다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평가 받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서덕수 기자)

만나봅시다

캘거리 새 한인 변호사 김민정양



(B1면에 이어서 계속)  
 김 양의 부모님은 김정우, 김서영씨이며 동생 김태훈군(캘거리 대학교 2학년)이 있다. 어머니 김서영씨는 현재 캘거리 한인천주교회 성가대 지휘를 맡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 마운트 로얄 대학에서 열린 천주교회 자선 음악회를 총진두 지휘한 바 있다.  
 인터뷰 장소에 같이 나온 어머니 김서영씨는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민정이가 먼 곳에서 힘들고 외로울텐데도 열심히 공부해준 것에 고마울 뿐"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김양은 4살때 이민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잘해 인터뷰는 모두 한국말로 진행되었다. (김민식 기자)

업 후 법대로 진로를 바꾸어 LSAT시험을 치루고 법대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Q 과학, 수학과목을 좋아해서 의대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문과 과목들도 잘 했나요?**

실은 법대 들어갈 때만 해도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공부도 재미있고 교수님들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내 갈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Q 변호사 생활은 다른 대도시에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나요?**

그런 맘도 조금은 있었지만, 그래도 캘거리는 부모님이 계신 제 고향이기도 하고, 활력있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라 크게 고민하지 않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Q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소개를 해준다면?**

이름은 Norton Rose Fulbright이며 전세계 45개국에 50여개의 지사를 둔 영국계 로펌회사입니다. 저는 작년 10월부터 이곳에서 현장실습을 했고, 올해 8월부터 수습 변호사로 정식 업무를 시작했어요.

**Q 동양인이라고 해서 일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전혀 없고 그런 것 느끼지 못했어요. 변호사 선서식날 담당 판사 분이 일본계 분이셨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소수 민족 변호사가 탄생하게 된 것 너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소수민족에서 더 많이 법조계에 진출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해주어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아 있어요.

**Q 앞으로의 포부나 계획이 어떤가요?**

일단은 현재 일에 충실하고 싶고, 더 열심히 경력을 쌓아 지금 회사에서 파트너십을 갖고 싶습니다.

**Q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한마디 해준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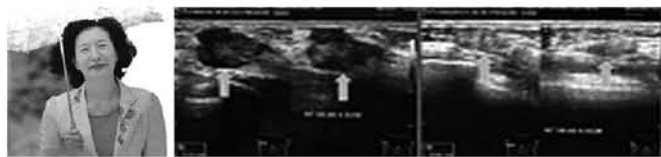
포기하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소수민족이고 동양인이라고 해서 아무도 부당하게 대접해 주지 않으므로 기죽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24시간 GCN 위성 및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www.gcnetv.org)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받아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딤후 2:4).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표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시리라" (요 4:48)



▶ 유방암을 치료받은 한인옥 집사 - 유방촬영 2cm 결절이 사라진 소견. 초음파검사 2.2cm 분엽양 비균질성 저에코 결절이 사라진 소견



▶ 죽음 직전에 중증 폐결핵을 치료받은 한중경 자매



▶ 자기감작성 피부염 / (유빈, 당시 6세, 전주) - 2008. 9월 세 차례 기도 받은 후 10월 완치  
 ▶ 아토피성 피부염 / (박세희, 당시 16세, 여수) - 2007. 10월 기도를 받은 2~3일 뒤 완치, 현재 완치



▶ 빈지나 자매 (천상의무용팀) 사고로 인해 기도 받은 후 믿음으로 치료 받음

조선, 한국, 동아, 중앙일보 등 주요일간지에 정기 게재되고 있는 신앙컬럼입니다.

변함없이 선을 행해야 어떤 일을 할 때 A, B 둘 중 한 사람이 양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A가 순순히 양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양보하는 입장이 되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나름 상대를 섬기려고 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오지 않자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행함으로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처음에 기쁘게 양보하던 마음이 시간이 흐르자 변질되었다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선을 좇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누구든지 지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전 10:24)

2013-09-19 경향신문 [김 사랑의 마음  
 전문가의 공언보다 자녀나 손자의 재물이 더 감동을 받는 것은 사랑의 교감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울정, 박자가 틀리고 동작이 어설피어도 부모 또는 조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멋진 외모, 유창한 말솜씨, 열성적인 봉사, 많은 예물보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의 악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담은 선한 자녀들이 울리는 기도, 찬양, 예배 등을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과 축복으로 돌아주시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시 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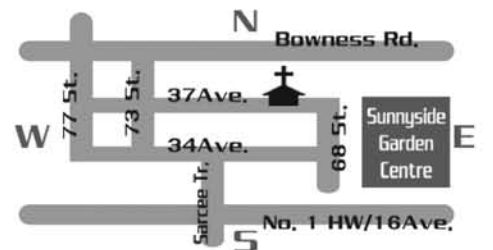
2013-09-17 동아일보 [실로암]  
 전문가의 공언보다 자녀나 손자의 재물이 더 감동을 받는 것은 사랑의 교감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울정, 박자가 틀리고 동작이 어설피어도 부모 또는 조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멋진 외모, 유창한 말솜씨, 열성적인 봉사, 많은 예물보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의 악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담은 선한 자녀들이 울리는 기도, 찬양, 예배 등을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과 축복으로 돌아주시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시 37:4)

 대표회장	 의예총재	 의예총재	 의예총재	 의예총재	 의예총재	 총재	 상임총재	 부총재	 부총재	 부총재	 부총재
 구분총목사	 신신목사	 권동목사	 김동일목사	 김상규목사	 김진환목사	 배동훈목사	 이재목사	 이민구목사	 박부중목사	 권석도목사	 오경호목사
 이종만목사	 광준익목사	 백경일목사	 이승규목사	 김종대목사	 오영언목사	 김원보목사	 손학중목사	 서경달목사	 박창식목사	 이진권목사	 김경옥목사
 윤영희목사	 기획정책목사	 사무총장	 사이버처치 회장	 여성담당	 여성기획위원장	 감사담당	 선교실무위원장	 통일정책위원장	 상임총무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성경목사	 이경택목사	 윤영석목사	 홍미리목사	 송은숙목사	 이한자목사	 이만식목사	 임순탁목사	 박영복목사	 유병삼목사	 정경기목사	 김주배목사
 이대보목사											

사랑별인 기독교세계부흥선교협의회      연락처 : 031)942-3197

= 캘거리 만민 교회 =

Address : 3803 - 69th Street NW Calgary (Sarcee Tr. + 16th Ave NW 인근)  
 Tel : 403-246-9226 담임목사 김준호목사 (Caleb Kim)  
 (E-mail) narrowgate21@hotmail.com (Website) www.calrymanmin.org



\*예배안내\*      \* 24시간 GCN 및 인터넷 방송 \*  
 ■ 주일예배 - 오후 2:00, 5:00      www.gcnetv.org      ■ 주일예배 - (토)오후 8:30, 12:00  
 ■ 다니엘기도회 - 오후 9:00      ■ EVERTV      ■ 다니엘 기도회 - 매일 오전 6:00  
 ■ 금요찬양예배 - 오후 9:00      ■ GCN      ■ 금요철야 - (금) 오전 8:00

# 영문소설을 발표한 캘거리 교민 정진형씨

본지에서는 지난 9월말 영문 소설 'Intelligence Code 제 1부' (Area of Great Heroes: 위대한 영웅들의 전장)를 발표한 캘거리 교민 정진형씨(40세, 필명 BJ Avilla)를 만나보았다.

본 작품은 현재 아마존에서 킨들(kindle)버전으로 이북(E-book)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가 3불), PC와 스마트폰 등으로 열람할 수 있다고 한다. 12월경에는 종이책으로도 발간을 준비중에 있다고 정 작가는 말하며, 총 3부작으로 구성된 본 작품의 제 2부는 내년 봄 출판 예정이라고 한다.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학사와 석사과정을 모두 마친 정씨는 2000년 가족들과 캘거리로 유학 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캘거리 대학교에서 종교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에 직장생활과 사업을 운영하다가 최근 집필 활동에 전념하게 되었다.

정씨는 10년전 세워진 캘거리 불자회 창립 멤버였으며 현재 서래사에서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 1부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지난해 여름부터 작품 구상을 하고 올해 2월부터 6개월간 작품을 썼습니다. 이후 2개월간 편집과정을 마치고 9월말에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품 완성후 전문가에게 의뢰해 편집과정을 거쳤구요, 전문 디자이너가 커버를 디자인해주었습니다.

이민 1세로서 영문 소설을



쓰는 것은 여러모로 쉽지 않은 일인데 작품을 쓰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와 동기는?

작년에 제스퍼로 여행을 갔다가(머린 호수에 있는) 스피릿 아일랜드를 보고 나서 소설의 줄거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작품은 'Journey to the Spirit Island'인데 이것도 내년 봄에 발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종교와 역사, 신화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와 상상력들을 한데 묶어 '인텔리전스 코드'를 쓰는데 전념해서 이번에 우선 본 작품을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본 작품은 종교, 역사, 과학 등 많은 분야들의 이야기와 이론 및 가설들을 담고 있어서 독자들의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작품을 쓰면서 사용했던 자료를 이번 이북에서 모두 살려놓은 것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책을 보면서 각주가 달린 내용을 클릭하면 이에 대한 좀더 상세한 내용들을

보실수 있습니다. 작품을 쓰게 된 가장 근본적인 계기는 이민 1세로서 영어로, 그것도 유럽과 서구의 근본적인 역사와 종교, 그리고 신화의 문제를 다루어 북미 및 전세계

독자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작가가 되고자 하는 저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저의 노력이 앞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우리 문화와 사상의 자긍심을 세울 수 있는 계기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향후에는 동양과 한국의 사상과 혼을 담은 작품들의 저작 활동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작품 '인텔리전스 코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미국 첩보 전쟁에 대한 내용으로 아일랜드 독립 투쟁 단체의 콜린스 장군에 맞선 미국 레미스쿠 장군의 전투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어릴 때부터 친구이며 영국사관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두 사람이지만, 아일랜드 태생의 콜린스의 퇴학을 계기로 두 사람은 각자 아일랜드와 미국으로 가서 이후 각국의 장군으로써 승진하게 되죠. 콜린스의 아내 아이

린은 가장 위협적인 바이러스 무기 개발에 성공해 남편은 아이린이 개발한 생화학 무기로 영국과 이스라엘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결국 영국은 이로 인해 초토화 되고.

콜린스는 어릴때부터 자신이 아서왕의 화신이라고 믿었고, 자신은 진정한 켈트의 영웅이며, 앵글로-색슨의 침입을 물리치는 진정한 영웅이 될 것을 꿈꾸며 자라왔고, 이에 매료된 생화학박사이자 드루이드 종교의 주술사이기도 한 아내 아이린은 콜린스를 도우게 되고, 그의 아일랜드 독립을 넘어선 세계 정복의 야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콜린스는 영국 공격 후에 아서왕이 호수에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진 엑스칼리버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부하들과 명목상 팔레스타인과 아랍인들을 해방할 목적으로 이집트 정권의 도움을 받아서 영국 맨체스터의 비밀기지를 탈출하여, 시나이(Sinai) 반도를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위협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1부의 마지막에 전체 이야기의 근본 갈등인 드루이드 주술사와 시오니즘과의 문제가 북한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2부에서 종교와 신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갈등의 근본적 문제를 소설상에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형씨 연락처 홈페이지는 <http://author-bja.com> 이메일 주소 [jinhyungjung@yahoo.com](mailto:jinhyungjung@yahoo.com)

# 캐나다의 못알리는 커피사랑

10명중 8명 매일 커피 사 마셔



캐나다 성인 10명중 8명은 매일 커피를 레스토랑이나 커피전문점에서 마시고, 그중 절반 이상은 하루에 한 잔 이상의 커피를 사서 마시고 있다. 1주일에 팀홀튼을 찾는 이들의 수는 디즈니 매직 킹덤을 1년간 방문하는 이들보다 많은 실정이다.

그리고 이 같은 캐나다인들의 커피 사랑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소비 시장을 연구하는 NPD 그룹의 최근 시장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캐나다에서 커피를 마시는 16%의 성인들은 커피 소비량을 향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중 39%는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층이었다.

NPD 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이 같은 커피 선호도는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캐나다에서는 집에서 소비되는 커피양이 63%에 달하지만, 이것은 보고서에 적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NPD그룹의 음식 서비스 분야 책임 디렉터 로버트 카터에 의하면, 식음료 관점에서 커피는 캐나다의 최대 소비 품목이며, 매년 캐나다인들은 집에서 마시는 커피를

제외하고도 2억 1천 잔의 커피를 사서 마시고, 이는 6억 달러의 매출을 의미한다.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한 것과 같은 스페셜 커피(specialty coffee)는 커피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난 5년 전에 비해 10%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계절 특별 커피인 펄킨 스파이스 라떼의 경우에는 지난 2003년 소개된 이래, 2억 잔이 넘게 팔리고 있는 인기 음료중 하나이다.

하지만 역시 캐나다 커피시장 부동의 1위는 원두커피(brewed coffee)로 집 밖에서 소비되는 커피의 80%는 원두커피이다. 게다가 밖에서 커피를 사 마시는 이들의 61%는 원두커피만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스페셜 커피로 유명한 스타벅스에서도 판매 1위는 원두커피이다.

벤쿠버 하키팀인 커너스를 상대로 펼친 설문조사에서도 커피 사랑은 여실히 드러났는데, 그들은 1주일간 무엇을 꿀 수 있는냐는 질문에 45%의 선수들은 술을, 38%는 페이스북을 선택했으나 단 8%만이 커피를 꿀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희 기자)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주인되시는 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초대교회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있는 말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오십시오, 초대교회로!

주일 예배	: 오후 1:30
그룹 성경공부	: 주일 오후 3:30
King's Kids (교회학교)	: 주일 오후 3:30
새벽 기도회	: 오전 6:00 (월~토)

섬기는 아: 이현구 목사 (587-718-0921) 230-78Ave, SE, Calgary AB, T2V1C4

인테리어/건축/조경

Kitchen, Bathroom, Hardfloor, Paint, Doors, Plumbing, Renovations

# 집짓는 사람들

oikos construction

403-613-8000

원주희

Calgary Contract Upholstery Ltd.

# 상업용 소파 및 의자 제조 전문업체

당사는 캘거리 최고의 레스토랑 부스 소파, 벤치, 의자, 스툴 등 다양한 형태의 Upholstery // Re-upholstery 전문업체로서 호텔, 병원, 사무실, 체육관 및 가정용까지 모두 취급합니다. 저희는 업계 최고의 품질과 디자인으로, 마감일을 엄수하며 30년째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주소 : 337 41 Ave NE Calgary T2E 2N4  
전화 : 403-277-8877  
(한국어 통화를 원하시면 Owner Mr. Kim을 찾아주세요)  
팩스 : 403-277-4420  
홈페이지 : [contractupholstery.ca](http://contractupholstery.ca)  
이메일 : [soohyun@contractupholstery.ca](mailto:soohyun@contractupholstery.ca)  
[admin@contractupholstery.ca](mailto:admin@contractupholstery.ca)

손에 마구 물어날 듯이 푸르디푸른 나뭇잎들이 슬그머니 다른 색으로 변하더니 푹 푹 낙엽 되어 떨어진다. 새로운 계절을 알리면서 자신을 정리하는 모습이 숙연하기까지 하다. 오호! 떨어지는 나뭇잎을 무연히 바라보며 떠남을 아쉬워한다. 화려했던 지난날을 잊지 않음이다. 비바람에 시달린 생이었으나 그대의 과반 생명력이 짙었기에 내 마음이 풍요로웠고 그대의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졌기에 열기와 피로를 달랠 수 있었다.

낙엽과 낙화(落花)는 다 같이 한때의 영화를 뒤로하고 땅에 떨어진다. 자연의 섭리에 따른 상처 없는 추락(墜落)이다. 부여받은 소명을 다한 모습 또한 같고 새해에 다시 잎과 꽃으로 윤회하는 기약까지도 모두 다르지 않다. 다만 우리 감성을 자극하는 흔적은 다르다. 낙엽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고 심란한 느낌이 들게 하는 한편 낙화는 기대와 약동에 동화되게 한다. 그다음에 찾아오는 계절을 예시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낙엽은 삭막한 겨울이 다가옴을 알리고 낙화는 왕성한 활력의 여름이 와 있음을 받아들이게 한다.

가을을 추락(秋落)하는 계절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곧잘 인생의 황혼에 비유한다. 오색의 계절옷 입은 단풍의 아름다움을 황홀한 낙조에 건주어 연상하려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을 아쉬워함이 아니라 화려하게 치장하려는 과장된 외식(外飾)의 발로인지도 모른다. 인생의 황혼은 보기에도 장엄하고 눈이 부시어야 하지만, 내면에 풍기는 멋과 향이 깃들어야 더욱 바람직하다. 이 멋과 향은 일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온 여정을 통해 은연중 모이고 쌓이는 것이리라. 그래서 더욱 귀하고 존경스럽다.

이 추락(秋落)의 계절에 덧없는 인간의 추락(墜落)을 보면서 단풍과 낙엽을 대하기가 면구스럽다. 추락(墜落)은 사람이나 사물이 사그나 실수로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라는 사



전적 의미를 가진다. 인기작가 이문열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라는 소설이 있다. 제대로 생긴 날개를 달고 있다면 추락할 리가 없다. 날개가 있기에 하늘 높이 올라갔을 터이고 새나 비행기처럼 마음대로 공중을 날아다닐 게 아닌가. 엄연히 날개가 있음에도 혹시 추락하는 불상사가 생겼다면 필시 날개에 고장이 생겼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영광과 추락을 보는 것은 피로운 일이다. 영광 즉 엄연히 최상의 날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진흙 바다에 비참하게 곤두박질치는 정황을 대했을 때의 갈등을 어찌 갈무리해

야 할 지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을 떠나와 살아도 내 귀는 항상 조국을 향하고 있다. 언어 또한 조국을 잊어본 적이 없다. 조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실시간에 보고 듣는 세상에 살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조국의 국적을 버린 자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임을 자인하면서도 조국을 향해 던진 끈을 놓지 못한다. 그래서 간접하고 따지고 싶어진다. 분노하고 안타깝고 안쓰러워한다. 조국의 최고 정상에 올랐던 사람들의 어이없는 추락을 보면서 시대의 역사를 읽기에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다. 사람

에게 인격이 있는 것처럼 나라에 국격(國格)이 있는데, 외국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조국의 국격이 무너지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분노한다. 요즘 중국 광저우에서 있었던 형제 강도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무장한 형제가 어느 은행에 들어갔다. "움직이지 마라. 은행돈은 정부돈이고 여러분의 목숨은 여러분의 것이다. 정부돈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버리지 마라." 형제 강도는 이렇게 외치면서 돈을 자루에 담아 유유히 사라졌다. 이튿날 아침 뉴스는 은행이 강도에게 100억 원을 장

탈당했다고 보도했다. 동생 강도가 고개를 가웃거리며 말했다. "형, 우리가 가져온 건 20억인데, 웬 100억이야?" 진짜 강도는 누구인가? 한국 신문에 이런 보도가 나가자 읽는 사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라. "말이 되는군." . 흔히 있는 일인 것처럼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말투다.


애초에 날개가 없다면 높은 곳까지 날아오를 일이 없으며 추락할 일도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추앙을 받으며 하늘 높이 치솟을 날개를 원한다. 이 날개 얻기를 필생의 목표로 삼고 산다. 그것은 바로 성공이라는 인생 최고의 성취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듯 소중한 날개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과욕과 물신(物神)에 현혹되어 날개를 다른 채 추락의 나라에 떨어진다. 비극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추락한 비참한 자신을 깨닫지 못한다. 추락이 대수냐, 아니 추락은 한낱 낱말에 불과하다.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해도 좋으니 무조건 욕심을 채워보자. 돈, 돈은 영화의 어머니가 아니냐!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는 역설도 통하는 듯한 얼굴을 하고 TV 뉴스 화면에 당당하게 나온다. 허연 머리에 주름진 얼굴에는 자존심을 찾아볼 수 없다.

사람을 못내 힘들게 하는 것은 두려움보다는 수치심이라고 한다. 그런데 추락을 수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연 해당하지 않는 말이다. 정직한 것들은 이 가을엔 모두 고개를 숙인다는데 추락한 사람들이 참회의 고개를 숙이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추락(墜落)이 없는 추락(秋落)의 계절에 생각해 본다.

<2013. 9. 18>



灘川 이종학<소설가, 에드몬톤>



## LETOURNEAU LAW

BARRISTERS & SOLICITORS

### 변호사 심재헌

“

여러분의  
힘든 법적 문제를  
성심껏 돕겠습니다.”

”

**주요 법률 업무**


- 회사법
- 부동산법
- 이민법
- 민사 소송법
- 노동법
- 가족(이혼)법
- 교통사고/상해 소송
- 상속법 등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재헌 변호사 약력**

심재헌 변호사는 알버타와 사스케치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대형 로펌에서 수년간 다양한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심재헌 변호사는 알버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사스케치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연방법원에서도 고객을 대변하였으며, 대표적인 고객들은 TD Bank Canada, RBC, CIBC, HBC, Capital One Bank, Aktiv Kapital, GMAC 등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 건설회사를 대변하였으며, 기업간의 민사 소송외 이혼/양육권/재산분할 소송, 부채 컬렉션, 압류, 부동산 거래, 이민, 유언장 및 상속, 고용분쟁, 회사설립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헌 변호사 Promotion Coupon**

Enjoy Peace of Mind Now. Bring in this coupon (or a copy) to get:

\$100 OFF of your next Real Estate Conveyance Transaction\*

Ph: 403-476-2011 Fax: 587-349-1617

\*Applies to only House and Condominium Transaction

Unit 17, 1915 – 32 Avenue NE Calgary  
Toll-Free: 1-866-467-7201  
Phone: (403) 476-2011  
Fax: (587) 349-1617 Email: Jae@LeLaw.ca  
Website: <http://www.lslaw.ca/jaekorean.html>

### 캘거리 태권도 아카데미는 수련생의 마음과 몸의 균형 잡힌 삶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Build a Strong Mind & Body”



CALGARY  
**TAEKWONDO**  
ACADEMY

수련목표

- 리더십 향상
- 자신감, 집중력 향상
- 긍정적 가치관 형성
- 균형 있는 신체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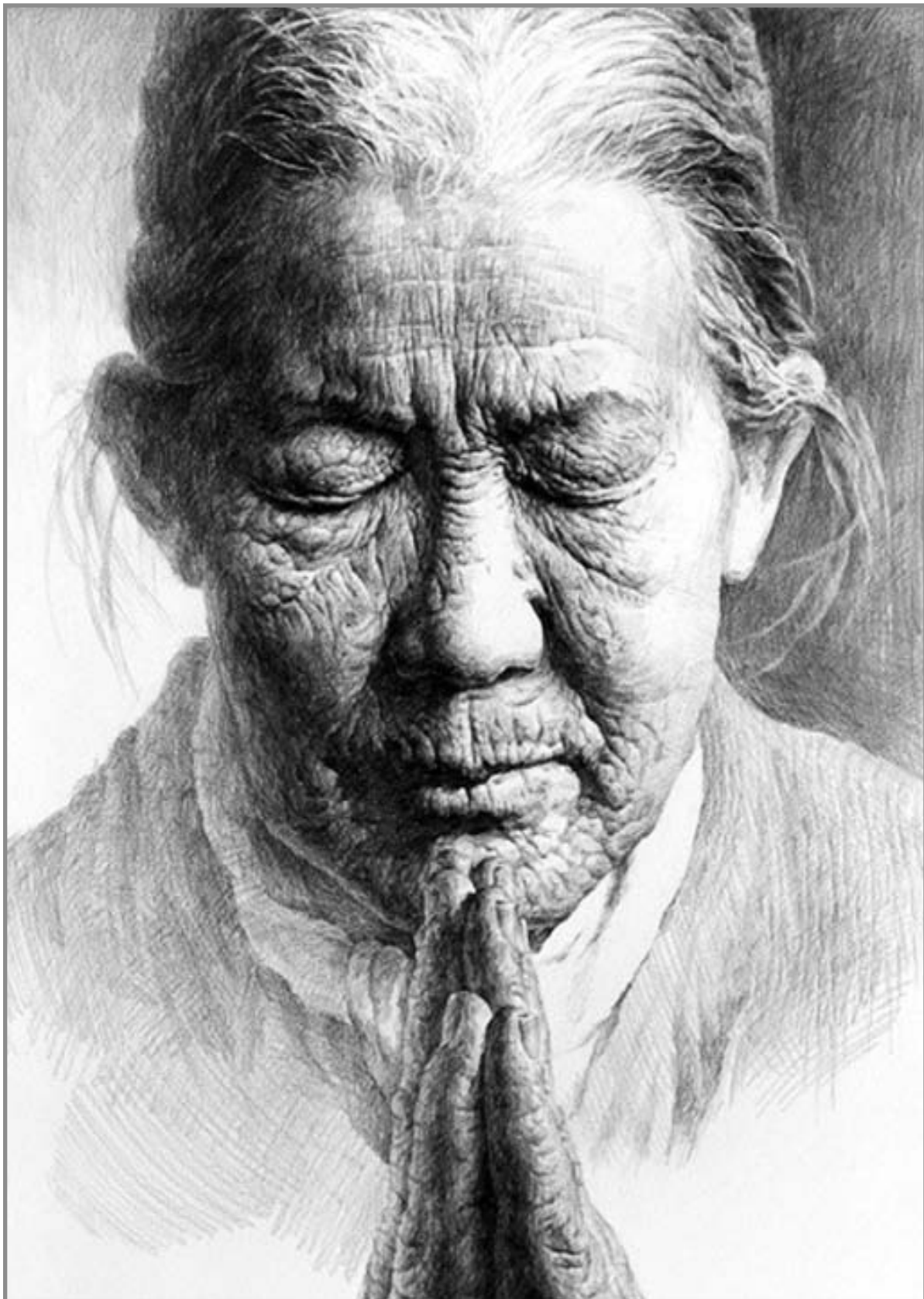
용인대 태권도학과 전공  
한국인 사범 지도



"새 학기 수강 등록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2nd Floor, #1-2711 17 Ave SW Calgary, AB  
1-587-438-5737 (한국어 문의)  
Web Site : [www.calgarytkd.ca](http://www.calgarytkd.ca)





# 나의 어머니

**창** 조주께서 만든 작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었다면 그것은 바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마지막 날 만든 여성 “하와” 일 것이다. 아담의 가장 중심 부분의 단단한 갈비뼈를 취해서 본차이나(?)처럼 단단하고 남성보다 수명이 길게 만들어졌다는 여성들이 가장 위대한 것은 그 무엇보다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일과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닐까?

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인들 중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디모테의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를 존경하지만 내 나이 중년을 훨씬 넘어선 지금의 나는 육남매를 잘 길러주신 나의 어머니를 가장 훌륭한 어머니로 모시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나의 어머니 기도 소리가 내 귓가에 들리며 다시 새 힘을 얻기 때문이다.

**이** 세상 어머니들이 모두 위대하지만 나의 어머니의 위대한 힘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중학교에 입학 할 무렵 아버지의 오랜 병고로 기울어진 가세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아주 상실해버린 나의 어머니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절을 뒤로하고 앞집 아주머니와 함께 이웃 교회 부흥회에 참석해서 감격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주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기 시작하였다.

무엇이든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성품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의 제단을 쌓고 집에 돌아오시면 그때까지 잠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와 함께 식구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시던 모습 나는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실 때 슬픈 탄식 소리가 변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감사 찬송으로 변하고 맑은 가을 하늘 아

래 우리 집 울타리 밑에 피어있는 코스모스 꽃이나 들국화 잎을 따서 예쁘게 방문 창호지에 붙이시며 “황무지가 장미 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 를 흥겹게 부르시던 어머니의 믿음대로 마침내 아버지의 병이 완쾌되었고 우리 육남매를 모두 교회의 신실한 일군으로 길러 내셨다.

## 이제 아흔 고개를 훌쩍 넘어선 나의 어머니!

**비**록 가난했지만, 집 마당엔 봄, 여름이면 온갖 꽃들을 피우게 하였고, 가을이면 울타리 안에 있는 텃밭에서 포도, 감, 밤을 따서 이웃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샀 바느질로 생계를 이을 수 있었다. 유난히 음식 솜씨가 좋으셨던 어머니! 친척들과 조카들 결혼 폐백 음식은 도맡아서 해주시고.....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셨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지난해 겨울 칠년 만에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를 찾아 뵈고 한 달간 같이 지낼 수 있었는데 살갓이 빠른 나날들이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셔서 세수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자식들을 위해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 하셨다.

내가 철이 없을 때 가난한 집을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이곳 캐나다 이민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자주 전화 드리지만, 통화를 마칠 때마다 “꼭 예수님과 함께 하이라.” 라고 한번도 빼놓지 않으시는 당부의 말씀을 들 때마다 난 다시 힘을 얻는다.

지금도 자식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 하시는 나의 어머니! 그 기도하 이제 나의 기도도 이어지고 있다.

전선희  
(에드몬톤 열음꽃 문학회)

## Piano Lesson

**Pianist 전인경**

- 예원학교 우등졸업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 학과 졸업
- 이태리 로마 A.I.D.M.(Academia internazionale Di Musica) 피아노과 졸업
- 이태리 로마 A.I.D.M. 피아노 전문연주자 과정 박사학위

(레슨경력 31년)

문의 전화  
**403-201-8833**  
**403-837-8277**

## 알버타 여행사 Alberta Travel

TO U R

**각종 세일 항공권 판매**  
**남미 리조트 패키지 및 투어 상품 판매**

캘거리 (403)512-3380 / 에드몬톤 (780)756-7557

**파고다 여행사** SINCE 1992

전세계 항공사 국제선·국내선 최저가 보장!  
**파고다가 책임집니다**

**대한항공 KOREAN AIR** Excellence in Flight

**초특가 원가세일**

“세일은 9월30일에 마감됩니다” **출발일자 : 10/5 ~ 12/10**

**북경! 비자없이 구경하기** AIR CHINA

**한국 왕복 항공권 + 북경 3박4일 투어**

주요일정 **항공권과 투어를 포함한 착한가격**

1일차 천단공원, 전통 서커스 등  
2일차 명13능, 옥공장, 만리장성 등  
3일차 천안문광장, 자금성 등  
4일차 북경 출발

**from \$1299 (세금포함)**

※출발일 30일 전 & 최소 2명예약, 세부사항은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미서부** (4인1실/항공별도)

- 3박4일 US\$ 270~
- 4박5일 US\$ 310~
- 5박6일 US\$ 330~
- 6박7일 US\$ 410~

**미&캐동부** (4인1실/항공별도)

- 4박5일 (캐동부) C\$ 375~
- 4박5일 (미동부) US\$ 310~
- 5박6일 (미동부) US\$ 410~
- 6박7일 (미동부) US\$ 500~
- 7박8일 (미캐동부) US\$ 570~

**휴양 패키지 스페셜**

**멕시코**

- Riu Vallarta (5star) 10/4 출발 from \$615 + tax
- Relax At Oasis Sens (5star) 10/30 출발 from \$795 + tax

**All Inclusive Package. (왕복항공, 호텔 7박, 술, 식사, 음료 등)**

**캘거리 출발** 경험 많은 에이전트가 여러분들을 멋진 휴양지로 안내해 드립니다.

**쿠바**

- Riu Varadero (5star) from \$715 + tax, 10/8 출발
- Riu Varadero (5star) from \$725 + tax, 10/25 출발

**자메이카**

- Riu Montego Bay (5star) from \$865 + tax, 10/28 출발

★ Last Minutes Sale 이 많이 있사오니 전화 문의 바랍니다.

고객지향의 대한민국 1등 여행사  
 브랜드 가치도 1위, 유치인원 1위  
 고객만족도 1위 기업으로 성장

# HNT 하나투어



한국 및 전세계 할인항공권  
 대한항공 판매대리점  
 아시아나 항공 판매대리점

북미송판점 캘거리 지사 **403-263-2080** 910B 825-8AVE. SW, Calgary T2P 2T3

## 메이플로드 단풍 SPECIAL

쪽빛 하늘과 수려한 단풍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Healing!!

### 1. 캐나다 동부 + 몽트랑블랑 4박 5일

캐나다 동부의 핵심지역 및 몽트랑블랑 관광

**\$519~**  
 (4인 1실)

★ 출발일: 10월 3,7,10,11,14,17일

★ 특전사항:

1. 몬트리올 퀘벡에서의 최고급 호텔 숙박
2. 다양하고 맛있는 중식 한식 요리
3. 차별화된 고품격 동부 단풍여행

### 2. 미케동부 7박8일

워싱턴 D.C. - 나이아가라 구간, 그리고 토론토-천섬-몬트리올-퀘벡 구간, 몬트리올-뉴욕 구간의 '오저블케이즈 트레킹' 통해 미동부 지역의 단풍을 만끽

**\$659~**  
 (4인 1실)

9월 21일 ~ 10월 12일  
 매주 수, 토 출발

## LA 하나투어 단독 행사 "꽃보다 크리스마스" 서유럽 9일

하나투어와 함께 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유럽 여행!!

★ 상품 특전★

1. 타사에서 한번도 들어간적이 없는, 독일 스트라스부르크 크리스마스 마켓 방문!!!
2. "꽃보다 할배" 촬영지역인 루페른 방문!! 루페른 호수! 빈사의 사자상! 등 관광
3. 융프라우 열차 포함, 줄리엣의 도시 베로나 바티칸 내부 포함
4. 4성급 호텔

단 하루,  
 ★ 12월 20일 ★  
 확정 출발

**\$1550** (인당)

(독일, 스위스, 이태리, 프랑스) - 독일과 프랑스 국경지역 숙박, 파리 지역은 가지 않습니다.)

### 록키코치 1박2일 & 2박3일

\* 밴프-아이스필드-콜롬비아 캐빙원지대-레이크루이스까지 볼 수 있는 절호의 장소~ \*하나투어 조인 상품

10월 1박 2일 **\$210~**  
 (4인 1실 기준)

10월 2박 3일 **\$329~**  
 (4인 1실 기준)

**ONLY ONE** 세계최초의 평화 국립공원, 워터톤 국립공원 **DAY TOUR!**

록키 완전 정복!! 빙하바람과 평화가 쉬어가는 곳!! 워터톤 국립공원까지 가보자!

★ ONLY 10/5 1회 출발★

단 하루 출발, 서둘러주세요~ **\$89**

가이드, 차량, 국립공원 입장료, 포함! 중식, 가이드 팁, 선택관광 불포함

**Best** LA 하나투어 단독 행사! **미서부 5박6일**

경이로운 대자연과 사막의 기적 환상적인 도시 LA-라스베가스-크랜드캐년-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LA

매주 월, 금 출발 **\$355~** (+항공 4인실 기준)

<b>캐나다</b>	밴쿠버/빅토리아 2박3일	매주 금	<b>\$359~</b>	+ 항공 (4인 1실)
<b>미주</b>	미서부 3박4일	매주 월, 금	<b>\$290~</b>	+ 항공 (4인 1실)
	미서부 6박7일	매주 일, 월	<b>\$435~</b>	+ 항공 (4인 1실)
	미케동부 7박8일	매주 수, 토	<b>\$659~</b>	+ 항공 (4인 1실)
	하와이 3박4일	매일 출발	<b>\$450~</b>	+ 항공
	모이바 에어크루즈 (럭셔리전용 전세기 투어)		요금 및 출발일문의	

<b>에어텔</b>	(항공+호텔)	*출발일과 항공여정에 따라 요금이 상이합니다.
라스베가스 3박4일	<b>\$380~</b>	
칸쿤리조트 All Inclusive 7박8일	<b>\$1150~</b>	
쿠바 (하나바/바라데로) All Inclusive 7박8일	<b>\$916~</b>	
도미니칸 All Inclusive 7박8일	<b>\$1219~</b>	
하와이 3박4일	<b>\$680~</b>	
올랜드 3박4일	<b>\$635~</b>	(+디즈니월드 할인 입장권 판매)

<b>멕시코</b>	멕시코시티+칸쿤 4박5일	<b>\$599</b>	+ 항공 (4인 1실)
<b>크루즈</b>	알래스카/캐리비안/코스탈		
<b>비아레일</b>	비아레일 예약 대행	<b>호텔</b>	캐나다 전지역 호텔 예약 대행

<b>아시아</b>	*항공별도*		
방콕/파타야 5일	<b>\$250~</b>	신일본일주 5일	<b>\$1050~</b>
파타야 시티투어, 로얄드래곤 옵션 포함, 2인 이상 출발 보장		신간선탐승, 온천욕가능 호텔 특식포함 / 하나투어 단독 호텔 사용(타사 비교 불가)	
푸켓 직항 5일	<b>\$300~</b>	규슈/온천여행 4일	<b>\$930~</b>
푸켓 일급호텔 3박 숙박, 피피섬, 팡아만 관광 포함		초특급호텔내 온천욕 가능, 하나투어 단독 호텔(타사 비교 불가)	
마닐라/팍상한 4일	<b>\$450~</b>	럭셔리 북경/만리장성 4일	<b>\$400~</b>
파기이피이, 팍상한 관광		더욱 알찬 일정과, 푸짐한 특전을 포함한 명실공히 북경(베이징)을 대표하는 강력추천상품	
북경 만리장성 4일	<b>\$300~</b>	항주/황산 4일	<b>\$450~</b>
매주 월요일 북경 도착, 옵션 및 가이드 TIP 불포함(4성급호텔)		기승, 기암, 운해, 온천으로 유명한 천하절경의 황산 관광	
상해/항주/주가가 4일	<b>\$450~</b>		
4성급호텔, 동양의 베니스 주가가 투어			

**유럽 100% 출발 확정** \*항공별도

서유럽 5박 6일 **US\$1200**

서유럽 8박 9일 (피사 관광 포함) **US\$1600**

서유럽 9박 10일 (피사 + 나/폼/소 포함) **US\$1700**

★ 서유럽 출발일: 10/10, 10/17

이태리 일주 6박 7일 (피사+나/폼/소 포함) **US\$1050**

★ 출발일: 10/13, 10/20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바르셀로나 10박 11일 **US\$1650** (국내선 포함)

★ 출발일: 10/20

\*\*\*\* 모든 유럽 상품은 미화 기준입니다. // 유가변동으로 인하여 요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하나투어 단독 유럽 상품 특전 -

★ 정규 4성급 호텔 사용

★ 각지역 특식 제공(프랑스-달팽이 전식 요리, 이태리-마짱클레, 스위스-정통 풍뎉 등)

**한국 가는 길 모국 여행** \*항공별도

출발일에 따라 요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주 2박3일 **\$269**  
 매주 월, 수

동해안/설악 3박4일 **\$539**  
 매주 수

서해안 3박4일 **\$539**  
 매주 금

전국일주 + 제주 8박9일 **\$1029**  
 매주 금

**HS 한신메디피아** 종합검진 전문의료기관

해외교포를 위한 건강검진 정부기관 및 공사 / 대기업 임직원의 건강검진을 책임지고있는 믿음직한 의료센터 세부적인 진료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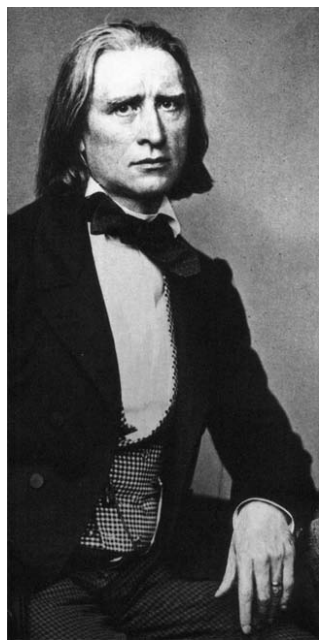
**한신 종합검진센터**

**\$319 +항공**

포함진료내용 : 기본진료, 체형평가, 안과검사, 흉부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 통풍, 혈액기능, 콜레스테롤, 전해질검사, 심혈관계검사, 당뇨질환 등 98가지 진료

캐나다 전지역 호텔 예약 대행 / 차량 대여

KOREAN AIR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ASIANA AIRLINES | AIR CANADA | JAPAN AIRLINES | WESTJET



쉽고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 106

19세기 슈퍼스타  
리스트

리스트, 그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9년에 걸친 유럽 순회 공연에서 그는 '리스트 매니아(Lisztomania)'라는 신조어를 생겨나게 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고 다녔다. 그가 가는 곳은 언제나 팬들이 몰렸고 심지어는 그의 손수건을 훔치거나 머리카락을 잘라 가려고 북새통을 이루기도 하였다. 연주도중 얼굴을 반쯤 가리워지는 그의 단발머리는 많은 음악생들의 유행이 되었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본다 던지, 깊은 한숨을 내뿜는 등 다양한 행동을 하나 하나가 청중에게 놓칠 수 없는 하나의 드라마가 되었다. 오빠부대의 원조, 사생 팬을 만들어낸 시초격인 리스트는 말 그대로 19세기의 슈퍼 스타였다.

슈퍼스타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가본다면, 그의 부모님은 헝가리 라이딩 지방의 보통 사람이었다. 리스트의 아버지는 하이든과 친분이 있는 아마추어 음악가였지만 리스트가 피아노에 특출한 재능을 보이자 아버지는 명 연주자로 만들기 위해 모든 일을 그만두고 비엔나로 이주했다.

1819년-1823년 까지 리스트의 선생님은 체르니였는데 체르니는 리스트를 정성을 다해 꼼꼼하게 지도하였고 리스트 또한 인생에서 영향력을 준 선생님이로 체르니를 꼽을 만큼 잘 따랐다. 어린 리스트는 베토벤을 만난 적이 있다. 이야기에 의하면 베토벤의 리스트의 연주를 듣고 그의 이마에 키스를 해주었다고 하지만 사실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이유는 그 당시 베토벤은 이미 청력을 모두 잃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리스트가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파리로 향했다. 1827년 급사할 때까지 리스트를 연주로 혹사 시키고 돈을 챙겼다. 아버지의 사망 후, 젊은 리스트는 모든 연주를 취소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까지 대중 앞에서 잠시 사라진다.

1830년대 그는 다시 무대로 컴백한다. 흰칠한 키와 흰 얼굴, 매력적인 푸른 눈과 길게 늘어뜨린 머리, 그는 청중을 매혹시키는 재능을 타고난 연주자였다. 그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 사람들은 무아지경에 빠지곤 한다. 그는 최고의 스타였기 때문이다. 그의 인생에서 영향력을 끼친 선생님을 체르니라 한다면, 음악적

인 문화충격을 준 사람은 파가니니였다.

파가니니는 악마의 기교라 불릴 만큼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이다. 파가니니의 초절 기교에 충격을 받아 '피아노의 파가니니'가 되겠다고 결심하고서 피아노의 테크닉을 극한으로까지 발전시킨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테크닉에 영향을 준 사람이 파가니니라면 리스트에게 섬세한 감성과 색채에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바로 쇼팽이었다. 리스트는 언제나 쇼팽의 연주에 경의를 표했다. 리스트는 쇼팽을 좋아했지만 쇼팽은 리스트를 견제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유야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아마도 몸이 허약했던 쇼팽은 남성미 넘치는 리스트가 부러웠을지도 모르겠다.

리스트는 1835년 살롱의 안주인이었던 마리 다구 백작 부인과 사랑에 빠져 사랑의 도피를 택했고 이후 3명의 아이 블랑당, 코지마, 다니엘을 낳았다. 다니엘이 태어난 후부터 사이가 멀어져 리스트는 9년에 걸친 유럽 순회공연을 떠났고, 연주여행도중 여자관계에 대한 온갖 소문은 대부분이 사실이었다. 리스트가 애정행각을 벌인 여성 가운데에는 당대 최고의 무희 로라 몬테즈도 있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떨어져 싸워대던 마리와 리스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택했을 만큼의 불같은 사랑의 종지부를 1844년 찍게 된다.

이후에도 리스트는 계속적인 연주 활동과 연애활동을 하는데 점차 지치지 시작한다. 마흔을 눈앞에 앞둔 시기에 그는 미래의 음악에 대한 구상으로 꽂 차 있었다. 음악과 시문학의 결합을 말하는데 여기에 동참한 사람이 바로 바그너이다. 바그너는 오페라를 종합 예술의 최고의 경지로 만든 사람으로 풍부한 감성이 넘치는 리스트의 작품에 드라마티시즘을 덧입히는 작업을 하였고, 브람스 등 전통을 고수하는 작곡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항하였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리스트의 말년이다. 문란한 애정행각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카톨릭 신앙을 유지해오던 리스트는 예배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고 1862년 큰딸 블랑당이 죽은 후 신앙심으로 슬픔을 이겨냈다. 그로부터 3년 후 리스트는 세상을 발각 뒤집어 놓는다. 1865년 그는 신봉성사를 받고 사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미사를 집전할 수는 없었지만 사제로서의 말은 역할을 진지하게 해내고 있었다.

잠시 언급했던 바그너는 뛰어난 음악가였지만 리스트의 둘째 딸과 세기의 스캔들을 일으키며 결혼하기에 이르러 리스트와는 앙숙이 되었다. 1886년 바그너 사후, 딸인 코

지마가 책임지고 있는 바그너 페스티벌 참석 차 바이로이트를 방문한 적도 있다. 그리고 같은 해 1886년 7월 31일 리스트는 폐렴으로 숨을 거두었다.

신교도였던 코지마는 임종을 앞둔 아버지를 두고 사제를 부르지 않았었고 아버지의 유언이었던 장례식 없이 사제 옷을 입혀서 묻어 달라는 것도 무시한 채 시신을 바이로이트에 안장했다. 그가 바이로이트에 묻힌 것에 격분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유는 바이로이트에서는 리스트의 이름이 사위 바그너의 명성에 가려 빛 바랄 수 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글 신윤영  
(운 음악학원 원장)

120년 전 미국 건너간 국악기,  
모국 국립중앙박물관서 만나봐요

1893년 3월 23일 조선 왕실의 악공들이 국악기 10점을 들고 제물포를 떠나는 배에 올랐다.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만국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제물포에서 시카고까지는 뱃길로 한 달하고도 닷새가 걸렸다고 한다. 조선전시관에는 미국과 우호관계를 맺어 나라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했던 고종의 염원이 담겨있었다. 악공들은 박람회가 끝나자 귀국했지만 악기는 미국 보스턴 인근 피바디에섹스박물관에 기증됐다.



1893년 시카고 박람회에 출품됐던 당비파. 중국에서 전래된 네 줄짜리 현악기다. [사진 국립국악원]

금·당비파·양금·거문고·장구·피리 2점이 돌아왔으며, 훼손이 심한 해금과 용고는 제외됐다. 이 악기들은 10월 1일부터 2개월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120년 만의 귀환, 미국으로 간 조선 악기' 특별전에 전시된다. 이번에 귀환한 악기는 음악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당비파(唐琵琶)는 근대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현존하는 당비파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피리의 입에 대고 부는 부분(서)이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어서 가치가 높고, 용무늬와 자수로 장식된 장구는 궁중악기 특유의 화려함을 자랑한다. (중앙일보 발췌)

당시 박람회에 전시됐던 악기 중 8점이 지난 25일 오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120년 만의 귀환이다. 생황·대

**김인석 빌딩 인스펙션**  
Home & Commercial Building 인스펙터 **이백만불 책임보험 가입**

**빌딩 인스펙션이 필요한 이유?**

1. 빌딩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여 재산상의 손해 및 안전상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
2. 빌딩에 대한 중요한 결함 및 보수해야 할 목록 확인하고 대책 제시.
3. 빌딩구조 설명과 유지 관리 방법을 상세히 설명.

LICENCED PROPERTY INSPECTOR **김인석 / Ian Kim**  
LICENCE #333134  
**Tel : 403 - 975 - 7777**  
Email: betterinspector@gmail.com

**MBA·CGA 문 병 옥 공인회계사**

**◎ 자격 :** 캐나다 공인회계사, 캐나다 재정설계사  
**◎ 약 력 :**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MBA (경영학 석사)

한국 금융권 경력 10년  
캐나다 회계 및 금융 경력 9년  
밴쿠버 라디오서을 방송국 "주간경제뉴스" 고정 출연

◎ 취급업무 : 기업회계, 세무, 해외자산신고, 사업계획, 기업조건해제, 비즈니스 컨설팅

전화 (403)968-2608 E-mail : okcga@hotmail.com  
주소 #312-4014 Macleod Trail S, Calgary AB T2G 2R7(코리아나 여행사 빌딩 3층)

**'Better Life through a Better Education'**

**켈거리 재능교육** 6020 1A St. SW Calgary (403) 266-5223

JEI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쌓은 탄탄한 기본기와 문제해결력이 여러분의 자녀를 자신감 넘치는 학생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JEI Classes : 대상 : Kinder to Gr.9**

- JEI Math / Problem Solving Math / JEI English / JEI Reading & Writing / EI English**  
Phonics, Grammar, Basic Writing & Reading 을 다양하게 다루어 영어 읽기 쓰기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프로그램입니다.
- JEI Reading & Writing Class**  
소설읽기를 통해서 Critical Reading 과 다양한 형태의 Writing을 가르칩니다.
- JEI Math**  
수학의 여러 영역의 원리를 잘 이해시켜 수학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으로 깊이와 다양성을 더해 줍니다.
- JEI Problem- Solving Math**  
JEI에만 있는 다양한 응용문제 중심의 학습지로 문제해결력을 길러 줍니다. 경시대회 준비와 응용력을 기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Calgary N.W. 지역은 JEI 과목을 방문지도 합니다.**  
**\*\*\* 무료 테스트와 성적상담 : 9월 21~9월28일**

**JEI Academy : 대상 : 10 ~ 12학년**

ENGLISH	English L.A. Class (Gr.7~ Gr.12)	각 학년별 소그룹 지도를 통해 개인별 약점을 보완하고 실력을 향상을 시킨다.
	IB & AP Course 준비반(Gr.9)	Test 후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만 참여 가능.
	IB & AP English class (Gr.10~Gr.12)	현재 IB, AP class에 있는 학생 대상
<b>English Diploma 준비반(Gr.12)</b>		
MATH	Math Class (Gr.10~ Gr.12)	각 학년별 소그룹 지도를 통해 개인별 약점을 보완하고 실력을 향상을 시킨다.
	IB & AP Course 준비반(Gr.9)	Test 후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만 참여 가능.
	IB & AP Math class (Gr.10~Gr.12)	현재 IB, AP class에 있는 학생 대상
<b>Math Diploma 준비반(Gr.12)</b>		
SCIENCE	Science 7/8/9/10, Chemistry 20/30, Physics 20/ 30, Biology 20/30	과목별Diploma 준비반(Gr.12)

■ 진학 / 성적 상담 서비스 : 25년간의 교육상담 경험으로 시원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대학 진학 / 고교 진학/ IB/AP 코스 / 성적상담)







최성철 목사의 종교컬럼\_56

캐나다 연합교회 목사

### 역사적 예수가 깨달은 하나님의 의미(8):

## 조건없이 사심없이 함께 아파하는 연민의 사랑은 하나님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삶의 모습에 따르면 '하나님 경험'은 관념적이고 서술적이기 보다는 실천적이며,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체험이다. 다시 말해, 인류가 하나의 생명의 땅을 이루어 상호의존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이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나,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나, 두 손 모아 기도를 하거나, 예수의 모상을 인정하나, 예수의 구속론을 인정하나, 내세를 믿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조건없는 사랑을 신뢰하고 예수의 정신을 따라 다른 사람들과 생명들과 관계를 이루어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신앙과 믿음의 핵심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먼저 개인적으로 스스로 깨달음이 있는 후에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생명들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핵심이다.

신약성서의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연민의 사랑' (Compassion)을 실천함으로써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성스러운 즉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체험한 이야기들이다.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믿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계신 것'을 느끼며 깨닫는 영적 실제 (Spiritual Reality)이다.

복음서들에 따르면 예수는 사람들을 불렀다. 물론 예수의 목적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교회를 세워서 세계를 기독교화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는 여전히 유대교인이었고 기독교 교회는 아직 탄생하지도 않았다. 다만 예수는 '하나님이 있는 곳'은 선한 사람과 죄인을 분리하지 않고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웃고 울며 함께 살아가는 곳이라고 몸소 보이려는 것 뿐이었다. 하나님의 신앙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관계이고 체험이다. 또한 예수는 부른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요청하기를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의 현장을 찾아가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연민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요청했다. 이것이 예수의 원초적인 선교 정신이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자질은 다른 무엇보다도 연민의 사랑을 사심없이 실천하느냐에 달려있으며 이것이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는 사도직의 권위가 되었다. 연민의 사랑의 실천은 제도적인 형식과 율법과 전통과 이분법적 교리에 억눌려서 하나님 즉 '생명의 영' (the Spirit of Life)으로 부터 분리되어 생존의 두려움과 편견과 이기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암흑 속의 빛과 희망과 기쁨이었다. 예수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체험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경이롭고 신비스러운 체험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는 체험이라고 깨달았다.

예수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분법적 종교체제와 제도적인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지 않았으며, 오직 '삶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이 성숙해져 가도록 격려했다. 무엇보다도 평범한 민중들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혹독한 세금제도와 제국적인 농업정책과 중앙통제의 경제정책과 종교적인 정결법과 같은 비상식적인 율법에 더 이상 억눌려 살지 말고 이것들에 항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으라고 도전했다. 예수의 꿈은 로마제국의 황제가 통치하는 세상을 개혁하여 '연민의 사랑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정한 분배의 정의가 구현되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2%의 부자들이 통치하는 21세기의 세상은 2000년 전에 로마제국이 통치하던 예수의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전 세계 인구 70억 중의 30억이 하루에 \$2.50 이하를 가지고 연명하고 있다. 또한 전체인구의 80%가 하루에 10불로 살고 있다.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어디에서 체험할 수 있는가? 예수의 정신과 가르침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가? 1세기에 예수를 따르던 방식과 21세기에 예수를 믿는 방식이 다른가? 예수가 로마제국에 항거하여 선포했던 '연민의 사랑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나라는 2000년이 지난 후에 효력이 없어졌나? 엄밀히 말해서, 예수가 선언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죽은 후에 올라가는 하늘 위의 나라가 아니



라 지금 여기에서 공정한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는 연민의 사랑이 풍성한 나라이다.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정신을 따른다면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연민의 사랑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수상이나 여왕이나 대통령이 통치하면 그들의 통치를 느낄 수 있듯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면 당연히 통치자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연민의 사랑을 일상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국은 세상과 만물과 생명들을 보는 방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기독교 교회에서 흔하게 하는 영성훈련 또는 기도훈련 또는 제자훈련 또는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 또는 부흥회 등의 목적은 언제 어느 곳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던지 '연민의 사랑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영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홀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미완성의 신앙과 삶이고 때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사심없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

수 있다.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모든 호흡에서 기적을 느낄 수 있다. 살아있다는 것이 신비스럽고 경이롭다. 바람을 느낄 때, 햇빛이 얼굴에 와 닿을 때, 시원한 비를 맞을 때에 생명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 즉 사랑을 체험한다.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가르친대로 피상적인 삶에서 얻는 즐거움과 쾌락보다 인간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심오한 삶의 의미를 체험하기를 갈망해야 한다. 생명의 중심에 있는 '사랑'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촌의 동료 인간들은 모두 잘 살고 있지 못하다.

아프리카에서는 수 백만 명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카리브해 연안의 사탕수수 농장의 농부들은 하루에 16 시간 이상을 일하고도 겨우 4불을 받고 있다. 교회들은 아직도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려고 한다. 또한 인종차별, 성차별, 성적본능차별, 빈부차별이 교회 안밖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모든 생명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생명들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적인 세상이다.

교회가 정치적이고 상업적으로 착각한 교리들에서는 사랑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역사적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그대신 필수조건과 두려움과 심판과 징벌의 소리만 들릴뿐이다.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예수의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똑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은 성서의 핵심이다.' (마태 22:34-40). 조건없는 연민의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없다.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느끼고 알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세상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새로운 눈으로 새롭게 보고, 새로운 귀로 새롭게 들으며,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체험'이다.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는 것은 불공평한 세상을 공평한 정의와 조건없는 연민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수가 깨달은 '하나님의 의미는, 하나님은 인간이 온전히 알 수 없는 우주적인 신비함이며; 하나님은 불과 바람과 같은 창조적인 변화의 힘이며; 하나님은 재생의 힘 즉 생기(숨, 에너지)이며; 하나님은 생명의 중심이며; 하나님은 생명의 심장이고, 인간은 그 심장의 박동이며; 절

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비겁함이 담대함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불의가 정의로, 전쟁이 평화로 변화되는 현실이 하나님의 실제 (Reality)이다. 따라서 사랑, 정의, 평화, 희망, 기쁨이 하나님이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4:16)는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기가 왜 그렇게도 힘든가? 그러나 이 진리를 어디에서나 찾아 볼 수 있다. 이 광대한 우주 안에 있는 만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기적이다. 매일 매일의 삶의 순간들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매 순간들은 순수한 사랑의 기적들이다. 모든 순간에 생명의 기적, 즉 사랑의 기적을 느낄

#### 조영탁의 행복 경영 이야기

###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것이 희망이다.

기차가 6시45분에 도착하기로 돼 있다. 그것을 기다리는 건 희망이 아니다. 그것은 오기로 돼 있는 거다. 가만히 있어도 온다. 당장 시점에서 아무런 보장이 없는 것. 보장은 커녕, 아예 안 올 거라고 보장 돼 있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희망이다. - 홍승수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 천문학회 전 회장) 이루어지게 되어있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희망이고, 쉽게 이뤄지지 않는 것이 비전입니다.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낙담할 일이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불가능해 보일수록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hanwood** EMIGRATION "Your Success Our Service"

캐나다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최장주 (ICCRC ID: R409111)

- 주요업무 :
  - LMO 및 취업비자
  - 주정부이민: AINP, BCPNP, SINP, MPNP
  - 연방이민: CEC, FSW, 가족초청이민, 투자이민
- 사무실 주소 : 218-4014 MacLeod Trails SW, Calgary AB T2G 2R7

403-774-7158 / www.hanwood.ca

**박찬중 재정투자금융**

투자: 은퇴적금(RRSP), 은퇴수입(RRIF), 교육적금(RESP), 비과세저축(TFSA), 노후연금(Annuity)  
\*다양한 투자유선(증권, 펀드, 적금, 연금, 보험, 7천여 상품)과 전문적인 투자자문,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 체계적인 사후관리

보험: 생명, 중병, 간병, 장애, 건강, 치과, 그룹, 여행자, 수퍼비자, 모기지, 유산상속, 사업보험  
\*엄격 최저가격 보장 (수입여 보험사와 업무 제휴)

모기지: 주택모기지 (최저금리 보장), 상업용 모기지, 사업자대출, 장비리스, 팩토링  
\*시중은행 포함 50여개 금융기관 거래

재무설계: 맞춤형 재무설계 서비스 (절세, 은퇴, 상속, 사업승계, 부채/현금흐름/위험관리)

Steward Financial

Cell : 403-863-8580 E-mail : chjoong@hotmail.com

한우드 이민칼럼 (68)

# 앨버타 주정부이민 개정

## - 주요 내용 Q & A -



최근 몇주간 앨버타주정부 이민 (AINP) 관련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발표되었고, 기존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도 개정되면서 많은 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된 앨버타취업경력자 (AWE - Alberta Work Experience Category) 및 앨버타 대졸취업자 (PGW - Post-Grad Worker) 우대 프로그램은 신청자들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주목됩니다.

그러나 몇 주간의 과정을 지켜보면 주정부에서 이미 발표된 세부사항을 몇 차례 수정하여 오해와 혼동이 발생했습니다. 자격요건을 중심으로 다시금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몇 가지 사항들을 문답식으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 Q Cook의 경우 어떤 변화가 있나?

A 주정부이민 프로그램 내에 두개의 옵션이 가능해졌다. 즉, 자격증 제출을 요하는 기존의 프로그램 (SRS)에 더하여 신설된 앨버타주 경력이민 (AWE)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앨버타 취업경력 최근 2년내 1년 이상인 Cook들은 올 11월 28일까지 한시적이거나 자격증 제출없이 AWE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영어성적제출은 여전히 필요하며 최소점수만이 다소 낮아졌다. (IELTS 기준 4.0 이상) 한편, 연방으로 직접 신청하는 기존의 캐나다경력이민 (CEC)는 당연히 이번 개정과 무관한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전과 동일하게 그대로 시행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Q 비숙련직의 경우 어떤 변화가 있나?

A 최근 3년내 취업경력 11월 28일까지 AWE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비숙련직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Food & Beverage Server, Kitchen Helper, Food Count Attendant, House Keeper, Cashier, Grocery Clerk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Q 레스토랑 비숙련직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개정 내용은 없나?

A 긍정적인 변화로서 종전의 업소당 1명 정원 규정이 삭제되었고, 직원수 20% 범위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즉, 직원 12명인 업소의 경우 비숙련직 3명까지 신청이 인정된다. 역시 11월 28일까지 한시적임을 주의해야 한다.

### Q 호텔/모텔 등에 종사하는 비숙련직과 관련한 변화는?

A 당초의 규모별 주정부 이민 신청인원 제한 규정은 올 11월 28일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호텔/모텔에 종사하는 비숙련직으로서 Food & Beverage Server, Room Attendant (House keeper)는 50개 객실당 2명, Front Desk Clerk은 1명으로 주정부이민 연간 허용인원수가 제한되어 왔었는데, 한시적으로 올 11월 28일까지는 제약없이 허용된다.

### Q Retail, Service Supervisor 직종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A 그간 많은 해당 직종 취업자들에게 주정부 이민 (Employer-Driven

Skilled Worker Category) 신청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관련 대학 전공 요건이 이번에 삭제되었다. 이 부분은 특히 신청서 제출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기존에 시행되어 오던 프로그램속에 추가된 것이므로 앞으로 상당수 해당자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 Q 앨버타경력이민 프로그램 (AWE) 요건은?

A 신청서 제출일 현재 앨버타내에서 Full-time 취업 중이며, 숙련직은 최근 2년내 1년 이상, 비숙련직은 최근 3년내 2년 이상 앨버타내에서의 취업경력을 증명해야 한다. 단, 제외대상직종 리스트 (Ineligible occupation list)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11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Q AWE 경력기간 판단 기준은?

A 숙련직은 최근 2년내 1년 이상, 비숙련직은 최근 3년내 2년 이상 full-time으로 취업한 경우에 인정된다. Full-time의 기준은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이다.

### Q 국제학생으로서의 혜택은?

A 기존의 프로그램 (Employer-Driven International Graduate)에 더하여 졸업후 앨버타내 취업자를 위한 프로그램 (Post-Grad Worker) 이 신설되었다. 앨버타내 대학에서 1년(2학기) 이상 코스 수료 후 취업한 국제학생들에 한하여 즉시 주정부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신설된 PGW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기존 국제학생 프로그램 요건이 수정되었음

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6개월 이상 취업후 신청 요건은 삭제되었고, 종사직종에 비숙련직이 추가되었다.

### Q 앨버타대졸취업자 우대 프로그램 (PGW) 요건은?

A 주정부가 인정하는 앨버타내 1년 이상 대학 코스 수료자로서 앨버타주내에서 취업 중이어야 하며, 숙련직은 물론 NOC C level의 비숙련직을 포함한다. 그러나 9월 27일자로 갱신된 제외대상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이어야 하며, 졸업후취업비자 (Post-Grad Work Permit) 소지자만이 해당됨을 주의해야 한다.

### Q 기존의 국제학생 프로그램과 신설 PGW의 차이?

A 가장 뚜렷한 차이점으로서 신설된 프로그램은 고용주의 동의 내지 협조 없이 취업자가 독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 프로그램에서 비숙련직이 불가능했음에 비해 신설 프로그램은 비숙련직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 Q 당초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앨버타주 외 대학코스 졸업자들에 대해서도 앨버타주 취업후 즉시 주정부이민 신청이 가능했는데, 불과 며칠만인 9월 27일자 발표에 따라 제외되었다. 갑작스런 변경이유는?

A 예상치 못한 신청자 수도로 인해 앨버타주 대학 졸업자만으로 한정하는 변경이 불가피했다.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27일을 기준으로 이전 신청자들에게 대해서 만큼은 당초 발표내용대로 인정된다.

### Q Daycare Centre 취업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나?

A 변화된 내용이 없으며,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설된 AWE나 PGW로 갈 수 없다. 종전 앨버타주 고용주 주도형에서의 자격요건만이 그대로 적용된다.

### Q 산업기능인력 (Trades)을 위한 프로그램의 변화는?

A 자격증 필수 업종 (Compulsory Trades)은 여전히 앨버타자격증 제출이 필요한 기존의 프로그램 (SRS) 으로서만 주정부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격증업종 (Optional Trades)는 SRS 외에 이번에 신설된 AWE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Q 새로운 프로그램들의 적용제외 대상직종 리스트란 무엇인가?

A 당초 적용대상 직종 리스트 (Eligible occupation list)가 발표되어 약 100여개 정도만의 직종이 적용되었지만 곧바로 현재의 적용 '제외' 대상 직종 리스트 (Ineligible occupation list)로 대체되었다. 신청자들은 프로그램에 따라 각각 제외대상 리스트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가령, Cook의 경우 PGW의 제외대상 직종 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므로 이 프로그램으로 갈 수 없다. 반면, AWE의 제외대상 직종 리스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Food & Beverage Serve, Food Count Attendant, Kitchen Helper, Housekeeper, Cahier, Grocery Clerk 등은 두 프로그램의 적용제외대상 직종 리스트

에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설된 두 프로그램 모두 신청이 불가능하며, 기존의 비숙련직을 위한 프로그램만이 가능하다.

### Q 영어점수제출 요건의 변화는?

A 비숙련직에 대한 영어점수 제출요건은 변동 없이 적용된다. 즉, 최소 IELTS 4.0 또는 CELPIP 2H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새로이 도입된 AWE의 경우 skill level 과 무관하게 모두 최소 영어점수를 제출해야 하지만, PGW의 경우 비숙련직 (NOC C level) 만이 제출의무가 있다.

### Q 신청서 제출기한은?

A AWE와 요식업 및 숙박업 비숙련직 특례 (정원제한 폐지) 조항은 모두 올 11월 28일까지만 시행된다. 시행초기인 현재로서는 연장여부를 알 수 없으며, 당일 업무시간까지 앨버타주정부 해당 사무실로 직접 배달되거나 당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신청서만이 유효하다. 이외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전과 동일하게 제출기한 없이 시행된다.

최근 앨버타 주정부이민 개정과 관련하여, 약 2주의 짧은 기간 동안 중요한 사항들이 수정 발표되었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룬 2주전의 칼럼은 이번 글의 내용과 비교하여 이해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최장주 공인 이민 컨설턴트**  
ICCRC ID: R409111  
jchoi@hanwood.ca  
403-774-7158

## TRIUM ENVIRONMENTAL INC.

트rium 환경 (주)

**2007년 알버타 주 토양/지하수 환경 기준 변경 이후,**

주유소/건물 매매, 모기지 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 과거 기준으로 적합 판정 받았던 시설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ONE STOP SOLUTIONS!**

**Turn-Key Services!**

환경오염 진단부터 정화완료까지!

트리움 환경(주)는 자체 보유한 특허정화기술 (ChemOx®)을 바탕으로 300개 이상의 환경 조사, 진단 및 오염정화 프로젝트의 경험 보유

- ◆ Nexen, Imperial Oil, ConocoPhillips, Encana, Cenovus 등 주요 석유회사
- ◆ City of Calgary, City of Edmonton, Government of Alberta 등 정부 기관
- ◆ USA, Yemen, 한국 등지에서 해외 프로젝트 수행 경험

Commercial and Retail Business를 위한 컨설팅 및 정화 용역을 제공합니다.

### 주요 업무

- ☑ 환경오염 진단 및 모니터링 Phase I/II Environmental Site Assessments (ESAs)
- ☑ 오염 정화 설계 및 시공 Remediation Design, Engineering & Field Application
- ☑ 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방안 개발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 Management

**Lena Park (박혜람) Project Coordinator**      한국어 상담 가능

Phone: 403-932-5014 (Ext. 226)      Email: lpark@triuminc.com

www.triuminc.com      Head Office: 2207, 120 - 5 Ave. West Cochrane AB T4C 0A4  
Equipment Facility: Drayton Valley, AB      Field Office: Edmonton, AB

Attracting immigrants with the skills and talents Alberta needs is an important part of addressing labour pressures – now and in the future.

"Overview of Immigration to Alberta." Government of Alberta Enterprise and Advanced Education. n.p. n.d. Web. June 2013.

Respond to Alberta's need for immigrants.

## Become a Regulated Immigration Consultant

**Full-time | Part-time | Online**

Apply online at [www.ashtoncollege.com](http://www.ashtoncollege.com) or contact a program adviser at (604) 899-0803.

**Ashton College | Vancouver, BC**  
604 899 0803 | 1 866 759 6006  
[www.ashtoncollege.com](http://www.ashtoncollege.com)

Ashton





영어 한마디 Issue & Word

마일리지 프로그램은 콩글리시!

항공사를 이용하거나, 제휴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무료로 항공권과 기타 편의 사항을 제공해 주는 마일리지 프로그램.

현재 우리나라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프로그램에 가입한 사람은 2천만 명이 넘으며,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등의 이용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받는 회원도 수백만 명에 이른다.

특히 휴대폰 가입자들을 늘리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은 마일리지 혜택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한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따르면 1년간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무료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모인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얻어 휴가를 보낼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 둔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을 신청하지만, 항공사로부터 좌석이 없다는 답변을 듣기 일쑤다. 빈 좌석이 있지만, 보너스 항공권에 할당된 좌석은 없으며,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겠다는 대답만 할 뿐이다.

항공사들은 마일리지를 통한 무료 좌석을 10% 이하로 배정해, 상당수의 고객이 1년 이후까지 마일리지 좌석을 구하지 못한다.

이에 일부 고객들은 차라리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돌려달라며 인터넷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는 약관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 좌석 수를 제한하고 있다. 좌석 수는 항공사별로 비행 구간이나 일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히 성수기에는 탑승 자체가 거절되거나, 탑승하더라도 마일리지 공제 비율이 높아진다.

마일리지 서비스(mileage service), 마일리지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는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다. 정확한 표현은 항공사 등에 적용될 경우는 frequent flyer program이라 하는



데, frequent flyer, 즉 자주 탑승하는 단골 승객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다. 신용카드 등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 프로그램은 loyalty program이라고 한다. loyalty(충성도)가 높은 고객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예문 1] A frequent flyer program is a service offered by many airlines to reward customer loyalty.

>> 많은 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사 마일리지 프로그램은 충성도 높은 고객에 대한 보상 서비스다.

[예문 2] One of the advantages of our frequent flyer program is, of course, your chance to earn free trips after a certain number of miles.

>>저희 마일리지 제도의 이점 중 하나는, 물론, 일정 마일을 이용하신 이후에 무료 탑승 기회를 얻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Key Word

- 항공사 마일리지 프로그램 - frequent flyer program
- 신용카드나 휴대폰의 마일리지 프로그램 - loyalty program
-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 - loyalty

Writing Practice

[힌트] 공식 발표하다 - has officially declared / 더 많은 승객을 유치하다 - attract more customers

VK 항공사는 마일리지 프로그램이 더 많은 승객을 유치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 말씀으로 배우는 삶의 지혜 ●

기쁨은 365

- 지혜로 여는 매일 묵상 10월 -



가난한 이웃은 하나님의 축복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잠 21:13)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을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의 사업자들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가난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인간의 욕심이 빛은 무한 경쟁 때문에 인간 세상에 들어온 악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낙오자가 아니라 피해자

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싫어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여유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은 부자는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거지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불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자 칼빈은, 전능한 경쟁 때문에 인간 세상에 들어온 악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낙오자가 아니라 피해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소리에 귀를 막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막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가난해져서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에게 외면 받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하소서”

악인의 운명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잠 21:18)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던 시절, 하만은 권력 서열 2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이외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절을 할 수 없다는 모르드개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개의 동족 유대인을 멸절하기로 작정하고 간교한 말로 왕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또 모르드개를 반역자로 몰아 높은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하만이 꾸민 유대인 대학살 음모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모르드개를 수치스럽게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고 만 것입니다(에 7:10).

‘의인의 속전’, ‘정직한 자의 대신’은 의인이 지불해야 하는 죄의 대가나 보상금이 아니라 악인이 의인에게 덮어씌우려 했던 울무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에 어긋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던 것을 고스란히 자

신이 떠안게 됩니다. 악인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더딜지라도 악인은 반드시 자신의 울무에 걸리게 되고 의인은 보호받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성도가 할 일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을 벌하고 의인을 보호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 여가란

한 아파트에 사는 여자들이 서로 상대방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하며 법정에서 그들의 논쟁은 소란스럽게 계속되었다.

판사는 법정이 정숙하게 하기 위해서 방망이를 내리치고 나서 말했다.

“질서 있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사

람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요?” 그러자 아무도 증언하려고 하지 않는 바람에 사건은 기각되고 말았다.

★ 케빈

사오정이 영어 시험을 보고 있는데 ‘before’의 뜻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

사오정이 옆 친구의 답을 힐끔 봤더니 ‘전’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걸 본 사오정이 답을 적었다. ‘지짐이’.

★ 오기심

어린 소녀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있나

요?” “그렇단다, 애야. 보시고 말고!” “심지어는 어린애들이 하는 모든 행동도 보고 모든 말도 듣나요?” “그야 물론이지.”

소녀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한마디 던졌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호기심이 너무 많은 분이네요!”

★ 슬주정병이의 추억

“여러분, 이번 추석에 북 많이 받으세요.”

잔뜩 술 취한 주정병이가 술집에 들어와 외쳤다.

그 말에 옆 사람이 물었다. “당신 들었소? 벌써 10월인데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요?”

이 말에 주정병이는 놀라

며 소리쳤다. “아이쿠, 큰일 났군. 이번엔 마누라가 정말 죽인다고 덤비겠는걸?”

★ 낙원에서

어린이 예배 때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다. “어린이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언제까지 살았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3학년 멀구가 말했다.

“목사님, 9월 말까지입니다.”

목사는 소년에게 다시 물었다.

“멀구야,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자 멀구가 대답했다. “사과는 9월이나 돼야 익거든요.”

★ 익과별 물에 빠진 사람 구하기

1. 체육학과 → 큰 소리로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친다.
2. 신학과 → 물이 두 갈래로 갈라지기를 기도한다.
3. 토목학과 → 상류로 올라가 댐을 쌓는다.
4. 화학과 → 소금을 잔뜩 강물에 풀어 넣은 후 사람이 뜰 때 구한다.
5. 화학과 대학원 → 강물을 전기분해해 산소와 수소로 분리되면 그때 구한다.
6. 광학과 → 오목거울과 볼록렌즈로

햇빛을 집중시켜 강물을 증발시킨다.

7. 항공학과 → 커다란 선풍기를 구입한 후 물에 빠진 사람을 건넌 뒤 강둑으로 날려 버린다.

8. 신문방송학과 → 사진 촬영하고 다음 날 신문에 낸다.

9. 심리학과 → 구해 줄까 말까 놀리면서 어떤 심리를 보이냐 본다.

★ 영어 시간

오늘 영어 시간이었다. 영어 선생님이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허리를 펴라’가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다. 웅성거리다가 뒤쪽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허리 업!”

♣ 기존 메뉴는 모두 제공됩니다.

**고향의 맛을 찾아드립니다.** **기계식 냉면**

**왕갈비 콤보 개시!!!** 왕갈비 + 선택메뉴  
된장 / 김치/순두부찌개/물냉면/비빔냉면

**정북궁** **클립하우스** TEL : 403-288-5656 5012-16th Ave NW Calgary  
영업시간 월 ~ 일 : 11:30 am - 10:00 pm

**모니카 Personal Training**

모든 연령대의 여성과 비만 청소년 전문 트레이너

건강한 삶을 원하는 모든 여성,  
아름다운 몸매를 원하는 모든 여성,  
자신감 넘치는 멋진 인생을 원하는 모든 여성을 위한 준비된 여성 Trainer입니다.

● 1:1 Training, Group Training, Home and Public Training

Profile : Internationally Certified Licensed Personal Trainer, CPR. (심폐소생술)

403-903-8282



Phone : 403-241-1139  
www.cminetworksystems.com



- Data & Voice Cabling
- Fiber Optic Cabling
- Wireless Services
- IT Services
- VoIP Phone Systems
- POS – Point of Sale

# CMI NETWORK SYSTEMS CANADA

**무료견적**

**랜(LAN)공사 전문**

- 알버타 전역 호텔, 병원 학교 및 다양한 업체

**컴퓨터 유지보수**

- 무선인터넷 시스템, 인터넷 전화, POS, 크고작은 네트워크 구성



**회원 10,000명 돌파**

## 지난 11년간 CN드림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동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앨버타주 1등 신문 CN드림이 올해 10월 4일부로 창간 11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11년간 CN드림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모든 동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CN드림 신문사는 발행인 포함, 총 9명이 매주 알차고 유익한 신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CN드림은 북미 내 여러 대도시에서 발행되는 (주간) 한인신문들에 비교해도 손색없는 수준 높은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CN드림 웹사이트는 (www.cndreams.com)는 발족한 지 만 13년이 되었습니다. 하루 조회건수 평균 3300건(년간 1.2M), 총 회원가입자 수도 최근 1만명을 돌파하는 등, 동포사회 내 건강한 여론 형성과 활발한 정보교환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바른 원칙과 소신으로 중립적 자세를 지켜가며, 등불 역할을 하는 언론사로 자리 매김을 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항상 놓여 있었지만, 동포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사랑이 있었기에 힘든 줄 모르고 뜨거운 열정으로 지난 13년간을 달려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언론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며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CN드림 임직원 일동 드림  
발행인: 김민식 편집부: 오충근/서덕수/박연희/이남경 디자인부: 박미경/이명숙/이일신 보급부: 최희용

**CN드림 웹사이트 회원가입자수 1만명 돌파**

앨버타주 최대규모이자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CN드림 웹사이트

2000년부터 지금까지 13년간 동포사회 내 건강한 여론형성과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교환의 장으로 그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해 온 CN드림 웹 사이트(www.cndreams.com)의 (유효) 회원 가입자 수가 9월 6일(금)부로 1만명을 돌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유효 회원가입자수에는 미인증, 탈퇴, 사용정지 회원을 모두 빼고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원 숫자이며 실제 총 가입된 누적 회원 숫자는 18,500명에 달합니다.



## SW profitable convenience store for sale!

- Asking : \$195,000 + stock
- 1,500 sq.ft.
- 10 + 10 years lease from 2004
- Building only 9yrs old
- Located at very busy strip mall in desirable community
- Surrounded by parks, playground, and bus stop
- Only one movie rental shop in the area
- Ample parking space, very clean, functional setting
- High success! High returns! Still growing!
- Book your private tour with me now!



### Bob Kyoung

경민구

**MaxWell**  
MaxWell SouthStar Realty

*MaxWell SouthStar Realty / Certified Condo Specialist*

Office 403.253.5678 (24HRS)  
 Cell 403-700-3232 (한글문자 가능)  
 Fax 403.592.7525  
 E-mail bkyoung@maxwellrealty.ca  
 Address #20, 8180 Macleod Tr. S



# (주)시공사

(구)정건축

Residential / Commercial / Motel / Deck and Fence  
Renovation / Extension / Structural change



▶ 홈페이지 [www.ci04.net](http://www.ci04.net)  
다수의 시공사진

### (주) CI04는?

사람을 생각하는 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설계  
시공관리  
시공보증  
하자보수, 인스펙션 서비스

● 최근 캘거리 : 심재현로펌 레노베이션, SW 가정집 대크, 콘도 DecTec 방수공사, 현 주유소 증축



**Better Business Bureau** 등록업체

대표 : Jay JEONG (온타리오 홈인서팩터, 북미 건축경력14년)  
 T : (587) 435-5114 Fax : (403) 805-2516  
[www.ci04.net](http://www.ci04.net) e-mail : ci04@naver.com  
 주소 : 19 edgeridge court NW Calgary

## 그 동안 POS SYSTEM이 너무 비싸서 구입하시기를 망설이셨습니까?

최고의 서비스! 최저의 가격!

## 이제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

\$4,500
\$2,999
에 모십니다.

**POS SYSTEM INCLUDED**

- H/W 3 YEARS WARRANTY
- 1 YEAR FULL WARRANTY
- POS SERVER ALL-IN-ONE (PC & 15" T/S)
- RECEIPT PRINTER-HIGH SPEED THERMAL
- CASH DRAWER SET UP & CONFIGURATION
- MENU INPUT (EXCEPT GROCERY & LIQUOR)
- NETWORK INSTALLATION

**FREE MAINTENANCE**

- CALL ANSWERING
- SOFTWARE UPGRADE
- DATA BACKUP
- TROUBLE SHOTING WITH REMOTE
- HARDWARE REPLACEMENT



## 여러분을 위한 최상의 비즈니스 솔루션 판매·결제·보안 시스템을 한 곳에서 !!!

**현 수수료를 낮추어 드리지 못하면 사장님께 \$500을 드리겠습니다.**



Wi-Fi Smartchips Complaint

VX570 High speed or Dial (Dual mode) VX670 Wireless Terminal

**식당, 그로서리, 세탁소, 리커스토어, 모텔 (BC, AB, SK, MB)**

- 모든 A/S는 당일로 처리
- 타인에게 양도 가능
- 리스 만기시에도 평생서비스 보장
- 무료 설치 / 무료 Training



**1.59%**  
Savings Guarantee



**1.62%**  
Savings Guarantee



**7¢**  
per transaction

**영수증 롤 (Thermal Receipt Roll)**



한국제품 • 최저가격보장

**공짜 ATM + \$500 sign up 보너스**

- ① 최신형 기능의 완벽한 터치 스크린 방식 최신형 모든 기능 인식기계 신화 \$20 인식, 카드칩 인식
- ② \$500 공짜 + ATM 공짜  
저희 회사에 ATM 설치 장소를 제공하시면 무료로 ATM을 고객 여러분께 대여해드리며(설치비용과 액티베이션 비용 없음) 현금 인출 횟수에 따라 최고 \$500까지 보너스를 드립니다.



**NOW HIRING** 영업사원(0명) 모집

BC, AB, SK, MB 지역 매니저  
 Salary(\$4,000) + Car Allowance (\$500)  
 이력서 : oejj@telus.net

403-889-2222 (이주엽, Louis Lee)  
 Toll Free 1-866-515-5995  
 Tech Support 1-866-584-7768



